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제27회 2020년 여름 학술대회

어린이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 일시 : 2020년 8월 29일 (토) 14:00 ~ 17:40

■ 장소 :

① **기조 특강 영상, 발표문·토론문 탑재**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유튜브 채널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구글 문서

② **학술대회 실시**
- zoom 화상 회의실 https://zoom.us/

■ 주최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관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 후원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 창비어린이
역락 · 박이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제27회 학술대회 일정표>

“어린이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 주최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관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 후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창비어린이, 역락

1. 대회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2020. 8. 29. 토요일 14:00~17:40

○ 장 소: 온라인 학술대회

학술대회 영상 및 발표문·토론문 사전 탑재

① 기조 특강 영상 탑재: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유튜브 채널
(링크 주소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

② 발표문·토론문 탑재: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구글 문서
(링크 주소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

③ 사전 탑재 이후 논의 및 질의 댓글 가능

학술대회 실시

① 학술대회 실시: 2020. 8. 29. 토요일 14:00~17:40

② 구글 문서에 달린 댓글과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 토론 실시

③ 실시 프로그램: zoom 화상 회의실 https://zoom.us/

④ 입장 아이디, 비밀번호: 시작 1시간 전 회원 메일로 안내

2. 대회 주제 및 일정별 세부 계획

1부: 기조 강연 및 특강, 2부: 기획 발표 및 개인 발표

일정		발표 및 내용
접수	13:30~14:00	zoom 회의실 안내 및 회원 접속
1부 기조강연 및 특강 사회: 조은숙(춘천교대)	14:00~14:15	• 개회사 - 권혁준(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회장, 공주교대)
	14:15~14:40	• 기조강연: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 나윤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14:40~15:00	• [특강1]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몽실언니』 다시 읽기 - 발표자: 조연수(수원 초등국어교과모임 '책과 노니는 교실')
	15:00~15:20	• [특강2] 디지털 사회의 아동 권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발표자 : 박유신(한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부회장)
	15:20~15:30	**휴식**
2부 기획발표 사회: 김상한(교원대)	15:30~15:50	• [기획 발표1]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 및 쟁점 - 발표자: 김지은(서울예대) - 토론자: 이상희(조선대)
	15:50~16:10	• [기획 발표2]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소설 - 발표자: 오세란(공주교대) - 토론자: 강수환(인하대)
	16:10~16:20	종합토론
	16:20~16:30	**휴식**
2부 개인발표 사회: 박성애(서울시립대)	16:30~16:45	• [개인발표1] 잡지 『동시마중』을 통해 소통되는 창작의 경향성 분석 - 발표자 : 염창권(광주교대) - 토론자 : 이향근(서울교대)
	16:45~17:00	• [개인발표2]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 연구 - 발표자 : 이근영(전주기린초등학교) - 토론자 : 김정은(서울송전초등학교)
	17:00~17:10	질의 응답
연구윤리특강 및 폐회 사회: 김수영(단국대)	17:10~17:30	연구윤리특강
	17:30~17:40	폐회사

목 차

기조 강연 및 특강 ○●

【기조강연】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발표: 나윤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특강1】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몽실언니』 다시 읽기
발표: 조연수(수원 초등국어교과모임 '책과 노니는 교실')

【특강2】 디지털 사회의 아동 권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표 : 박유신(한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부회장)

기획 발표 ○●

【기획 발표 1】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 및 쟁점
발표: 김지은(서울예대)
토론: 이상희(조선대)

【기획 발표 2】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소설
발표: 오세란(공주교대)
토론: 강수환(인하대)

개인 발표 ○●

【개인 발표 1】 잡지 『동시마중』을 통해 소통되는
창작의 경향성 분석
발표 : 염창권(광주교대)
토론 : 이향근(서울교대)

【개인 발표 2】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 연구
발표 : 이근영(전주기린초등학교)
토론 : 김정은(서울송전초등학교)

연구 윤리 특강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어린이 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기조 강연: 나윤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어린이 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

나윤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 윤경입니다. 전염병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어린이 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시는 학회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울러 젠더와 인권교육의 종사자로서 감사의 마음도 담습니다.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지난 7-8개월 간 사회 구성원들의 방역 노력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땀방울이 헛된 것으로 돼 버릴까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그 나잇대만 특권처럼 들고 다니는 알록달록 선명한 빛깔의 가방에 걷고 뛰고 장난치며 낄낄깔깔 친구들과의 등교시간마저 신이나 있는 어린시민들을 못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만으로도 과연 이 어린시민들의 미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암울함과 적막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또 다른 인재에 의해 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그리고 불안하게 전망하게 됩니다. 바로 성인과 청소년 남성들에 의한 n번방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 때문입니다. 초등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거실에서 즐겨본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몸, 끼 등을 ‘재미’로 키득거리며 여성 상품화를 일삼는 남성 연예인들이 넘쳐 납니다. 한 남성 연예인의 별명은 ‘음탕’일 정도로 그는 공공연하게 ‘야동’(불법촬영물)을 시청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런데도 그는 국민 MC로 칭송 받습니다.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는, 그래서 ‘무해한’ 것으로 인식되는 프로그램에서 암컷을 묘사하는 방식은 “섹시한 몸매” “아찔한 뒷태”와 같은 식입니다. 물론 수컷에 대해서는 “남자는 역시 힘이지~”와 같이 표현합니다.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에 대해 부모들이 미안하고 안쓰런 마음에 허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많은 부분이 여성 몸에 대한 파편화와 상품화를 중심에 두고 있음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공식’이 된 듯합니다. 저희 양평원과 일선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노력들을 비웃듯 분당 수천 건씩의 문제적인 유튜브 컨텐츠가 생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n번방 가해자들을 양산한 한국사회의 문맥입니다. 어린시민들을 지금 여기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준비된 n번방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 시민들에게 강제적 셧다운을 결정해야 했을 만큼 이들이 현실세계보다 인터넷 세계에 몰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현실세계가 그들에게 ‘노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곧 대입시를 위한 교과중심의 학습을 의미하는 한국적 현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교육부 방안에 매번 ‘학원’부터 찾으며, 코로나로 아이들을 학교는 안 보내도 학원만은 꼭 보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자화 된 부모들, 이름은 ‘혁신’이었지만 사실은 대입시 방식의 지속적 변형에 불과했던 교육당국의 빈곤한 상상력... 이들은 어느덧 한국 사회가 해

볼 수 있는 교육적 시도 매뉴얼의 한계이자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당분간은 내일도 노잼인 현실을 견디듯 살아갑니다. 아니 그들에게 인터넷 세계가 있어 그 현실을 그나마 버텨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투, #스쿨 미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n번방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에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상상해야 할까요. 여전히 In Seoul, SKY를 외치며 이들을 밤낮 없이 학원으로 내돌려야 할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참교육에 대한 빈곤한 상상력 때문에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시민들은 호기심에 가득한 배움에의 열망을 거세하듯 지워가고 있는데도요. 평균수명 100세 이상을 살아간다는 이들에게 시대적 맥락에 맞는, 아니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 꼭 필요한 가치들을 배워가는 의미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공부경쟁, 시험경쟁에 치여 정작 배움에의 열기는 열 살 도 안 돼 잃어가고 있는데도요. 이럴 때, 아니 이럴 때일수록 문학이 주는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의 세계로 이들을 안내해야하지 않을까요. 문학이 유일한 답은 아닐지라도 문학 안에 매우 유망한 답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 '이상향'으로만 품고 있는, 다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높게, 그 보다 더 넓게 동화책 속,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세상 모든 존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며 그려 보는, 지금은 글 안에서만, 책 안에서만 가능한 세상을 이들이 언젠가는 집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전체에서 만들어가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당연시하며, 인간이 자연과 맺어버린 수직적 관계, 착취적 관계 때문에 존재들 간의 평화 대신 불안과 불신의 일상을 견디고 있으며, 오도가도 못 할뿐 아니라 친근한 사람들과 말 한마디, 밥 한 끼도 절제해야 하는 슬픔보다 더 슬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 다양한 존재들과의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은 댓가는 이처럼 혹독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 시민의 미래와 문학: 젠더/인권 감수성과 상상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어린이 시민들로 하여금 젠더와 성평등 감수성이 다만 여성과 남성 간의 위치설정에 대한 감수성이 아니라, 나이, 피부색, 문화, 계층,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쩌면 의도치 않게 폭력적이거나 혹은 그 폭력의 대상일 수 있는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해 성찰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감수성이며, 다른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과의 정의롭고 공정한 관계 맺기에 관한 감수성임을 알도록 돕는 무거운 첫발이길 바랍니다. 어린이 시민의 문학 안에서는 상상된 미래가 현재이며 젠더와 인권감수성이 상상 아닌 실제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민은 이 낡은 시민들의 거울이자 미래적 현재일 수 있길 바래봅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제글과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학회가 우리와 다음 세대의 시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공론의 시공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몽실언니』 다시 읽기

발표: 조연수(수원 초등국어교과모임 '책과 노니는 교실')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몽실언니』 다시 읽기[1)]

조연수(운산초등학교)

목 차

1. 수업을 준비하며
2. 수업 실제
 가. 작품 선정 이유
 나. 수업 초점
 다. 수업 흐름
3. 수업 이야기
4. 수업을 마치며

1. 수업을 준비하며

이 수업을 했었던 2019년도가 끝나갈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남녀라는 이유로 해야하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넘쳐난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성평등이 사회 안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많은 것을 가진 여성들이 왜 여전히 '페미니즘'을 외치냐는 편견과 혐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더 문제는 어른들의 편견과 혐오가 이제는 초등학교 교실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를 폭파시켜야 한다', '여자들이 성추행 했다고 하면 무조건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본 혐오뉴스를 여과없이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과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왜 성평등을 이야기 하는지, 그것이 표면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앞세우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스마트 폰으로 스치듯 훑어 있는 기사나 한쪽으로 편향된 인터넷 동영상이 아니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시대의 문제를 온전히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담담히 담아낸 문학작품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로 써 보는 수업이 필요했다. 좋은 문학작품은 한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내면과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 원고는 2019년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작품읽기 수업" 을 위해 진행한 수업 사례입니다. 조은숙, 김지은 교수님과 김소영 작가님, 그리고 책과 노니는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신수경,이유진, 진현 선생님과 함께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작품읽기에 대한 고민과 책 선정,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 결과물입니다. 수업의 준비, 진행 내용, 아이들의 말과 글을 모아 작성한 사례라 별도의 원고를 쓰지 않고 일부를 삭제·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2. 수업 실제

가. 작품 선정 이유

『몽실언니』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문학의 고전의 반열에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많은 여성 인물이 나온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에 더 없이 좋은 작품이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에 6학년 아이들과 수업을 한 경험 때문이다. 『몽실언니』는 일단 읽기 시작하면 푹 빠져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책을 사지 않아서 친구와 함께 보던 학생이 19장 읽기를 마친 날, 서점에서 책을 샀을 정도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도 '다음 장에서는 몽실이가 제발 편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다음 날 수업을 기다렸다. 책 읽기를 마친 후 기대를 갖고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봤다.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죽음, 다리를 절게 만들고 어린 딸의 뺨을 때리는 두 아버지, 전쟁 속에서 젖먹이 동생을 키우고 친어머니의 두 아이들까지 평생 돌보며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간 몽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썼다. 몽실에 비하면 자신은 참을성도 없고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반성과 함께 말이다. 기특하기도 했지만 교훈주의로 빠지고만 느낌이었다. 작가 권정생이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을 고마워하고 몽실처럼 좀 더 참을성을 기르기를 바라서 이 작품을 썼을까.

분명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눌 땐 남편을 버리고 부잣집으로 들어간 밀양댁의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도 있었고 이해는 안 되지만 안타깝다고 했었다. 버려진 검둥 아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잠시 이야기 나누고 넘어간 밀양댁과 검둥 아기의 목소리는 주인공을 따라 가다보니 잊혀졌을 것이다. 그리고 '몽실'만 남았다.

하지만 『몽실언니』에는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살아온 여러 여성들이 등장한다. 『몽실언니』를 다르게 읽어보고 싶었다. 좀 더 다양한 인물들로 초점을 옮겨 온작품읽기를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인내의 미덕'에만 갇히지 않고 권정생 선생님이 '몽실 언니'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삶의 태도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나. 수업 초점

『몽실언니』는 여러 주제로 읽힐 수 있는 책이다. 이번 수업은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몽실언니』에는 많은 여성이 나온다. 작가 권정생은 아버지를 떠난 밀양댁과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을 몽실의 입을 빌어 나무란다. 그래서 왜 함부로 나쁘다 않고 용서하기를 바랐는지 시대를 살피고, 등장인물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몽실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시대를 넘어 현재에도 남아있다는 점을 짚어보며 불행의 원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얼핏 보고 편견과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몽실처럼 '자기의 일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그리고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 보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몽실과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갔다.

수업의 흐름에서 제시한 표는 인물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책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었다. 질문은 수업을 준비하며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다 적어둔 것이다. 당연히 모든 질문을 다 다룰 수 없다.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는 책읽기를 쫓아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기도 해야 한다. 내 욕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간 "또 『몽실언니』 해요?"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다. 수업 흐름(32차시)

<table>
<tr><td colspan="2">읽기 전(1차시)</td><td>- 표지 그림보고 유추하기
- 작가 소개하기
- 차례보고 유추하기</td></tr>
<tr><td rowspan="4">읽기중(2~3차시)</td><td colspan="2">▶ 함께 읽어가며 장마다 기록할 것
때 / # 등장하는 인물/# 줄거리/# 마음에 남는 문장과 이유/# 이야기거리</td></tr>
<tr><td>앞
이야기</td><td>-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 짐작할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은?
-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
- 이야기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인가?</td></tr>
<tr><td rowspan="3">몽실과 밀양댁</td><td>1장
아버지를 버리고</td><td>(18쪽)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왜 어머니 밀양댁은 남편을 기다리며 몽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김 주사와 살려고 했을까?
★ 밀양댁의 선택에 대한 내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table>
<tr><td>1
(이해못함)</td><td>2</td><td>3</td><td>4</td><td>5
(이해함)</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2장
다리 병신</td><td>(27-29쪽)
★ 영득이가 태어난 이후로 몽실이의 삶은 왜,어떻게 달라졌나?</td></tr>
<tr><td>3장</td><td>(49쪽)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td></tr>
</table>

<table>
<tr><td></td><td></td><td>어머니와도 헤어지고</td><td>- 몽실이는 왜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까?
★ 몽실이 생각에 동의하나?
<table><tr><td>1
(동의못함)</td><td>2</td><td>3</td><td>4</td><td>5
(동의함)</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td><td></td><td>14장
다시 헤어진 어머니</td><td>(172쪽) “몽실아,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참아라.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남주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
- 그동안 남주 어머니가 몽실에게 한 말과 행동을 보면 남주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176쪽) “흥, 넌 빌기도 잘하더라. 본래 화냥년의 딸은 겉하고 속이 다르대.”
“왜, 섭섭하니? 동네 사람 모두 그러더라. 살아 있는 서방 버리고 시집간 화냥년의 딸이라고.”
- 남주는 왜 이리 모진 말을 했을까?</td></tr>
<tr><td></td><td></td><td>17장
구걸하는 몽실이</td><td>(212쪽) “망할 것아, 너희 에미를 닮았느냐? 그 화냥년의 에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년이, 그년이……, 날 망쳐 놓은게다…….”
‘아버진 모르는 거여요. 엄마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못 되었기 때문이어요. 아버지가 나빠요. 차라리 싸움터에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으면 나을 뻔했어요. 우린 어떡하라는 거여요. 지금도 아버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 몽실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td></tr>
<tr><td></td><td></td><td>18장
영득이와 영순이</td><td>(227-228쪽) “내가 나빴구나. 엄마를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어요. 엄마는 언제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괴로워서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 거여요.”
“아니야. 애비가 못나서 엄마를 딴 데로 가게 만든거야.”
“아버지, 아니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따로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건 그 누구 때문이어요…….”
★ ‘나쁜 건 따로 있다’는 몽실이 생각에 동의하는가?
<table><tr><td>1
(동의못함)</td><td>2</td><td>3</td><td>4</td><td>5
(동의함)</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td><td>몽실과 북촌댁</td><td>4장
새어머니 북촌댁</td><td>(52쪽) 정씨는 사발에 담아 주고 고모와 몽실은 바가지에 담아 함께 먹었다.
- 왜 그릇이 달랐을까?
-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나?(드라마나 뉴스에서)
(59-60쪽)
- 북촌댁은 왜 가난하고 아이도 있는 정씨와 결혼했을까?</td></tr>
<tr><td></td><td></td><td>7장
새어머니의 슬픔</td><td>(86쪽) 몽실은 밀양댁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기를 가졌어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북촌댁은 왜 굳이 이런 곳에 시집을 왔을까? 그러고는 그 가난을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최 선생이 말한 인생의 길을 밀양댁은 잘 알아서 걸어간 것인가?
‘아니야,그건…….’
-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던 몽실이는 왜 ‘아니야,그건’이라고 했을까?</td></tr>
<tr><td></td><td></td><td>8장</td><td>(99쪽) “아버진 아들 낳기를 원하셨는데…” 북촌댁은 몹시 섭섭한 듯이 멀거니 천</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td><td rowspan="4">난남/남주엄마/장골할머니/서금년</td><td>동생
난남이</td><td>장을 바라봄 중얼거렸다. “딸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무사히 낳아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삼신할매한테 감사해야지.”
장골 할머니도 남주네 어머니도 한숨 돌리며 기뻐했다.
- 장골 할머니와 남주네 어머니는 왜 딸이라도 괜찮다고 했을까?</td></tr>
<tr><td>22장
모두
다 떠나
버리고</td><td>(271쪽) 몽실은 죽은 밀양댁과 북촌댁을 생각하고, 금년이와 비교도 했다. 단지 배고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김씨한테 후살이 시집을 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였다. 북촌댁도, 그리고 서금년이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정당한가?
<table><tr><td>1
(정당함)</td><td>2</td><td>3</td><td>4</td><td>5(정당하지
못함)</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23장
가파른
고갯길</td><td>(288쪽) “그래 고향도 없이 혼자 죽은거야. 정말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거지.”
“소련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미군들이 금년이 아줌마를 날마다 날마다 못살게 했고,”
- 금년이 아줌마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td></tr>
<tr><td>15장
검둥이
아기</td><td>(191쪽) “그러지 말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배고프면 화냥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여요.” 사람들은 몽실이 하는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 몽실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 사람들은 왜 잠시 입을 다물었을까?
★ 몽실이 생각에 동의하는가?
<table><tr><td>1
(동의못함)</td><td>2</td><td>3</td><td>4</td><td>5
(동의함)</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몽실과 금순</td><td>10장
착한 사람, 나쁜 사람</td><td>(121쪽)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여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여요?”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121쪽)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다는 금순 언니 말은 무슨 뜻일까?</td></tr>
<tr><td colspan="2">읽기 후
(8차시)</td><td colspan="2">▶ 활동 1.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모둠활동) - 1차시
① 시대 상황 분류하기
- 해방 직후, 6.25를 전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문화 적기
- 모둠별로 돌아가며 한 가지씩 발표하고 자기 모둠에 없는 것은 적어서 붙이기
- 긍정적인 것·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기/분류결과 보고 소감나누기
② 현재와 비교하여 재분류하기
- 없어져서 아쉬운 것</td></tr>
</table>

	- 없어지거나 좋아져서 다행인 것 - 여전히 남아있어서 풀어야 할 것 - 분류하면서 느낀 소감 나누기 ③ 현재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유목화하기 - 성평등, 아동인권, 전쟁, 이념대립, 장애인,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 **▶ 활동 2. 마음으로 온 문장 셋! 세상으로 나간 질문 셋!** **(과제, 모둠활동) - 2차시** ① 마음으로 온 문장 셋! - 각 장마다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고 그 문장이 왜 마음에 남았는지 생각해보고 이유 쓰기 - 책 읽기를 마치고 자신이 기록해 놓은 문장 가운데 특히 마음에 와 닿은 문장 세 개를 선택하여 이유와 함께 적어보기 ② 세상으로 나간 질문 셋! - 각 장마다 함께 혹은 혼자서 찾아 이야기 거리를 적고 자기 생각 간략히 적기 - 책 읽기를 마치고 자신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 거리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과 함께 적어보기 ③ 모둠별 생각 나누기 - 자신이 선택한 문장 가운데 한 가지 공유하기, 발표에 대한 자기 생각 보태기 - 이야기 거리 한 가지 말하고 생각 나누기, 이야기 거리에 대한 자기 생각 보내기 **▶ 활동 3. 문학 초대석! (모둠활동 - 전체 활동)-3차시** ****** 여성 중심으로 초대인물 선정** ① 가상 인터뷰에 초대할 등장인물 정하기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모두 찾아 쓰기 - 모둠별로 여덟 명을 선택하고 질문 두 가지 씩 만들기 - 모둠별로 선택한 인물 발표하여 반 전체 초대 인물 확정하기 - 초대 인물이 되어 인터뷰할 학생 정하기 ② 질문지 정리하기 - 8절 도화지에 선정된 인물 이름 적기 - 모둠별로 붙임종이에 질문을 한 가지씩 적어서 도화지에 붙이기 - 도화지를 모둠별로 나누어 주어 질문을 분류하고 질문할 순서를 질문지에 적어놓도록 안내하기 ③ 인물초대하여 인터뷰하기 - 인물을 초대하여 묻고 대답하기

	▶ 활동 4. 마음을 쓰다 (과제, 전체 활동)-2차시 ①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 상상하기(글에 들어갈 내용 안내) - 나는 누구인가? -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 그 일은 내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가? -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② 쓴 글을 낭독하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 공유하고 작품 속 인물 이해하기

3. 수업 이야기

가. 함께 읽으며 이해하다 –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그랬어요.”

첫 장을 읽기 전, 차례를 보며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차례를 보고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짐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첫머리를 빼더라도 스물세 개나 되는 각 장의 제목은 이야기를 짐작하기에 아주 좋았다. 이번처럼 꼼꼼하게 차례를 보고 자기 짐작을 적어가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어갈수록 배움공책에는 다음 날 읽을 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빼곡이 쌓여나갔다.

몽실이는 자신과 아홉 살 정도 차이나는 동생을 업어 키워야 되니, 이게 거의 엄마지. 몽실이가 총소리를 들으면서 밀양댁과 정씨, 북촌댁에게 속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짠했는지…. 진짜로 작은 행운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몽실이에게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차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는 내가 힘들다.(김가온)

매일 두 교시에 걸쳐 두 장씩 읽었다. 읽고 나면 때와 인물, 줄거리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정리했다. 함께 정리하기가 끝나면 책갈피 붙임 종이를 붙여놓은 부분을 다시 읽으며 마음에 닿은 문장과 이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리를 찾아 적어나갔다.

읽기만 하는데도 꼬박 24차시가 필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매일 마음에 닿은 문장을 골라 적고 이유를 적는 과정이 더욱 중요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발표를 시키고 마무리했다. 이야기의 앞일수록 책을 잘 읽어 내는 친구들의 생각을 듣게 했다. 그러면 ‘아,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느낀다. 또 ‘아, 저런 의미였어!’ 깨닫게 된다. 친구들을 통해 작품을 함께 이해하는 순간이다. 작품을 어떻게 느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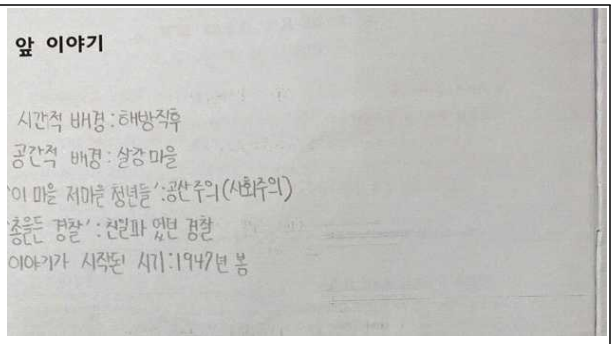
첫 날 『몽실언니』의 앞 이야기와 1장을 읽었다. 앞 이야기는 다른 장에 비해 읽을 양이 적지만 『몽실언니』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사회시간에 배웠던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사회의 혼란에 대해 다시 기억을 떠 올렸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예요. 몽실언니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당시 사회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해방을 맞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해방이 막 된 시기예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죠?"

"살강 마을이요."



<앞 이야기를 읽고 함께 정리한 이야기 배경>

"아니지,'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만주나 일본에서 왔지."

"그래요. 일본에 있던 동포들이 배를 타고 귀국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예요. 아마 몽실언니도 일본이나 만주에서 왔을 거예요."

"일본에서 왔을 거 같아요. 권정생 선생님도 일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시대 상황을 살펴볼께요. '청년들'는 누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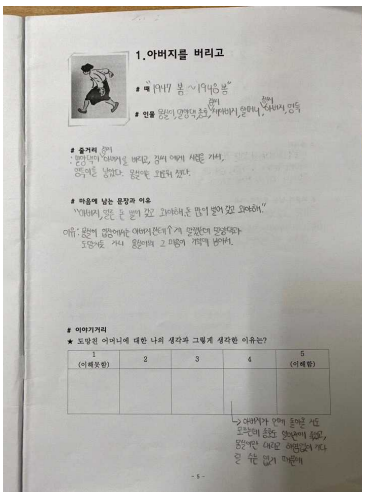
"공산주의자요."

"그럼 총을 든 경찰은 우리가 배운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지?"

"친일파였던 경찰들이죠."

"제가 발표한 노덕술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게. 그래서 어수선한 세상에서 '몽실 언니'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함께 읽고 기록하는 활동책>

1장 읽기를 마쳤다. 함께 정리할 내용을 정리하고 아이들도 자기가 기록할 정리를 마쳤다.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친 밀양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야기의 첫 시작인 1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딸만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밀양댁을 어떻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몽실 언니』를 읽어나갈지 궁금했다. 또 '다리병신'이 된 몽실이가 '어머니와도 헤어지고'에서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비교해보고 싶었다.

중간인 3을 기준으로 하면 밀양댁의 선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14명이었다. 하지만 밀양댁의 잘못이 아니라는 몽실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묻자 동의 못 한다는 의견은 4명으로 뚝 떨어졌다. 밀양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썼던 승준이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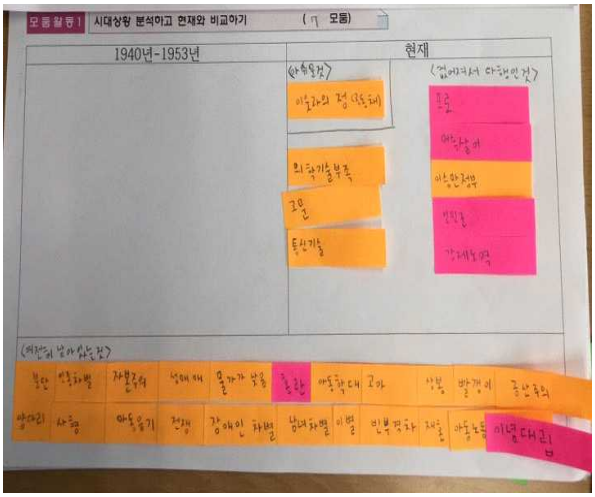
"승준아, 너는 밀양댁의 선택은 아주 잘 못 된 것이라고 적었었는데, 몽실이가 밀양댁의

잘 못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한다고 썼잖아.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말해 줄래?"

"제가 밀양댁이라면 밀양댁 같은 선택을 안 했겠지만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권정생 선생님의 말씀처럼 '몽실언니에게 그 조그만 것이라도 배운' 순간이다.

나. 시대를 읽다 - "유일하게 좋았던 '정'은 사라지고 나쁜 것은 여전히 남았어!"



<시대 상황 분류하기>

사람은 살아가는 시대 상황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몽실언니』 속 사람들은 밀양댁을 '화냥년'이라 불렀고, 서금년언니를 '양공주'라 불렀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은 것은 북촌댁이지만 새 장가를 간 북촌댁의 남편은 아마 비난받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불행이라도 그 뒤엔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몽실이처럼 『몽실언니』와 함께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살았던 상황을 살펴보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22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까지를 '그 시대'로 두고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를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작품 속에서 예를 들어가며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다 같이 찾았다.

교사: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예요. 일제강점기와 해방, 분단과 전쟁은 몽실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크게 흔들어놓죠. 몽실이 어른이 되어 기덕이 엄마가 되었을 때는 언제였죠?
동준: 22장에서 1954년에 이야기가 끝나니까 30년이 흐른 다음이면 1984년이죠.
교사: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해방 이후부터 1954년까지 시기에 우리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를 같이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댓골 할머니의 행동에서 '남녀차별'을 느꼈고 손찌검과 동냥 등에서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갈등도 몽실과 정씨 아버지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했다. 네 명이 머리를 맞대고 책을 들추며 많은 것을 찾았다. 더 많은 시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모둠별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 모둠에 없는 것은 보충해서 적어 붙이도록 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보라고 했는데 금새 끝나버렸다. 그리곤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긍정적인 것이 사람들의 '정' 밖에 없어요."

정말이지 대부분 모둠 활동지에 '정'이라고 쓰인 붙임 종이가 혼자 덩그러니 붙여져 있

었다. 바로 옆으로는 주어진 칸에 붙일 자리도 없을 만큼 빼곡이 붙어있었는데 말이다. 몽실이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장골 할머니와 남주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분류를 하면서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 나왔다.

두 번째 주문을 했다. 이번엔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없어서 아쉬운 것, 없어져서 다행인 것,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로 다시 분류해보기다. 논의가 훨씬 활발해졌다. 아이들은 의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로 들며 분류를 하고 있었다. 바로 앞에 있던 5모둠 아이들이 주고받는 말이 들린다.

"아동노동은 이제 없지?
"뭔 소리야, 초콜릿도 만들고 축구공도 만들고. 아동노동 시키는 나라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있나?"
"어쨌든 여전히 아동노동이 있는 거잖아."

'없어져서 다행인 것'에 붙였던 '아동노동'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칸으로 옮겨졌다. 결과를 보니 심란한 표정들이다. 부정적인 문화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다음 프로젝트 책인 세계시민교육시리즈가 교실 앞에 전시되어 있어서 『아동노동』과 『혐오와 인권』 등 우리가 앞으로 읽을 책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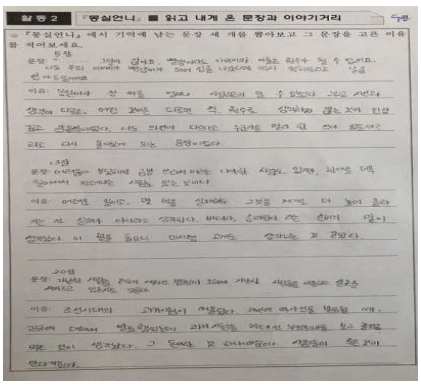
"선생님, 아직도 머슴이 있어요?"
"머슴이 어딨나?"
"왜 없어?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머슴은 아니니까 없어져서 다행인 거 아냐?"
"그런가?"
"빨갱이는 없어졌나?"
"선생님, 저번에 역사여행 갔을 때 화장실에 '빨갱이 꺼져'라고 적혀있었어요."
전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 당시의 '빨갱이'와 지금의 '빨갱이'는 같은 의미일까?
"저희 모둠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빨갱이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북한군을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 같아요."
"근데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둠은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붙여진 것이 있지만 아이들이 붙인 종이 한 장 한 장은 모두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한 아이가 혼잣말인 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일하게 좋았던 ‘정’은 사라지고 나쁜 것은 여전히 남았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분단, 이념대립, 남녀차별,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자본주의, 공산주의, 빈부격차, 성매매, 아동학대, 고아, 아동유기, 아동노동, 혼란, 양다리, 비하하는 말, 폭행

다. 옮겨쓰며 마음을 느끼다-‘나도 의견이 다르다고 누군가를 멀리한 적이 있을까? ’


<마음으로 온 문장 셋!>

책 읽기를 마치면 저마다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이 이유와 함께 적힌다. 23장까지 있는 작품이라 다른 동화책보다 활동책에 옮겨 적은 문장이 더 많았다. 그 가운데서 세 개의 문장을 골라야 한다.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활동책을 보고 옮길 문장을 정한다. 쉽게 하려면 이미 적어둔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지만 책을 읽는 중과 다 읽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달라진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이유를 적을 땐 좀 더 다듬어서 써 보라고 권한다.

처음엔 한 두명이라도 발표를 하지만 시간이 빠듯할 땐 정리만 하고 끝나기도 한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장을 모두 옮겨적고 이유를 적고 나면 모둠끼리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문장을 골랐으면 “나두, 나두”라고 외치고 친구에 이어 바로 자신이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게 한다. 문장 하나 같은 걸 골랐을 뿐인데도 왠지 지지받는 듯이 마냥 좋은 순간이다. 모둠 나누기가 끝나고 모둠에서 뽑은 문장을 붙임 종이에 써서 칠판에 붙였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거리 찾기는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기가 찾아 놓은 이야기거리 가운데 세 개를 고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글을 쓰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진다.

–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 해드리고 닭을 잡아 드릴 거예요.”
몽실이가 정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것이든 다르면 적·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다. 나도 의견이 다르다고 누군가를 멀리 한 적이 있을까? 라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문장이었다.(조수진)
– “다리 다친 건 내 팔자예요.”
아직 아홉 살 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부터 자신이 겪은 일을 어차피 겪게 될 것이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팔자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다. (정유림)
– “엄마 원망 안 해. 사람은 각자가 개인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
한 번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침착해 보이는 것이 아픔과 이별에 적응된 것 같아 불쌍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예전에 북촌댁이랑 같이 들었던 최선생이 알려준 생각을

기억해 낸 것이 대단했다. (고소연)
- “엄마 잘못이 아니냐.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를 버리고 가서 ‘화냥년’ 소리를 듣는 엄마보고 잘못이 없다고 용서하는 몽실이는 밀양댁이 김씨에게 폭력을 당하는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문장이다. 또 슬퍼하며 자신 탓을 하는 엄마 밀양댁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김경빈)
– 넉넉한 집과 가난한 집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일까! 그래서 밀양댁은 그 부잣집을 택하느라 가난한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간걸까?
11살이라는 나이에 가난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인다. (남가영)
– 그러나 가엾은 검둥이 아기는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은 채 죽어있었다.
이 문장을 읽고 몽실이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을 한 문장이여서 골랐다. (박세현)
– “그러지 말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배고프면 화냥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예요.”
몽실이가 검둥이 아기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검둥이 아기를 지켜준 게 마음에 남았다. 아마 몽실이는 검둥이 아기가 나와 같은 처지라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자기의 상처 때문에 같이 욕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내어 지켜준 몽실이가 대단하다. (김지윤)

라. 문학 초대석 – “왜 몽실이를 보냈냐고?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었으니까.”

인터뷰를 해 보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심인물만 해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어떤 인물을 하고 싶을지 나도 궁금했다. 조건은 하나만 주었다.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작품의 특징을 생각해서 여성 중심으로 초대할 인물을 정해보라고 했다. 몽실이와 난남이, 밀양댁과 북촌댁, 영득이 새엄마까지 중요 인물들이 모둠 기록지에 적혔다. 장골 할머니와 댓골 할머니도 포함되었다. 서금년 아줌마와 최금순 언니도 대상에 올랐다. 개인적으로는 남주 어머니가 무척 궁금했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인물에는 없었다.

인물 선택이 끝난 모둠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의논해서 적으라고 했다. 그리고 칠판에 인물 이름이 적힌 도화지를 붙여두었으니 각각의 도화지에 질문을 붙이라고 했다.

< 등장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 모음판 >

모은 질문은 인터뷰를 지원한 아이가 있는 모둠에 주었고, 분류해서 질문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다. 인터뷰는 아이들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진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한참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머뭇거림'의 순간이 인터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맡은 인물 속에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때 어떻게 말했을까 궁리하는 머뭇거림. "어…, 어…" 하며 할 말을 찾는 그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지점이다.

첫 날 그 순간은 밀양댁을 인터뷰할 때 찾아왔다. 밀양댁을 지원한 수진이가 앞으로 나와서 앉았다. 질문지를 보고 예찬이가 순서대로 질문을 했다.

질문1: 왜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김씨에게 갔나요?
대답1: 어, 남편은 종호가 죽을 때도 옆에 없었어요. 돈 벌러 간다고 했지만 돈을 벌어올지도 믿기 힘들었어요. 몽실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몽실이마저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러자 아림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2: 혹시 정씨가 때리기도 했나요? 몽실이처럼 어린아이를 때린 걸 보면 밀양댁도 때렸을 것 같은데….
대답2: 네. 하지만 몽실이마저 때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예찬이가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3: 김씨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된 몽실이를 봤을 때 심정은?
대답3: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괜히 데리고 와서 다리를 절게 만든 것 같아서요.
질문4: 몽실이가 영득이 때문에 차별 당하며 일을 하고 있을 때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대답4: 괜히 말렸다간 몽실이가 더 일을 할 것 같았고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질문5: 몽실이와 헤어질 때 느낌은 어땠어요?
대답5: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에게 가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차별을 당하거지는 않을거니까요. 잘 살까 걱정은 되었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질문6: 고모가 찾아왔을 때 왜 몽실이를 끝까지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은 막힘없이 잘 말하던 수진이가 한참을 말을 골랐다. 자꾸 말을 하려다 멈추는데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

입을 통해서 밀양댁의 마음 속 이야기가 들려왔다. 대답6: 왜 몽실이를 그냥 보냈냐고요? 내 딸 몽실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이라도 하는 것일까.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맞아. 밀양댁이 몽실이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미안했겠니. 밀양댁의 아픔을 잘 표현해 주어서 고맙다”

는 말을 하다가 또 울고 말았다.

“에고, 우리 선생님, 또 감성 터지셨네.”

우리 반 웃음보따리 녀석이 무거울 뻔 한 분위기를 바꿔줘서 고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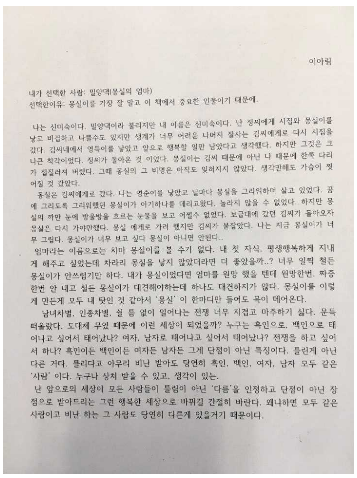
“선생님이 엄마라서 더 그 감정이 전해져서 그래. 맞아. 밀양댁은 아마 그랬을거야.”

예찬이가 마지막 질문이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질문7: 정씨 집을 떠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역시 또 긴 침묵이 이어졌다.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정씨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뜻밖에도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답8: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몽실이와 둘이 살았을거예요.

가온이가 정씨는 기다리지 않을거냐고 질문했지만 수진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왜 대답하기가 힘드냐고 물었다. 정씨가 돌아와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기다린다고 하기는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몽실이를 다치게 하는 결정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다시 조용해졌다. 쉽지 않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질문과 수진이의 진지한 대답 덕분에 밀양댁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우리 맘엔 무엇이 남았을까. ‘화냥년’이 아닌 몽실의 어머니이고자 했던, 열심히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밀양댁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함께 했기를 바란다.

마. 마음을 쓰다– ‘나는 신미숙이다.‘밀양댁’이라 불리지만 내 이름은 ‘신미숙’이다.’


이아림

내가 선택한 사람: 밀양댁(몽실의 엄마)
선택한이유: 몽실이를 가장 잘 알고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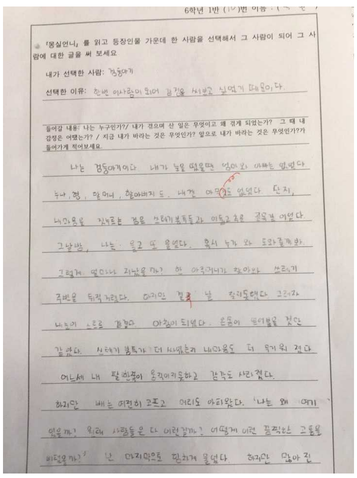
나는 신미숙이다. 밀양댁이라 불리지만 내 이름은 신미숙이다. 난 정씨에게 시집와 몽실이를 낳고 비겁하고 나쁠수도 있지만 생계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잘사는 김씨에게로 다시 시집을 갔다. 김씨네에서 영득이를 낳았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정씨가 돌아온 것 이었다. 몽실이는 김씨 때문에 아닌 나 때문에 한쪽 다리가 접질러져 버렸다. 그때 몽실의 그 비명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갔았다.

몽실은 김씨에게로 갔다. 나는 영순이를 낳았고 날마다 몽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 꿈에 그리도록 그리워했던 몽실이가 아기하나를 데리고왔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몽실의 까만 눈에 방울방울 흐르는 눈물을 보고 어쩔수 없었다. 보급대에 갔던 김씨가 돌아오자 몽실은 다시 가야만했다. 몽실 에게로 가려 했지만 김씨가 붙잡았다. 나는 지금 몽실이가 너무 그립다. 몽실이가 너무 보고 싶다 몽실이 아니면 안된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차마 몽실이를 볼 수가 없다. 내 첫 자식, 평생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몽실을 낳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너무 일찍 철든 몽실이가 안쓰럽기만 하다. 내가 몽실이었다면 엄마를 원망 했을 텐데 원망한번, 짜증한번 안 내고 철든 몽실이가 대견해야하는데 하나도 대견하지가 않다. 몽실이를 이렇게 만든게 모두 내 탓인 것 같아서 '몽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목이 메어온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쉴 틈 없이 일어나는 전쟁 너무 지겹고 마주하기 싫다. 문득 떠올랐다. 도대체 무었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누구는 흑인으로,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여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게 단점이 아닌 특징이다. 틀린게 아닌 다른 거다. 틀리다고 아무리 비난 받아도 당연히 흑인, 백인, 여자, 남자 모두 같은 '사람' 이다. 누구나 상처 받을 수 있고, 생각이 있는.

난 앞으로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받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고 비난 하는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게 있을거기 때문이다.


6학년 1반 (10)번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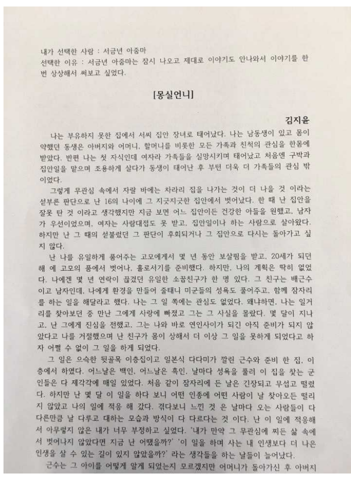
『몽실언니』를 읽고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써 보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 검둥아기

선택한 이유: 한번 이사람이 되어 감정을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들어갈 내용: 나는 누구인가?/ 내가 겪으며 산 일은 무엇이고 왜 겪게 되었는가? 그 때 내 감정은 어땠는가? /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적어보세요.

나는 검둥아기이다 내가 눈을 떴을땐 엄마와 아빠는 없었다
누나, 형,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겐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내마음을 짓누르는 검은 쓰레기봉투들과 어둡고 추운 골목길 이었다.
그날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혹시 누가 와 도와줄까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 쓰레기
주변을 뒤적거렸다. 하지만 결국 날 찾지못했다 그러자
나는 스르르 잠겼다. 아침이 되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쓰레기 봉투가 더 쌓였는지 내마음도 더 무거워졌다
어느새 내 팔 한쪽이 움직이지못하고 감각도 사라졌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프고 머리도 아파왔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원래 사람들은 다 이런걸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버텨올까?' 난 마지막으로 힘차게 울었다. 하지만 많아진


내가 선택한 사람 : 서금년 아줌마
선택한 이유 : 서금년 아줌마는 잠시 나오고 제대로 이야기도 안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써보고 싶었다.

[몽실언니]

김지윤

나는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서씨 집안 장녀로 태어났다. 나는 남동생이 있고 몸이 약했던 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친척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반편 나는 첫 자식인데 여자라 가족들을 실망시키며 태어났고 처음엔 구박과 집안일을 맡으며 조용하게 살다가 동생이 태어난 후 부턴 더욱 더 가족들의 관심 밖이었다.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자랄 바에는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난 16의 나이에 그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났다. 한 때 난 집안을 잘못 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어느 집안이든 건강한 아들을 원했고, 남자가 우선이었으며, 여자는 사람대접도 못 받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난 그 때의 섣불렀던 그 판단이 후회되거나 그 집안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나를 유일하게 품어주는 고모에게서 몇 년 동안 보살핌을 받고, 20세가 되던 해 에 고모의 품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딱히 없었다. 나에겐 몇 년 연락이 끊겼던 유일한 소꿉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배근수이고 남자인데, 나에게 환경을 만들어 줄테니 미군들의 성욕도 풀어주고, 함께 잠자리를 하는 일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 일 쪽에는 관심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일거리를 찾아보던 중 만난 그에게 사랑에 빠졌고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몇 달이 지나고, 난 그에게 진심을 전했고, 그는 나와 바로 연인사이가 되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를 거절했으며 난 친구가 몸이 상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일은 으슥한 뒷골목 이층집이고 일본식 다다미가 깔린 근수와 준비 한 집, 이층에서 하였다. 어느날은 백인, 어느날은 흑인, 날마다 성욕을 풀러 이 집을 찾는 군인들은 다 제각각에 매일 있었다. 처음 같이 잠자리에 든 날은 긴장되고 무섭고 떨렸다. 하지만 난 몇 달 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인종에 어떤 사람이 날 찾아오든 떨리지 않았고 나의 일에 적응 해 갔다. 겪다보니 느낀 것 은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다 다른만큼 날 다루고 대하는 모습과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 이다. 난 이 일에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은 내가 너무 부정하고 싶었다. '내가 만약 그 무관심에 찌든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난 어땠을까?' '이 일을 하며 사는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날들이 늘어났다.

근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아이들이 쓴 '마음을 쓰다'>

<마음을 쓰다>는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글을 써 보기 위해 붙인 활동명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몇 편의 그림책과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이 되어 글쓰기를 길게 혹은 짧게 써 봤다. 자신이 선택한 인물의 마음이 되어 글을 쓰려면 인터뷰보다 더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작가가 써 내려간 '빈 틈'을 찾고 그 '빈 틈'을 상상과 추측과 공감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엔 자신이 쓰고 싶은 인물을 선택해서 쓰라고 했다. 이번에도 여성 중심으로 써 보게 하고 싶었지만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마음이 쓰이는 인물을 선택할 기회를 줘보고 싶었다. 그리고 대상을 열어둔 글쓰기에서 어떤 인물들을 선택할지도 궁금했다.

"검둥이 아기도 돼요?"
"그럼."
"검둥이 아기는 어떻게 말을 해요?"
늘 말빠른 동준이가 말을 받는다.
"응애, 응애 쓰나?"
웃음이 터졌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다시 물었다.
"검둥이 아기의 마음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예를 들면 '난 버려졌다'로 시작할 수도 있고 버려진 아이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든 앞에 글과 그림을 배우신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일기'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권정자 외 19명, 남해의 봄날, 2019) 가운데 두 편의 글을 읽어주었다.

글 가운데 동생을 업고 피난가는 중에 목숨을 잃은 동생을 아무데나 묻을 수 없어 죽은 동생을 업고 다녀야 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그 순간 아이들이 몸을 움츠리며 "어휴~" 또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몽실이네, 몽실이."라는 말도 나온다. 동화책 속 '몽실'은 사실 우리 할머니들의 살아온 모습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었다.

등장인물을 정했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며 책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글에 잘 담아달라고 했다. 이름 없이 '밀양댁'으로 '북촌댁'으로 살다간 그녀들에게 이름도 붙여주면 좋겠다, 연필로 쓰면 앞 뒷장 꽉꽉 채워 보고, 한글 문서면 글자크기는 11로 해서 한 장 분량이라고 칠판에 적으며 설명 해줬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를 읽으며 아이들이 쓸 글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도 알려줬다. 표정을 보아하니 몇몇 아이들 입에서 또 한숨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힘든 글쓰기가 되겠지만 정성을 다해 썼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교실 문 앞에서 손을 잡고 "할 수 있어.","부탁해." 다독이며 아이들을 보냈다.

- 난 누구인가?
- 난 어떤 읽을 겪었는가?
- 그 일은 내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가?
-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등장인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들어갈 내용>

3일에 걸쳐 글을 모았다. 한글 문서로 써 온 아이도 있고 나누어준 종이에 앞 뒤 빽빽

하게 적어온 아이도 있었다. 글쓰기 싫어하는 영웅이도 큼직큼직 삐뚤빼뚤 글씨지만 정말 앞 뒷장을 꽉 채워왔다. 아쉬운 글이지만 지금껏 쓴 것에 비하면 정말 노력하며 썼다는 것이 느껴져서 고마웠다. 책을 잘 읽어내는 친구들은 역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마음을 담아왔다.

몽실이를 쓴 아이들은 여덟 명이었다. 생각보다 적었다. 몽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인물을 선택한 이유에 적은 것을 보면 아이들은 작품에서마저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화냥년'이 되어버린 밀양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몽실의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준 북촌댁도 여러 아이가 썼다.

4학년 때 왕따를 당해 큰 상처를 입었던 아이는 몽실에게 '화냥년의 딸'이라는 말을 해버린 남주 이야기를 써 왔다. 놀라운 것은 우리 반 장난꾸러기 세 명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검둥이 아기'를 선택해서 글을 썼는데 따뜻한 아이들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양공주'라는 혐오와 편견 속에 결국 스스로 자유로워지길 택한 서금년 아줌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에 속하고 평소에도 글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아이 두 명이 썼다.

보호자가 모두 사라진 몽실을 끝까지 챙겨준 '장골할머니', 친엄마 북촌댁을 그대로 닮은 '난남이', 전쟁 통에 목숨을 잃은 고모, 거지 빵을 구워팔던 최인규 아저씨, 몽실의 빵을 훔쳐 달아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몽실이'까지!

내가 선택한 사람: 밀양댁(몽실의 엄마)
선택한이유: 몽실이를 가장 잘 알고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아림

나는 신미숙이다. 밀양댁이라 불리지만 내 이름은 신미숙이다. 난 정씨에게 시집와 몽실이를 낳고 비겁하고 나쁠 수도 있지만 생계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잘사는 김씨에게로 다시 시집을 갔다. 김씨네서 영득이를 낳았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정씨가 돌아온 것 이었다. 몽실이는 김씨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한쪽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때 몽실의 그 비명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몽실은 정씨에게로 갔다. 나는 영순이를 낳았고 날마다 몽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 꿈에 그리도록 그리워했던 몽실이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몽실의 까만 눈에 방울방울 흐르는 눈물을 보고 어쩔 수 없었다. 보급대에 갔던 김씨가 돌아오자 몽실은 다시 가야만했다. 몽실에게로 가려 했지만 김씨가 붙잡았다. 나는 지금 몽실이가 너무 그립다. 몽실이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차마 몽실이를 볼 수가 없다. 내 첫 자식, 평생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몽실을 낳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너무 일찍 철든 몽실이가 안쓰럽기만 하다. 내가 몽실이었다면 엄마를 원망 했을 텐데 원망한 번 짜증 한 번 안 내고 철든 몽실이가 대견해야하는데 하나도 대견하지가 않다. 몽실이를 이렇게 만든 게 모두 내 탓인 것 같아서 '몽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목이 메어온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쉴 틈 없이 일어나는 전쟁 너무 지겹고 마주하기 싫다. 문득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누구는 흑인으로,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여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게 단점이 아닌 특징이다. 틀린게 아닌 다른 거다. 틀리다고 아무리 비난 받아도 당연히 흑인, 백인, 여자, 남자 모두 같은 '사람' 이다. 누구나 상처 받을 수 있고, 생각이 있는.

난 앞으로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받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고 비난 하는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반 아이들이 쓴 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준 아이들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이 마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힘을 실어주지는 못 하더라도 겉모습만 보고, 들리는 말만 믿고, 섣불리 편견과 혐오의 말을 던지는 사람으로 자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몽실이처럼 주변의 사람을 찬찬히 살피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을 살피며 걸어가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4. 수업을 마치며 - 아이들을 통해 권정생의 마음을 느끼다

6학년 아이들과 『몽실언니』를 읽으며 전쟁의 상처와 지독한 차별 속에서 여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책에서 마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 재미있는 활동 중심 수업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다시 쓰기로 이어지는 인내심이 필요한 수업이었다.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이념대립과 전쟁이라는 암담한 시대 속에서 버려지고 학대받고 멸시받으면서도 묵묵히 삶을 감당해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 그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권정생 선생님이 '눈여겨'보길 바랐던 이웃을 아이들과 함께 '눈여겨' 보려는 방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수업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장 약한 이들이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소하지만 간절한 시도이기도 하다.

시간이 허락했다면 연극까지 해 보고 싶었다. 책을 한 번 읽어만 봐도 마음이 울렁이는데 등장인물이 되어 그들의 서사를 써 간 아이들의 마음으로 연극까지 한다면 그 울림은 얼마나 컸을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나 역시 혼자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생생한 감동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시대 상황을 분류하며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현실에 놀라는 모습, 그나마 이웃 간의 '정'으로 살아갔던 시대에 비하면 '정'마저 실종된 지금을 걱정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과는 또 달랐다. 아이들이 고른 문장과 이유, 이야기거리에 대한 생각을 쓴 글을 보며 우리 반 아이들의 내면을 알게 된 것도 큰 선물이다.

우리 반은 훨씬 더 행복해졌었다. 화를 내기 전에 친구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찬찬히 살피고 이해하려고 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 티내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함부로 나쁘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이 옳지 못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갔다. 많은 아이들이 확 변한 것이 아니라 몇몇 아이가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 용기있는 조용한 실천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자꾸 자라나고 작은 실천들이 자꾸 늘어난다면 조금 더 권정생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별첨자료 1] 마음으로 쓰다 - 몽실/밀양댁/북촌댁/검둥아기/서금년

내가 선택한 사람: 정몽실
선택한이유: 『몽실언니』의 주인공이 몽실이고 몽실이의 사연과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유림

나는 정몽실이다. 내 나이는 이제 곧 45살이 되어 간다. 우리 엄마는 친아버지를 버리고 새아버지에게 갔다. 그 때 나는 비록 7살이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안 좋아진 것도 새아버지 김씨 아버지네에 가서부터였다.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이 원망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씨 아버지가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 찾아왔다. 며칠 뒤 고모가 오고 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나는 다시 북촌댁이라는 새엄마가 생겼다. 북촌댁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다보니 정이 들었다. 그러나 북촌댁은 난남이를 낳고 점점 앓다가 돌아가셨다. 정말 슬픔과 걱정이 컸다. 그때 '사람은 안 죽으면 안되는 것인가?','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전쟁에 끌려가셨고 나는 난남이를 키우며 어떻게 단둘이 살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내 동생이니 내가 희생해서라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웃들이 도와주신 덕에 난남이오 함께 살아 나갈 수 있었다. 너무나 고마웠다. 아버지가 올 때까지 장골 할머니 제안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최씨 아저씨네 들어갔다. 내 어린 시절에서 가장 걱정이 없고 행복했던 때는 아마 이때 일 것이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살아오셨다. 아버지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가 맞나.'싶기도 하고 너무 속상했다. 최씨 아저씨네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다리가 점점 안 좋아지셨고 친엄마는 돌아가셨다. 난 두 명의 엄마를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영득이와 영순이가 불쌍했다. 엄마를 잃어버린 느낌, 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도 잃었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모두 모두 떠나가 버렸다. 난남이마저 부잣집으로 입양가고 영득이와 영순이는 서울로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모두 내 동생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왔다. 현재 영득이, 영순이, 난남이오 나는 잘 살고 있다. 난남이는 엄마인 북촌댁을 닮아 결핵을 앓아 요양원에 있다. 영순이는 가족들과 다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영득이는 비뚤어질 뻔 했다. 그래도 내가 추천해 준 우체부일을 하면서 다행히 괜찮았다.

나는 현재 내 남편과 기덕이, 기복이를 낳아 키우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동생들과 우리 자녀, 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다. 기복이, 기덕이, 난남이, 영순이, 영득이, 내 남편. 내가 그들을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기댈 수 있었다. 이 사람들과 앞으로 남은 삶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정몽실도 더욱 열심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 밀양댁(몽실의 엄마)
선택한이유: 몽실이를 가장 잘 알고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아림

나는 신미숙이다. 밀양댁이라 불리지만 내 이름은 신미숙이다. 난 정씨에게 시집와 몽실이를 낳고 비겁하고 나쁠 수도 있지만 생계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잘사는 김씨에게로 다시 시집을 갔다. 김씨네서 영득이를 낳았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정씨가 돌아온 것 이었다. 몽실이는 김씨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한쪽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때 몽실의 그 비명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몽실은 정씨에게로 갔다. 나는 영순이를 낳았고 날마다 몽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 꿈에 그리도록 그리워했던 몽실이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몽실의 까만 눈에 방울방울 흐르는 눈물을 보고 어쩔 수 없었다. 보급대에 갔던 김씨가 돌아오자 몽실은 다시 가야만했다. 몽실에게로 가려 했지만 김씨가 붙잡았다. 나는 지금 몽실이가 너무 그립다. 몽실이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차마 몽실이를 볼 수가 없다. 내 첫 자식, 평생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몽실을 낳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너무 일찍 철든 몽실이가 안쓰럽기만 하다. 내가 몽실이었다면 엄마를 원망 했을 텐데 원망한 번 짜증 한 번 안 내고 철든 몽실이가 대견해야하는데 하나도 대견하지가 않다. 몽실이를 이렇게 만든 게 모두 내 탓인 것 같아서 '몽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목이 메어온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쉴 틈 없이 일어나는 전쟁 너무 지겹고 마주하기 싫다. 문득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누구는 흑인으로,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여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게 단점이 아닌 특징이다. 틀린게 아닌 다른 거다. 틀리다고 아무리 비난 받아도 당연히 흑인, 백인, 여자, 남자 모두 같은 '사람' 이다. 누구나 상처 받을 수 있고, 생각이 있는.

난 앞으로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받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사람이고 비난 하는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 사람 : 북촌댁 어머니
선택한 이유 :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못하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임수현

저는 죽은 북촌댁입니다. 저는 죽기 전 정씨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시집은 아닙니다. 사실 저에겐 전남편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가 가슴앓이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겨우 여기 정씨네로 모두를 속이고 시집을 와서 몽실이라는 아이를 만났고 마침내 너무도 이쁜 딸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난 다시 병이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슴앓이로 죽으면 몽실이는 누가 돌볼지…. 아기는 어떡할지…. 모든 순간이 다 걱정됩니다. 나는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애 아버지가 기대하신 건 멋진 사내아이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내 몸 주의의 모두가 둘러싸여서 울고 있습니다. 몽실이가 나를 세게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기이름도 못 지어주고선 먼저 갈 순 없는데…. 몽실이한테 더욱 많은걸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었는데….

몽실아, 지금이라도 말할게. 엄만 남자 운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너를 진심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렴. 밥은 최대한 골고루 먹고, 태어난 아기 이름은 너가 직접 엄마대신 지어주렴. 그리고 동생을 항상 사랑하렴. 울고 싶어도 꿋꿋이 잘 참으며 잘 살아가렴. 친구와 항상 사이좋게 지내고 화내고 싶어도 참아. 앞으로 너의 인생에 울고 싶은 일, 포기하고 싶은 일, 화내고 싶은 일…. 이 모든 일들을 잘 참아낸 순간 엄마가 너의 꿈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너를 꼭 껴안아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나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갔다고 전해드려. 정말 정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몽실아, 이 엄마가 너희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너를 속여서 미안해.

몽실아, 정말 행복하게 살으렴. 후회없이….

내가 선택한 사람 : 검둥이 아기
선택한 이유 : 이 아이가 되어 감정을 써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세현

나는 검둥아기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엄마와 아빠는 없었다. 누나,형,할머니,할아버지도 내겐 아무도 없었다. 단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검은 쓰레기 봉투와 어둡고 추운 골목길 뿐이었다. 그날 밤, 난 울고 또 울었다. 혹시 누가 와서 도와줄까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 쓰레기 주변을 뒤적거렸다. 하지만 결국 날 발견하진 못했다. 내 눈이 스르르 감겼다.

아침이 되었다. 온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쓰레기 봉투가 더 쌓였는지 내 마음도 더 무거워졌다. 어느 새 팔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도 사라졌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프고 머리도 아파왔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원래 사람들은 다 이런걸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걸까?' 난 마지막으로 힘차게 울었다. 하지만 많아진 쓰레기들과 작아진 목소리는 이제 밖에서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몸이 차츰차츰 가벼워지더니 빛이 조금씩 새어 들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나를 꺼내어 품 속에 안아주었다. 밖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엔 수군거리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갑자기 여기저기 발길질이 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막아주며 그 자리를 피하게 됐다. 난 또 다시 울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내 몸이 두둥실 떠 올랐다. 그러고는 점점 올라갔다.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준 걸까? 난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떤 아이가 한 사람 품에 안겨 싸늘하게 죽어있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는 세상이다. 목숨은 모두 소중하다. 검둥이 아이도, 여자 아이도, 장애가 있는 아이도.

내가 선택한 사람 : 서금년 아줌마
선택한 이유 : 서금년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서 아줌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고소연

내 생활은 항상 수레바퀴 같았다. 반복하여 도는 생활도 슬펐지만 나에게는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생활이었다. 비록 모두가 나에게 욕하며 창녀라고도 하였고 벌레만도 못한 취급도 하였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고, 조금의 시간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이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어려서부터 난 총명하였는데, 돈은 없어 가난하였다. 그래도 행복했다. 학교에 다닌느 아이들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대화도 더 많이 했다. 나름 우리 가족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다. 엄마는 돈이 없던 아빠를 떠났고, 아빠는 나 때문이라며 폭력을 일삼았다. 화목했던 집안을 망친 엄마가 미웠고, 아빠가 불쌍했다. 그래도 난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난 커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 똑똑한 선생이 될 것 같았는데, 멀리서 온 흑색 남자들의 성노예가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잉꼬 부부처럼 화목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몽실이를 만나고 생각이 달라졌다. 몽실이는 매우 불쌍했다. 다리하나 다친 절름발이인데도,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잃어 버렸는데도, 나처럼 절망하지 않고 사는 몽실이가 부러웠다. 또 대단했고, 불쌍했다.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줄 알았다. 사람들이 날 욕해도 내가 불행해서 라고 생각하고 체념했다. 그런데,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 난 몽실이에게 친절을 배 푸고 싶었다.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어버린 느낌을 나도 아니까. 물론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강자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됐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나만 불행 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나면서 나왕 같은 사람이 많았고, 난 우물안 개구리였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만 봤다. 몽실이처럼 나와 같은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더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도 많았다. 아이를 잃은 사람부터, 가족, 친척, 부모님, 동생까지 전부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병에 들어 몸이 썩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생각을 바꿔준 몽실이가 너무 고마웠다.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물에서 탈출하여 위험하지만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것도 고마웠다.

난 그래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그래도 불행하게 생각은 하지만 나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하기로 했다. 불행도 나누면 줄어든다. 나랑 같은 사람이 있으니 내 불행은 줄어든 것 같다. 고맙다, 그저 고맙다. 내 생각을 달리 하게 해준 몽실이가 고맙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몽실이는 나중에 나처럼 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 도망간 부모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나처럼 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자유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 수는 있다. 고맙다.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었다.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난 여전히 사람들에게 '양공주'일 뿐이었다.

선택한 인물 : 남주
선택한 이유 : 항상 몽실이 옆에 있던 남주는 어떤 생각이고, '화냥년'의 딸이라는 말을 했지만 끝까지 남아있어 준 남주가 궁금했다. 이입해 보고 싶었다.

조수진

나는 박남주이다. 나는 노루실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여자애가 이쪽으로 왔다. 이름은 정몽실이랬다. 정몽실. 이름이 엄청 예뻤다. 푹신푹신한 구름 같았다. 화냥년의 딸이랬나? 우리 엄마가 몽실이란 아이를 동정하고 챙겨준 덕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마다 몽실이와 함께 가갸거겨를 쓰며 글자 공부를 하게 되었다. 친구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화냥년의 딸이란 단어가 자꾸 머리를 맴돌았다. 그래도 친구니까 잘 챙겨줘야겠다.

곧 설 날이 온다. 인조견 분홍 치마에다 노란색 저고리를 입었다. 너무 예뻐서 경애와 몽실이에게 자랑을 했다. 다음에 몽실이를 봤더니 나와 같은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몽실이도 너무 예뻤다. 설 날, 애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널을 뛰었다. 몽실이는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해 보라고 해서 뛰게 되었다. 몽실이가 걱정되어서 손을 잡아줄까 하고 물어봤는데 안 잡아줘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걱정되지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몽실이가 경애하고 널을 뛰다가 몸이 기우뚱해지더니 넘어져 버렸다. 결국 몽실이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애와 나, 을순이는 놀라서 달려가 몽실이를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었다. 예쁜 몽실이의 옷이 더러워졌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어떻게 친구가 넘어졌는데 웃을 수가 있지? 아이들이 너무 밉기도 하고 몽실이가 걱정되기도 했다.

어머니와 내가 몽실이에게 콩가루를 묻힌 쑥떡을 주었다. 몽실이는 먹지 않고 치마폭에 감춰 어디로 뛰어 가버렸다. 누구에게 주려고 저렇게 가는거지? 몽실이의 새 어머니인 북촌댁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가셨다. 아기의 이름은 난남이라고 했다. 난리통에 태어났다고 했나....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 부대가 계속 내려왔다.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 국기를 달라고 마을에 알려주고 다녔다. 우리는 인민군 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까치바위골 앵두나무 할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얼른 몽실이에게 가서 구경하자고 했다. 몽실이가 가까이 가지말자고 해서 냇둑 가장자리에서 보았다. 너무 무서웠다. 몽실이는 저기서 오는 야윈 모습의 할아버지를 모르는 듯했다. 그래서 저번에 공비 아들에게 떡과 닭을 챙겨주었다고 지서에 잡혀간 할아버지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인민군에게 계속 빌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기로 했다. 가는 중에 따다당 소리가 들렸다. 무서웠다. 한 편으론 이해가 안 됐다. 같은 민족인데 저래도 되는 걸까?

원래는 초등(국민)학교에 다녔지만 인민군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남으로 피난 간 사람은 모두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군으로 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몽실이에게 말해주니 몽실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몽실이의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지껄인 걸 알고 조금 흠칫했다.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한다고 말했다.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다.

어느 날, 인민군이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인민군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조심하지 않고 내다보셨다. 인민군들이 소에 눈독을 들이더니 갑자기 소고삐를 잡고 가버렸다. 소를 빼앗겼다. 얼른 달려갔다. 몽실이에게 인민군이 소를 가져간 걸 말하니 몽

실이는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몽실이의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니 아버지가 잡혀가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했다. 몽실이의 말이 갑자기 이해가 갔다. 전쟁은 욕심 많은 어른들의 싸움인데 왜 상관없는 착한 어른들과 우리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왜 어째서?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다. 다른 집 아버지들도 지서에 끌려갔다. 아이들이 " 땅 콩 " 하고 머리와 혀를 내미는 시늉을 했다. 지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총에 맞아 죽어서 그렇다고 했다. 불안했다.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불안했다. 슬펐다.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내가 이제 열한 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기찬이는? 어떡하지.

몽실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난남이도 함께. 몽실이와 함께 디딜방아도 찧고 밥도 지었다. 몽실이와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간 몽실이가 간 쪽에서 기찬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보니 몽실이가 기찬이를 나뒹굴어지게 밀쳤다.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몽실이에게 나쁜 말을 했다. 화냥년의 딸이라고. 너무 화가 났다. 친구가 내 동생을 밀쳐서 앞에선 나한테 친한 척을 하고 다 얻어먹고 뒤에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일 거다. 아침에 몽실이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걸 느낀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다. 내가 몽실이에게 한 말까지 모두 말했다.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계집애가 나오는 대로 주둥아리 놀린다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몽실이가 식모살이를 간다고 했다. 너무 슬펐다. 반성했는데 사과할 틈도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하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그래서 몽실이에게 말했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더라도 다 잊어버려 주라고…. 후회되었다.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적어도 몽실이를 이런 말로 떠나보내진 않을 테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난 전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럼 모두가 행복할 테니까. 욕심 많은 어른들 싸움에 우리가 껴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지만 일찍 죽는 것보단 누릴 것 다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이별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다가, 다시 헤어진다. 전쟁이 사라져서 더 이상 슬픈 이별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몽실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별첨자료 2] 아이들에게 글쓰기 하기 전에 읽어준 글

동생 생각[2)]

김영분

저는 충북 괴산군에서
아버지는 쌀장사를 하시고 할머니는 떡장사를 해서
형편이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쌀장사를 해서 번 돈을 모두
사기를 당하고 다시 물감장사를 해서 번 돈은
나쁜 사람들에게 다 털렸습니다.

우리 집은 빈털터리가 되어 문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가 열한 살 때 피난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피난길에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은 동생을 어디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업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죽은 동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 권정자 외 19명. 남해의 봄날. 2019. p. 8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디지털 사회의 아동 권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표: 박유신(한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부회장)

디지털 사회의 아동 권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박유신(서울석관초등학교,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부회장)

목 차

1. 디지털 사회의 아이들
2.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경험
3. 디지털 사회의 경제와 어린이 청소년
4. 디지털 사회에서의 아동 권리

1. 디지털 사회의 아이들

미래는 항상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상상한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 2020년의 팬더믹 상황은 우리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캐서린 헤일즈의 말대로 이미 '포스트휴먼' 이되, 국가사회적 차원, 그리고 산업적 차원에서 선전했던 미래가 아닌, 지극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미래 사회' 로 이행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그간 'IT 선진국' 으로 가져왔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로 충격을 전해주었다. 디지털 미디어와 학습의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만한 환경도, 교사와 학생의 역량도, 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수준이며, 지역, 가정환경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 또한 상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N번방'과 '다크웹' 같은 범죄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왔으며,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범죄이기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지 않았을까?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교육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와 예방 교육 및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어 왔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에서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린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의 이행 시기인 지금 보호주의가 이미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특권층인 실리콘밸리의 교육 방법은 과연 일반 시민에게 적용될 만한 보편적인 방법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우리 자

신이 디지털 시민이며 환경 그 자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관계는 단지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 혹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본다 정도로 요약하기 어려운 복잡한 층위를 가지며, 이 세계는 스마트 미디어 이후 PC 기반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는 막연하게 디지털 미디어 세계를 상상하거나 단정짓는 대신,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디지털 사회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시민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경험

학교 현장에서는 2017~8년경부터 부쩍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 정확히는 유튜브 생활에 대항여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나의 장래희망' 발표에서는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고 아이들은 조악하게 유명 유튜버의 채널을 모방하여 자신의 채널을 만들었다. 새학년 아이들을 만나자 마자 "액괴 가지고 놀아도 돼요?" "보이루 써도 돼요?" 등 유튜브 문화와 관련한 교실 금기에 대해 확인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국어시간에 미니 사전 만들기 활동을 했더니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사전"을 만드는 아이가 나왔다.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언어문화와 놀이 문화의 중심에 선 것은 개그맨이나 연예인이 아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아이들은 이러한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놀이문화를 만들고, 유튜버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해 왔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화, 그리고 정체성 형성 과정이 오프라인 공간, 특히 공식적인 교육 및 사회화의 장보다 온라인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유튜브 문화와 교육적 대응>(김아미,2018)는 초등학생 유튜브 생활에 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2018년 현재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경험담을 직접 귀기울여 듣고, 기록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구하였으며 도대체 어린이들은 유튜브에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유튜브에 그토록 몰입하는가?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교육적 결론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경험담들에서 어린이는 유튜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린이들의 답변은 어른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어린이의 유튜브 속 삶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유튜브를 정보나 오락을 위한 목적을 가진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식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유튜브는 콘텐츠가 아닌 삶의 공간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와 인간관계와 소통이 존재한다. 어린이들에게 유튜브는 부모와 친구들이 사용하는 친숙한 플랫폼이며, 비공식적인 학습의 장이고, 유튜브의 컨텐츠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초등학생 또래 문화의 자원이 된다. 즉, 오락과 학습의 콘텐츠가 모두 유튜브 안에 존재한다. 동시에 유튜브는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어린이들은 유튜버 영상의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도 댓글로 소통하며, 스스로 유튜브 계정을 올려서 다른 친구들 및 사용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한다. 즉 어린이들의 삶에서 이미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들은 미디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쌓아가고, 소통의 규칙을 만들며 심지어 미디어 경제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왜 스스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며, 그 계정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 왜 어린이들은 유튜브에 애착을 느끼는가에 대한 어린이들의 답변, 어린이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느끼는 시행착오와 위기 등에 대한 경험담은 우리들이 어린이들의 유튜브 문화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연구자의 말을 인용하면 '기성세대는 어린이가 경험하는 미디어를 후속적으로 추적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유튜브 문화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미디어 공간 안의 시민이다. 따라서 어떻게 유튜브의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미디어 노출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 기기를 아이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어린이의 삶과 목소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관점, 어른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연구의 문제 제기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어른들이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교육의 방향과 청사진을 결정짓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유튜브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디어 생활을 분석한 연구인 <중학생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 연구>(김아미, 이혜정, 김아람, 박유신, 이지선, 2018) 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청소년들의 미디어의 삶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중학생의 미디어 문화 전반–일상생활, 학습, 소통, 경제생활–에 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방향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미디어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담은 앞의 초등학생의 유튜브 경험담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의 미디어 문화는 청소년의 관계, 소통, 학습 등 일상 속 다양한 맥락에서 구성되고, 또래 문화와의 소속감과 놀이문화에 기여한다. 동시에 미디어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게 되는 공간이며 이 역량은 지식, 기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나 미디어 활용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까지 연결된다. 이 연구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기존의 미디어 교육의 방향이 청소년의 실제의 미디어의 삶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의 경우를 보자. 최근의 중학생들은 뉴스를 거의 읽지 않으며, 포털의 플랫폼이나 신문사 홈페이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등을 판별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학습에 미디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게임은 단순히 놀이 문화가 아니라 친교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이며, 이러한 친교와 소통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게임 플랫폼과 종류가 달라진다. 중학생들은 목적과 생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친교, 모둠활동, 학급운영 등 사회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단체 대화방이다. 청소년은 미디어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미디어 환경을 생산하고 구성하는 동시에 미디어를 메타적으로 비평하고 판단하며 조정해 나가는 능동적인 미디어 사용자 그룹이다. 개인차는 있으나, 정보 검색, 미디어에서의 위험, 개인정보 통제 및 보호, 목적에 따른 미디어 플랫폼 선택, 인상과 평판 관리, 필요에 따른 학습 등 다양한 미디어 생활 안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디지털 세계 안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미디어 생활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량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학교 안팎의 미디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요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으며, 어느 정도는 성인의 미디어 인식 및 요구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며, 모방을 통해 사회화가 되어가고,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형성해 나간다. 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이나, '유명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는 언어 지도', 또는 '영상 콘텐츠 만들기' 등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미디어 교육의 교육 내용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효과를 가질까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미 유튜브 자체가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시공간인 상황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으로 규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식의 교육 방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른들만 어렵다고 생각할 뿐인 영상 콘텐츠 기술에 대한 강조도 스마트폰 미디어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를 들어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의 교육은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좋은 기획으로 혹은 멋진 썸네일으로 구독자 수를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인 것이다.

3. 디지털 경제와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미디어를 논의할 때 어른들은 이들이 오로지 상업적 콘텐츠의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공간을 상상한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 사회가 아동-미디어 콘텐츠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 또는 문화산업으로서 상업적 콘텐츠로서의 아동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라는 극단적인 분열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존하면서 한국의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결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으며 공유하고 소통하고 생산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디지털 경제 안에서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디지털 경제 역시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사용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토대를 쌓아왔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 디지털 사회의 많은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실마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디지털

시민이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디지털 공간이란 사실은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고 공유할 지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활동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취약한 입지와 맥락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에 반영된다. 이 장에서는 중학생의 미디어 문화를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중학생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환경은 기업의 이윤 활동을 위해 구성된 세계이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소통, 학습, 놀이인 동시에 소비이며 스스로를 미디어 콘텐츠로 만들고, 소비 역시 궁극적으로는 노동행위가 된다.

1)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어린이 청소년: 신체 이미지와 경험

.먼저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펴보자. 주류 미디어 안에서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디어 콘텐츠 그 자체이다. 대표적으로 K POP 산업의 아이돌 문화가 청소년의 젊음의 이미지를 상품화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문화산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돌』 (이종임, 2018)은 아이돌 산업의 노동구조를 들여다 봄으로서, 문화산업에서의 청년 노동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화산업-노동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K-POP 아이돌 당사자가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신체 이미지들은 실제 인간이 아닌 2D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POP 아이돌 무대 퍼포먼스 디자인에 반영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영향」 (박유신,2014)에서는 21세기의 K-pop 아이돌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비물질성을 지닌 신체 이미지를 신체와 퍼포먼스를 통해 구현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미디어 상에서 2D와 3D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등 왜곡된 신체 이미지, 그리고 성역할에 익숙해 진 제작자와 시청자에게 인간 신체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에 가까워 질수록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K-POP 제작자들 세대가 바뀌면서 지난 10년간 부쩍 아이돌 문화에서 교복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이다. 아이돌 문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K POP 문화가 점점 더 낮은 연령의 여성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경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서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포르노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영상 기반의 SNS 로 미디어 문화의 축이 옮겨지면서 콘텐츠로서의 어린이 청소년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 경험이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는 현재의 미디어 문화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경험을 소재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미경은 유튜브와 어린이 채널에 대한 연구(2020)에서,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장난감' 과 '일상' 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유튜브 어린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었으며, 어린이들의 개인적 경험이 어린이 채널의 제목이 되어 어린이 채널에서 보편적인 양상으로 콘텐츠와 채널의 정체성이 한 어린이와 동일시 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 커버댄스 채널의 경우 콘텐츠는 어린이 그 자신의 춤이며, 이러한 경험 중심의 콘텐츠에서 어린이들의 생산, 제작, 공유, 평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보통의 어린이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공유, 참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이러한 기존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문법과 장르가 된다. 초등학생의 유튜브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자신의 콘텐츠와 영상 문법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SNS의 미디어 문화 안에서 한국 의 미디어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고착되고 왜곡되어 온 젠더 이미지, 그리고 신체 이미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 안에서 그대로 답습된다.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들의 채널에서는 주로 '액괴' 가, 남성 어린이들의 채널에서는 '게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는 그들이 구독하는 채널과 닮아 있다. 이는 미디어 안에서의 성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 청소년들이 기존 미디어-날이 갈수록 포르노에 가까워지는-의 문화 코드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재현한 이미지를 생산하여 공유하고, 이를 남성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SNS상의 이미지들은 다시 청소년-성인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다. 점점 더 미디어에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페도필리아적 이미지들은 한국 미디어 문화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미디어 산업의 어두운 일면이다.

2) 그림자 노동과 미디어 경제의 작동 방식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어린이-청소년 또한 온전히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오가며 일상을 영위하고, 학습하며, 또래문화를 형성한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을 보내는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사실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디어 활동의 주체라고 믿으며,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지라도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되며,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 및 지위와 같은 다양한 맥락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다양한 맥락을 만들어낸다.

테라노바(Terranova, 2000)는 무임 노동(free labor)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노동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들, 자율적이며 또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활동은 이들이 설령 자발적이며 놀이문화의 차원에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노동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램버트의 '그림자 노동' 은 이반 일리치(1981)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 없이 행해지는 비생산 노동행위'를 뜻한다. 램버트는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그림자 노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사례로 개인정보 제공의 댓가로 스팸메일 지우기나 비밀번호 변경, 유튜브에서의 광고 보기 이외에도 데이트와 같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데이트 앱을 통해 기업에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림자 노동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왔다. 김난도, 박상희는 가상공간이 현대 생활양식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게 됨을 주목하며, 특정 주제의 인터넷을 탐닉하는 네티즌인 '디지털 폐인' 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아니

라, 가상공간의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자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정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이자 문화생산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김난도, 박상희, 2005) 김애라는 십대여성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 참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기술적, 문화적, 경제적 독려 속에서 소비문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논한다. (김애라, 2016a) 또한 십대 여성들의 또래 문화와 방대한 네트워크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수익을 위한 자원이 된다. (김애라, 2016b) 김예란은 '디지털 창의 노동' 의 양상을 보여주는 남녀 대학생의 문화 소비 및 문화 생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무임 노동의 형태를 보여준다. (김예란, 2015)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생활 또한 마찬가지이다. 실제 세계에서 아동 노동은 금지된 지 오래되었으나, 디지털 세계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숨쉬듯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풍요로운 미디어 문화를 향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문화 향유행위는 결과적으로 노동행위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 시민인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돈이 들지 않는 미디어 생활'을 추구하기에,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이러한 그림자 노동에 노출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무료 미디어 서비스는 SNS 서비스에서부터 게임, 어플리케이션까지 광범위하다. 중학생들은 유료 서비스를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이들은 마치 자발적인 경제적 소비처럼 인식된다. 예를 들어 무료 앱 사용, 공식 팬클럽 보다는 팬 밴드 참여, 개인정보 제공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리뷰 작성, 광고 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많은 무료 서비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그림자 노동을 유도한다. 많은 학습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이지만 계속 질문하려면 리뷰를 하는 등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 <카카오 페이지>는 '기다림'을 요구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자사의 서비스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는 기꺼이 광고를 시청한다. 학생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댓가를 제공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미디어 서비스 측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을 적립하는 등의 보상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걸어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퀴즈를 풀기도 한다. 학생들은 광고 팝업창을 보고 따라서 수행하면서 포인트를 모아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깔려있어 자연스럽게 노동을 이끌어낸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활동이 노동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중학생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미디어 활동이 노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이나 팬덤활동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인들을 선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이 디지털 경제 안엣 혹사당하지 않도록 적당히 광고 보기 등을 조절하면서 나름대로는 '가성비 높은' 미디어 생활을 즐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단지 자신들의 활동이 노동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다. K POP 의 아이돌 산업이다.

다양한 팬덤 연구에서는 이들이 문화 소비자이자 맹목적인 구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조공문화' 는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아이돌에게 헌납하는 팬덤의 소비자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팬덤이 20대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소비 능력은 더욱 강조되었다. (김수아, 2014)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보다는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 팬덤의 경우 미디어 노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기여하게 된다.

아이돌의 컴백 시즌에 팬은 바빠지게 된다. 이들이 팬으로서 하는 좋은 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V LIVE>는 소속사에서 올려주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팬들은 주기적으로 브이 라티브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른다. 조회수가 높아지거나 하트가 많아지면 앱이나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에 해당 영상이 상단에 뜨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멜론과 같은 음원 서비스, 음악 방송의 순위 향상을 위한 각종 K-POP 관련 플랫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조회수를 높이고, 20분짜리 광고를 기꺼이 보며, 리트윗을 하고 좋아요를 누른다.뉴스 서비스와 연계하여, 콘텐츠에 접속하면 별이나 하트 등의 포인트 보상을 주고, 해당 팬덤이 이러한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전광판 광고 및 해당 플랫폼 배너 광고 등으로 보상을 하는 플랫폼도 있다. 청소년 팬덤들은 이를 스스럼없이 '노동' 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팬덤이 해야 할 일로 손꼽고 있다. 또한 이를 자신의 팬 커뮤니티에 인증함으로서 노동자로서의 팬덤 자격을 증명하고, 팬덤 상호간의 품앗이 노동을 인증하며 서로 디지털 노동을 독려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인증은 노동 행위자를 보람과 자부심의 이름으로 상호 관리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며 스스로를 위해 노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K POP 산업은 오늘날 이러한 청소년 디지털 노동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디지털 노동자로서의 자아는 내면화되어 있다. 'view' 는 새로운 아이돌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

팬 밴드 운영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노동의 플랫폼이다. 앞서 중학생의 많은 사회활동이 '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듯, 팬덤활동 또한 공식 팬클럽 대신 무료 소규모 '방' 으로 운영된다. 이는 팬들간의 상호 규칙과 자율적인 운영 방침에 의해 돌아가며,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운영 규칙을 잘 따른다면 운영진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 안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쓰고, 스밍을 인증하고 팬 밴드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등 '열활'을 인증하여 운영진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무료 팬덤 안에서 팬들은 사진을 공유하고 팬덤간의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스밍 인증을 열심히 하면 노동력의 댓가로 '홈마' 가 만든 사진으로 만들어진 굿즈를 선물로 받기도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본격적인 공연 및 조공 등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에서의 노동은 대리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팬싸인회에 참여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브이라이브는 청소년 팬들에게 아이돌과 대화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한다. 콘서트에 참여한 성인 중심의 홈마 등의 사진은 청소년들에게 콘서트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K-POP 문화에서 미디어 산업과 성인/청소년 팬덤은 콘텐츠와 자원 노동을 주고 받으며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 사회에서의 아동 권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글이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생활의 모든 면면을 담아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세계' 라는 추상적인 공간에 던져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첫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디지털 세계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포함된 공간으로, 어른들 자신이 '디지털 시민' 이라며 환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어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공간에서 다양한 위기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공간은 우리 사회의 문화, 경제, 소통, 학습, 오락, 그리고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간에 침투되어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디지털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양상도 절대로 하늘 아래 새롭지 않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연관된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앞서 논한 사례들에서 'N번방'의 징후 조차도 이미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의 젠더 이미지의 공식대로 자신을 표현하여 이미지를 공유하고, 이들 중 많은 수는 포르노 이미지와 중첩된다. 청소년들은 동시에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따라 성인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문화를 답습한다. 청소년이 '방'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며, 미디어의 경제활동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행위로서, 유료 이용자들의 보상을 받는다. 요약해서 말하면 N번방이란 새로운 것이 아닌, 한국의 디지털 세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비해 온 가장 어두운 방식이며, 그 운영 방식은 디지털 세계가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고 보상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다. 여성 청소년이 그들의 신체를 미디어의 문화 코드에 따라서 '콘텐츠'로서 찍어올리면서 그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고, N번방에 이미지로서 공유되었을 것이다. 대다수 성인이었을 유료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때, 남성 청소년들은 자신이 찍어올린 '사진' 으로 포인트를 대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이 피해가 되었을 것이다. 즉 N번방이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한국 디지털 문화의 다양한 면면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디지털 시민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디지털 세계를 정글로 방치하는 사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는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디지털 학습에서부터 노동, 차별, 성적 대상화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협약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디지털에서의 아동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발명된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명의 초창기,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노동에 종사하는 작은 어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자본의 논리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탄생>의 저자인 필립 아리에스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역사적 발명품이며,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서히 생겨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에스는 그 결과 어

린이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가족과 학교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결과로서 '올리버 트위스트'에 묘사된 것과 같은 아동 노동과 성적 착취, 기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은 학습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 19시대 이후의 뉴스들은 전통적으로 통제된 공간으로 여겨졌던 학교 공간이 폭력과 방임, 기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왔음이 드러났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는 학교와 가정으로 격리되었던 어린이를 공동체와 연결하고 있으며 디지털 공동체는 아동 권리의 발명 전 사회와 닮아 있다. 급속히 근대화를 맞은 한국 사회가 미처 글로벌 시민성이나 인권 등의 가치를 온전히 내면화하지 못한 채로 다시 급속한 디지털 사회로 진화한 것 또한 이러한 디지털의 정글화를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사회를 맞이하여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아동 인권을 다시한 번 되새기며 근대가 형성해 놓은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시스템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이며,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가짜 뉴스 생산자, 대기업, 미디어 기업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 집단 혹은 악마화된 미디어 생산자에 대한 판단 혹은 보호가 아닌, 가장 단순한 성찰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디지털 시민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습자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은 중학생이 안전한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이 자신의 미디어 사용과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의 플랫폼과 구조와 한계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필요로 하는 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김아미 외, 2018) 이는 디지털 기술의 습득이나 스마트 기기 접근 차단, 유해 미디어로부터의 보호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린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보호받으며 평등하게 학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5. 참고문헌

김난도·박상희. (2005). 디지털페인과 가상공간의 신소비문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소비자학연구, 16(4), 81-102.

김아미(2018)초등학교유튜브문화와 교육적 대응.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아미·이혜정·김아람·박유신·이지선(2018)중학생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향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애라. (2016). 소셜미디어 소녀시장과 디지털 (소비) 정보를 통해 구축되는 십대여성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149-173.

김애라. (2016). 십대여성의 디지털노동과 물질주의적 소녀성. 한국여성학, 32(4), 37-81.

김애란(2015). 디지털 창의노동. 한국언론정보학보. 69. 71-110.

박유신. (2014). 시각문화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애니메이션 교육의 방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9-65

박유신. (2020). 디지털시대의 시민성과 어린이. 창비어린이 여름호.

정현선·박유신·전경란·박한철(2015). 미디어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연구,교육부.

최미경. (2020). 유튜브 어린이 콘텐츠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9, 325-354.

Illich, 노승영 역(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Terranova, T. (2000).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Social text, 18(2), 33-5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 및 쟁점

발표: 김지은(서울예대)
토론: 이상희(조선대)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 및 쟁점
-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김지은(서울예대)

목 차

1. 서론 : 새로운 독자의 등장
2. 본론 1 : 아동문학 연구에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역사
3. 본론 2 : 핵심 쟁점과 현재 문학작품 속의 성평등
4. 결론 : 시민의 조건

1. 새로운 독자의 등장

“여자답게 멈추지 마, 여자답게 물러서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색한 기분이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문구는 10대 초반의 고객을 겨냥해서 어느 생리용품 회사가 만든 광고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광고를 시청한 사람 중에 여성의 70%, 남성의 60%가 ‘여성은 나약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었다고 대답했다. 아직 우리 안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여자답다는 말이 어떤 고정적 속성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페기 오렌스타인이 『신데렐라가 내 딸을 잡아먹었다』(에쎄. 2013)는 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1920년대까지 남자 어린이에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히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의 상당수는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되었던 것들이다.

성역할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제한하고 자신의 특성이나 원하는 바와 달리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하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동문학은 오랫동안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아무런 동화책이나 몇 권 꺼내어 보면 “여자애가”, “남자애가”, “여자애들은”, “남자 애들은”과 같은 표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엄마는”, “아빠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여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은”과 같이 성별에 따른 인물 묘사는 어느 정도 전형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떤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활발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 속의 성차별은 적대적 성차별보다 호의적 성차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는 여자니까 예쁜 것을 줄 게.”라거나 “여자인데 컴퓨터를 고칠 줄 알다

니."고 말한다면 이는 호의적 성차별이다. 호의적 성차별의 맥락에서는 여성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이므로 귀하게 대접받아야한다고 부추기기도 하는데 차별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농담처럼 쓰이는 성차별적 표현들도 호의적 성차별에 속한다. 어린이는 동화 속에서 만난 농담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든 문화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일찌감치 차별적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우리 아동문학의 경우 작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적 시선으로 구성된 작품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남성적 시선'이라는 개념은 페미니즘 영화이론에서 제안한 것으로 관객이 성별에 상관없이 이성애자 남성의 시점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말한다. 여성을 향해 욕망을 표현하거나 그들의 몸을 대상화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려진다.

어린이가 일상 속에서 성역할 고정 관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들이라서", "딸이라서"라는 말을 듣는다.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가서 고정 관념을 재확인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데 남녀를 나누어 줄을 세우고 핑크와 블루로 소지품에 라벨을 붙여 정리하는 방식에 적응하면서 어린이의 성역할 고정 관념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징적인 이미지와 구체적 서사로 체득하게 되는 것은 동시, 동화를 비롯한 문학작품과 그림책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다. 집과 학교는 아동문학의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도 한다. 책에서 만난 인물, 그 인물의 행동은 어린이가 가족과 교실 안에서 겪은 개별적 경험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어린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익히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시절의 책임과 더불어 그를 개선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어린이 독자는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3] 이후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평등한 세상을 향해 이전과 차별화된 강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은 어느덧 스쿨 미투 운동과 탈 코르셋 움직임을 주도하는 청소년이 되었다. 또한 어린이들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옷 입기부터 놀이하기, 친구와 관계 맺기까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교실 안의 혐오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들의 혐오 표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 여성에 대한 멸시, 성폭력적인 욕설과 장난이라는 이름의 성폭력 등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있는 문화, 여교사에게는 엄마와 같은 돌봄을 기대하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문화, 나이를 막론하고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는 문화 등은 학교 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4]는 것이 공통적이고 솔직한 우려다.

---

3) "2015년 페미니즘이 리부트 되었다. 영화에서 '리부트(reboot)'란 기존의 연속성을 버리고 몇몇 기본적인 설정을 유지하면서 작품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르스 갤러리의 미러링 스피치 운동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그러나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흐름의 운동 역시 '페미니즘 리부트'라 할 만하다.",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 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2015. 09, 14면

4) ≪바꿈F-페미니즘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2018 봄 창간호. 8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16년 발족한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공교육 현장에 난무하는 소수자 혐오와 성차별적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초등 교사들의 모임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등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가지고 페미니즘 교육 현안에 대해 논하면서 각자의 고민과 성평등 수업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운동을 조직했으며 그간 벌인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7회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했다. 2018년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페미니즘 교육자료집 ≪바꿈F≫를 창간했으며 이 지면을 통해 꾸준히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과 학교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역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범한, 학교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사연구회인 '젠더 교육 아웃박스'도 2018년 『예민함을 가르칩니다』(서해문집)를 출간했다. 수업에서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나누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예민한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2018년 겨울부터 사업을 시작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도 어린이에게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사례다. 여성가족부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5]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도서관과 교실에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높은 어린이책을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행정기관에서도 성평등 관점을 갖춘 아동문학 작품이 어린이와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언급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을 공동주관하고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젠더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초등학교 문학교육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과 유아, 초등, 중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성평등 문학작품 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는 중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문학작품 공모전을 벌여 어린이가 독자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어 성평등 관점을 표현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인천교육지원청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어린이책을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며 각급 학교에서도 아동문학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연결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열두 달 학교생활』을 펴낸 교사모임 '화성에서 온 페미니스트 FFM' 등 크고 작은 교사모임이 아동문학 작품을 어린이와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민간 기업 중에는 성평등 유아동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따따' 등이 성평등 관련 사업을 펼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아동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문학 연구에서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역사를 검토하고 현재 우리 아동문학이 그리는 여성 인물의 모습에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그를 통해 지금 우리 아동문학의 성평등 의식이 위치한 지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몇몇 실천적인 움직임을 통해 문학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

5) 2020년 8월 2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벌어진 논란 이후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사업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교육문화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롯데지주가 후원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사업 수행에 참여했다.

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출발 단계의 전망을 나누어 볼 것이다.

2. 아동문학 연구와 성평등

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아동문학에서 성평등 관점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동문학과 여성주의에 대한 연구 중에는 유아 교육 연구자들이 그림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경우, 영미 아동문학과 독일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페미니즘으로 해석 가능한 동화 텍스트를 연구한 경우, 민담이나 설화에 관한 분석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들여서 연구한 경우 등이 있으나 이들 논의에는 우리 창작동화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비평가로서 창작동화를 여성주의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는 김경희가 1985년 『또 하나의 문화』 제 1호에 쓴 글 '동화 속의 편견[6]'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김경희는 성차별적인 편견에서 벗어난 대안동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또문'의 발기인인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사회학 전공)는 "당시 대안동화에 관심 있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대안동화를 읽고, 직접 창작한 작품을 자체 출판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7]"고 밝힌다. 이후 최명표가 1992년 엘렌 식수의 이론을 언급하며 '한국 동시문학을 위한 여성주의 비평'[8]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논문 안에 구체적인 이론의 적용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 여성주의적 분석으로 보기는 어렵고1996년 한국여성개발원 김홍숙 연구원이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9]」를 발표한 것이 중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김홍숙은 이 연구에서 "양성평등 등의 메시지 전달 뿐 아니라 짜임새 있는 흐름과 다채로운 삽화를 통해 아이들의 미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 역시 대안동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1997년에는 최윤정이 『책 속의 어른, 책 밖의 아이』를 펴내면서 동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윤정은 이후 '1999년 하반기 어린이 문학'이라는 평론을 통해 이금이의 『너도 하늘말나리야』, 이경혜의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등에 나타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와 이혼한 여성 인물을 평하는 등 꾸준히 여성주의적 비평을 기고한다. 정선혜가 1999년 '한국 동화 속에서 잃어버린 모성찾기[10]'를 발표한 것은 최초로 여성 작가들의 창작물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집중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나.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2000년대 초반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주의적 이론 연구를 각 분야의 현장에 적용하려는 열기가 무르익었던 시기다.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성평등 관점을 널리 알리려는 시도도 많았다. 당시에 독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비평서 심혜련의 『약이 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2000, 이프)는 여성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일관되

6) 또 하나의 문화 제 1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평민사, 1985, p. 103
7) 채라다, '드레스를 벗어던진 동화 속의 여성들', 이대학보, 2005. 5. 9
8)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아동문학연구(2), 1992. 8, p. 47
9) 한국여성개발원, 1996
1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1999, Vol. 5, p. 341

게 분석 작업을 이루어냈으면서도 잘 읽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독자들의 성평등 의식 재고에 큰 기여를 했다. 김경중의 2001년 논문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11]'도 중요한 작업인데 주로 전래동화를 다루었다. 그는 그림책 64권을 선정하여 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관념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했다.

선안나가 2002년에 '몽실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12]'으로 우리 창작 동화 개별 작품의 여성주의적 분석에 도전한 것은 그런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자연은 같은 해 '동화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13]'에서 '양성평등'과 아동문학 작품의 관계를 언급한다. 이 논문에서 김자연은 우리 창작동화가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정형화된 성차별을 너무도 당연시 해 온 경향이 짙다고 비판하면서 작가와 독자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동화를 쓰는 작가들이 양성평등 문제에 더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여성 정형화로 인한 편견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선혜는 2006년 '한국 동화에 나타난 여자 어린이상 연구[14]'에서 김경록, 손연자, 권정생의 작품을 여성주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마사코의 질문」이 여성 어린이의 몸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권정생의 「몽실언니」가 여성 수난 서사로 다시 한 번 명명된다. 2012년 김현욱과 안세근은 '동화를 활용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15]'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분석했다.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서 동화의 활용가치가 높음을 양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으나 활용한 작품은 '백설공주', '종이봉지 공주', '돼지 책' 등 민담과 해외 창작 그림책이었다.

다. 2015년 이후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는 여성주의적 동화 연구도 확실히 활발하게 속도를 낸다. 김지은은 2013년 '말해도 괜찮니?: 유럽 청소년문학이 고민하는 성과 사랑의 문제[16]'를 통해 다른 나라 아동문학 작품의 여성주의적 현황을 소개하고 2015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17]'를 통해 최영희의 『첫 키스는 엘프와』(푸른책들, 2014), 최상희의 「노 프라블럼」(『델문도』, 사계절, 2014), 김중미의 『모두 깜언』(창비, 2015), 김하은의 『얼음 붕대 스타킹』(바람의아이들, 2014) 등의 우리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의 현재적 모습을 진단한다.

2016년 우신영은 '동화 독서와 젠더 이데올로기: 아동 권장도서목록 속 전래동화 여성인물 표상을 중심으로[18]'를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어린이도서연구회 발행 전래동화 권장도서 목록(2012~2015) 중 여성인물 표상이 주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고 등장하는 텍스트를 분석한다. 우신영에 따르면 해당 권장목록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표상이 있다.

---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2, p. 325
12) 「아동문학평론」,102, 2002. 3, p. 166
13) 「아동문학평론」,104, 2002,5, p. 220
14)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아동문학연구, 12, 2006. 5, p. 61
15) 동화와번역연구소, 동화와번역, 제 24집, 2012, p. 144
16) 《어린이책이야기》, 통권 22호, 2013년 봄호
17) 《창비어린이》, 통권 49호, 2015년 여름호
18) 독서연구, 제 38호, 2016, P. 150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우렁각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19] 그는 '우렁각시'를 비롯한 전래동화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보상물화는 현재진행형이며, 이러한 현상에 공식적/비공식적 동화 읽기가 지니는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 표상이 선물(gift)이 아니라 보상으로 개념화되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창작동화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린이책으로 출간된 대표적인 옛이야기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비체 개념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권장도서 목록에 내포된 노골적인 성적 편향성을 밝혀낸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논문이다. 우신영은 기존 전래동화 독법을 갱신한다면 이 권장도서 목록이 젠더 정치를 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친다.

김지은은 2017년 창비어린이 여름호에 실은 '아동문학과 여성주의적 흐름'에서 진형민, 송미경 등의 단편동화에 나타난 어린이 여성 인물과 성인 여성 인물의 모습을 분석한다. 자칫하면 동화가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타자의 시선이 되어 어린이를 대상화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린이를 더 평등하고 건강한 연대의 서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동문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현은 같은 호 창비어린이에 실은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여성주의'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직접 되돌아보면서 여성주의자이면서 창작자인 경우 갖게 되는 고민을 기록한다.

2018년 이후는 김유진의 작업이 눈에 띈다. 그는 2018년과 2020년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 창작동화와 청소년소설, 동시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에서 발표한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20]'은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 주디 와츠먼(Judy Wajcman)의 테크노페미니즘(Technofeminism)에 비추어 김성진의 『엄마 사용법』(창비, 2012), 엔솔로지 『안녕, 베타』(사계절, 2015), 안미란의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창비, 2001), 김윤영, 『달위를 걷는 느낌』(창비, 2014), 김남중의 『해방자들』(창비, 2016), 최양선의 『너의 세계』(창비, 2014), 정소연의 『옆집의 영희씨』(창비, 2015), 손서은의 『컬러보이』(비룡소, 2014_ 등을 살펴본다. 언급된 작품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에 있어서도 탁월한 비약을 이루어낸다. 김유진은 우리 창작 SF동화들이 여성상, 여성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구현하는 시각을 검토하면서 주제의식, 작가의식에서도 좀 더 다른 지평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여기'의 현실 세계를 전복하려는 SF의 상상력과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품 안에서 여성주의적 의미를 찾아내려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작품이 지닌 여성주의적 한계를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연구다.

김유진이 2020년 발표한 '동시와 청소년시의 여성 화자[21]'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발간된 동시집과 청소년시집을 대상으로 한, 동시에 여성주의를 적용한 거의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다. 김유진은 이 글에서 여성화자와 여성저자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여성 어린이, 여성

19) 앞의 논문, p. 163
2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2, 2018, p. 203
2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6, 2020, p. 43

청소년을 가시화하는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동시의 윤리적, 미학적 의미를 밝힌다. 그리고 동시 비평이 보여주는 한계를 여성주의적으로 비판하며 여성 어린이, 여성 청소년이 화자로 등장하는 동시와 청소년시가 지금까지 재현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 사이의 연대와 공감을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핵심 쟁점들과 현재 문학작품 속 성평등

이처럼 2015년 이후의 아동문학 연구와 함께 성평등의 관점은 보다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아동문학의 몇 가지 쟁점들도 더 선명해진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쟁점을 작품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1장의 말미에서 언급한 예민한 도서관, 초등성평등연구회,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젠더온 등에서 추천된 작품을 주로 다루었다. 그 외에 몇몇 작품들을 추가 예시로 포함한다.

가. 여성 주인공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가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해마다 출간되는 아동문학작품을 전수 조사하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어린이책 협력센터(CCBC)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아동문학 작품의 주인공을 여성 어린이가 맡는 경우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물론 이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모험서사이거나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탐정물일 경우는 더더욱 여성 주인공이 드물다. 우리 아동문학은 어떤가? 우리 창작동화에 나타난 문제 해결형 여성 인물로 춘악이를 들 수 있다.

『춘악이』(문학동네어린이. 2005)는 김나무 작가가 쓴 동화다. 주인공 춘악이는 어른들의 잘못을 앞장서서 따지고 친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가 발생한 장소에는 겁 없이 나타나는 거침없이 사건에 달려드는 용감한 여성 주인공이다. “친구들도 창해 아버지 잘못을 따져 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춘악이는, 학골 마을에서 그럴 만한 용기를 지닌 애가 누굴까 생각해 보았어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밖에 없었어요.(85면)”라는 부분은 춘악이의 드높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춘악이의 환경이 그의 호연지기를 키워줄 정도로 썩 편안한 것은 아니다. 3학년인 춘악이는 4학년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리가 불편해진 할아버지를 보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월사금 30원이 없기 때문에 진학을 잠시 포기해야만 했다. 여자 어린이를 공부시키는 일은 늘 뒷전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경우 주인공은 처연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춘악이는 한국의 ‘삐삐 롱스타킹’이라고 할 만한 씩씩한 기상을 지닌 인물로 우리 아동문학이 기억할만한 여성 주인공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젠더온의 초등문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작품이다.

황지영의 『도개울이 어때서』(사계절. 2020)에는 씩씩한 여성 도깨비가 나온다. 아이들은 모두 개울이를 이상한 애라고 말하지만 수아는 개울이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걸 믿는

다.

"개울이랑 같이 다니더니 수아까지 이상해졌나봐."
누군가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랑 반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개울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우리 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이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개울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개울이는 이상하고 괴상한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개울이는 도깨비라는 걸. 그것도 아주 용감하고 멋진 도깨비 말이다. (101-103면)

유년동화에서 도깨비가 친구로 등장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 인물이 도깨비로 등장해서 어린이와 친구가 되어주고, 용감하게 아이들을 구조하는 서사는 드물다. 이 작품 속 도개울은 귀신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점도 흥미롭다. 대부분 여성 인물은 '귀신'으로 등장해 '한'을 전시하지만 도개울은 담담하게 초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뿐 구차하게 한을 털어놓지 않는다. 희생자 프레임에서 해결자 프레임으로 여성의 자리를 옮겨 놓은 것이다.

나. 공주님, 왕자님으로 대표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는가?
유년동화에서 공주님과 왕자님의 전형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뿌리 깊게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 어린이 독자는 자신이 남성 어린이의 모험 끝에 만나는 트로피로 자리매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주되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공주가 나오는 수많은 동화들이 단단히 영향을 끼쳤다. 남성 어린이 독자는 원치 않는 모험의 투사가 되어야만 왕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 자기다움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당하기도 한다.
강정연의 2006년작 『바빠 가족』(바람의아이들)은 즐거운시 행복구 여유동 어귀에 세 번째 골목에 사는 유별난씨 가족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문제적인 대목은 '다잘난군'의 묘사다. 다잘난군은 분명히 열두 살 남자 아이인데, 발끝에 붙어 있는 그림자는 긴 치마에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작가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다잘난군은 자기 눈이 의심스러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 끔찍한 그림자는 다잘난군 발끝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7면)"고 적는다. 여기서 남성 인물이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를 이야기하는 성평등 관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인물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서사로서 고재은의 『내 이름은 김 신데렐라』(문학동네. 2009)는 의미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진우는 남자 어린이지만 공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인형놀이를 즐긴다. 어느 날 친구 유미를 만나러 가면서 진우는 걱정한다. 유미가 '진우다운' 모습을 놀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유미의 집에는 미니카가 뒹굴고 있고 짱딱지와 변신

로봇이 유미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다. 유미는 마왕의 성을 조립 중이었는데 뿔이 난 말과 투구를 쓴 병사, 칼을 든 왕자를 손에 들고 진우에게 말한다.

"마왕의 성에서 공주를 구해야 해. 그런데 공주가 없어."
유미가 문제라는 듯 말했어요.
"공주? 그건 걱정하지 마."
나는 종이에 공주를 그렸어요.
"야, 공주 진짜 예쁘다. 그럼 진우야, 네가 공주할래?"(67-69면)

이 작품의 제목처럼 진우는 김 신데렐라이며 유미는 왕자다. 둘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친구가 되며 자유롭게 우정을 키워나간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뒤집는 이 이야기는 2009년 작품이다.

이금이의 2019년작 『망나니 공주처럼』(사계절)은 이보다 성큼 더 나아간 서사다.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앵두와 앵두의 친구 자두는 전설 속의 망나니공주처럼 여성 영웅이 되기를 꿈꾼다. 이들은 공주를 구하러 떠나지 않으며 나라를 구하고 다시 일으키는 꿈을 꾼다. 자신들이 그 구국 전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말 위에 올라탄다. 두 여성 어린이의 연대는 왕자-공주 구도를 뛰어넘어 왕이 되는 여성 리더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대는 어떤 결실로 이어질 것인지 미래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여성가족부 주관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의 2019년 추천도서로 소개된 바 있다.

다. 엄마=마녀의 도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찾기는 아직 어렵다. 문제적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 어린이는 여성이 대부분 육아의 책임을 전담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과 가장 가깝고 언제나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인 엄마를 가장 '싫은 어른'으로 꼽는다. 옛이야기의 마녀 이미지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괴롭히는' 엄마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더욱이 '맘충'이나 '된장녀'와 같은 밈과 연결되면서 어리석고 사치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엄마'를 욕하는 것이 일상적 욕설로 자리 잡은 것은 이러한 여성 혐오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동화에도 그러한 현실이 그대로 파고들어오기도 한다.

김유의 『안 읽어씨 가족과 책 요리점』(문학동네. 2017)에 등장하는 안읽어씨 가족은 평범한 동네에 있는 평범한 집에 사는 평범한 가족이다. 아빠 안읽어씨는 책을 읽지 않고 과시용으로 들고 다닌다는 점에서 허세에 가득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나가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꼼꼼한 사람이다. 그런데 엄마 산만해 여사는 요리보단 외식을 좋아하고 걸레질을 하다가도 친구에게 전화를 거느라 청소를 게을리하며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윤섭의 2013년작 『짜장면 로켓 발사』(문학동네)에 등장하는 「진짜 엄마 찾기 대회」는 가족들에게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하고서 성형수술을 한 뒤 나타나는 성호의 엄마 이야기를 다룬다. 엄마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성형수술이 성공

적이란 말이네요. 여보, 내가 이렇게 예뻐지니까 좋지 않아요? 성호야, 너도 엄마가 이렇게 예쁘니까 좋지? (78면-79면)"

성호 엄마는 "너무 못생긴 성호 엄마, 너무 못생긴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성호가 글쓰기에 썼던 것처럼 모두가 예뻐지기 위해 얼굴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필요했어요."라고 하소연하면서 "성호의 두 번째 엄마라고 해도 좋아요. 당신의 두 번째 아내라고 해도 좋아요. 난 새로운 나를 찾았어요. (92면)"라고 성형 이후 얻은 기쁨을 말한다. 자존감을 타인이 평가하는 외모로부터 찾는 엄마의 모습은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엄마의 성형을 자기 재발견 서사로 이해하면서 외모 콤플렉스에 짓눌린 삶을 살아온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가족을 남겨두고 얼굴을 고치는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엄마의 모습은 사회 일반이 보여주는 통상적인 외모 지상주의 및 여성 혐오의 맥락과 닿아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천효정의 『첫사랑 쟁탈기』(문학동네. 2015)에 등장하는 엄마도 비슷한 혐오의 맥락을 깔고 있다. 주인공의 아빠는 외도를 하는데 엄마가 남자를 만나러 갈까봐 감시하러 일찍 들어온다. 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줏대 없는 바람둥이 남편과 맞바람을 피우는 날라리 부인(153면)"으로 그려져 있다. 남편의 불륜에 상심한 엄마가 외도를 억울하게 의심받는 부당한 상황을 두고 '맞바람을 피우는 날라리 부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표현이다. 외모 단장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는 대목도 풍자라고 보기에는 여성 혐오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일단 지나치게 상세한 기술로 되어 있다.

오늘 엄마는 목선이 깊이 파인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틀어 올린 머리는 나비 모양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깨끗하고 보기 좋은 이마를 가진 엄마는 올림머리가 아주 잘 어울린다. . . .

"쎄라야. 그 귀고리 그만 좀 해. 도금이 벗겨져서 싸구려처럼 보이잖니."

엄마는 고양이 귀고리를 힐끗 보더니 남 보기 창피하다는 표정으로 핀잔을 주었다. (143면-144면)

'엄마'에 관해서라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작품을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작품들은 독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작품들임에도 이런 비판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여성'을 본다. 동화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의 묘사에 고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려지는 많은 엄마들이 여성 혐오를 어느 정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라. 여성과 남성의 전문성 및 능력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가?

신현이의 2018년작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 나』(문학동네)는 노년의 여성 전문직 여성이 등장하는 동화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가 만나는 교사는 절대 다수가 여성인데도 교장선생님은 늘 남성이 등장하는 동화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정년퇴직한

홍자 선생님과 내년이면 퇴임을 앞둔 여성 교장 선생님이 등장한다. 교장 선생님은 퇴직 후에 실험실을 갖춘 연구소를 차려 놓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연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의 서정적인 미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성 전문직 두 사람의 우정은 지금까지 동화에서 보기 어려웠던 관계의 모델이다.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점에서도 성평등 관점이 깃든 설정이다.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의 2019년 추천 도서다.

전수경의 『우주로 가는 계단』(창비. 2019)에 나오는 천체물리학자 할머니라든가 이현의 『연동동의 비밀』(창비. 2020)에 나오는 페이스북을 하며 범죄의 이면을 밝혀내는 논리적인 정효네 할머니, 김다노의 『비밀소원』(사계절. 2020)에 등장하는 헌법책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 등은 다양한 여성 전문가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여성 인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은 '여자가 감히'라는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마. 여성을 가정 폭력의 희생자로 그리는가, 구조자로 그리는가?

많은 동화가 '불쌍한 어머니'를 등장시켜 '불쌍하지 않은 어머니'와 '불쌍한 어머니' 두 가지 여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동화에 등장하는 '불쌍하지 않은 어머니' 중에는 아이를 두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이혼 여성도 있고 '되바라진 태도'로 가부장제에 맞서는 바람에 자신의 앞길을 제 발로 걷어찬 여성도 있다. 그런 어머니와 대조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종하고 희생적 삶을 산 어머니는 끝까지 '불쌍한 어머니' 지위를 유지하면서 받들어 모신다.

가족 안에서 가정 폭력으로 불행이 찾아올 때 여성을 폭력의 희생자 또는 도망자로 그리는가, 구조자로 그리는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작품에서 어머니는 '매정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엄마를 등장시키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옥의 『불을 가진 아이』(사계절. 2008)에는 게임 속 여전사 같은 엄마가 등장한다. 동배의 엄마는 낡은 봉고차를 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길바닥에 산처럼 쌓아 놓고 판다. 동배는 자신의 엄마가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엄마 얼굴보다 큰 운전대를 휙휙 돌리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배 엄마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동배 아빠의 지독한 폭력이다.

"조기 뒤집지 말랬지!"

아빠는 수저를 탕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수저는 밥상을 치고 날아오르더니 방바닥에 떨어졌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겁이 나 죽겠는데 용감한 우리 엄마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 맘대로 조기를 뒤집는 거야? 내가 일하다 또 사고라도 나면 좋겠어?"

"조기 뒤집는 거하고 돌 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88면)

동배 아빠는 동배를 때리면서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분노를 동배에게 쏟아붓는다. 그런 동배를 구하고자 나서는 것은 동배의 엄마다.

(엄마는) 엄마 손으로 정성껏 차렸던 밥상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밥상이 조기처럼 훌러덩 뒤집어졌다. 와장창 소리가 요란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참지만 우리 동배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 (88면)

이 쟁점은 썩 흔쾌한 예시를 찾기 어렵다. 엄마가 어린이를 폭력에서 구출하고 싶어도 그러기 힘든 가정 폭력의 잔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으며 작가가 여기에서 완전히 떠난 엄마를 그리는 일에는 아직 판타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음의 두 작품은 『불을 가진 아이보다』 더 통쾌하다.
송마리의 『올가의 편지』(창비. 2011)에 담긴 단편동화 「올가의 편지」에는 전사처럼 말 옆구리를 두 발로 차며 잃어버린 말 하와르를 찾으러 떠난 엄마가 나온다. 몽골이 배경인 이 작품에서 올가의 엄마는 다섯 살때부터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으며 몽골 말타기 대회에서 남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한 사람으로 나온다. 엄마가 "두말없이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말 위에 올라"타는 장면은 문제해결을 하는 주체로 엄마를 세운 멋진 장면이다. 올가의 아빠는 이들을 떠났고 한국에 있다. 흔한 엄마의 희생, 구조자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다른 구도에서 엄마를 그려낸 서사다.

같은 책에 실린 송마리 작가의 또 다른 동화 「달려라 할머니」에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멋지게 합격한 박끝내 할머니가 나온다. 할머니는 전광판에서 합격자로 자기 이름을 확인한 후 눈물을 글썽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다음 도로주행 기능 시험을 위해서 큰 솥단지에 밥을 하고 쌀도 김도 많이 먹으면서 면허를 따내겠다고 다짐한다. 이 작품은 '노년 여성의 운전'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솥뚜껑을 운전하는 김여사'라는 여성 혐오의 밈을 비판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늦었지만 면허에 도전하는 박끝내 할머니는 웃음거리가 아니라 작은 영웅으로 그려진다. 여성 혐오의 밈은 이렇게 얼마든지 반전의 캐릭터로 바꾸어낼 수 있다.

바. 그 밖의 사례

정재은의 『내 여자 친구의 다리』(창비. 2018)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제 다리예요. 제 몸이라고요. 이 다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의족은 단 씩씩한 발레리나 연이가 나온다. 그런 연이에 대해서 주인공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흔한 외모 평가를 시도하지만 연이는 당차게 거부한다.

"그런데, 네가 날아오르다 뒤로 휙 돌더니 꽃잎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멋지게 널 받았지."

한참 동안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거 알아? 넌 내가 무거워서 못 받을 걸? 내 다리는 보통 다리보다 무겁거든. 진짜야. 그리고 난 발레 하다 절대 안 떨어져."

(46-47면)

그런가 하면 이경혜의 2003년작 『형이 아니라 누나라니까요!』(비룡소)는 요즘 말로 하면 탈코르셋을 시도하는 재영이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재영이는 재승이의 누나로 형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 짧은 컷트 머리에 기운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누나가 재영이는 못마땅하다. 사람들이 전부 '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더 이상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가 편하다고 말하면서 철봉도 타고 동생도 구해주는 새로운 누나가 나온다. 이 새로운 누나의 모습이 2003년에 이미 등장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4. 시민의 조건

지금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는 세계의 작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는 '성평등과 다양성'이다. 다른 존재의 삶에 대한 존중과 연대는 다음 세계의 행복을 약속하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다. 어린이는 스스로 나이의 위계를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이며 그렇기에 약자의 입장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다만 자신이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의 서사에 더욱 솔깃 하는 자연스러운 보호본능도 작용한다. 그 시기의 어린이들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세계를 해석하는가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세상의 수많은 차별을 감각하고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과 동일한 체온을 가진 인간으로서 연대하도록 돕는 것은 한 편의 동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고재은, 『내 이름은 김신데렐라』, 문학동네, 2009
강정연, 『바빠가족』, 바람의아이들, 2006
김나무, 『춘악이』, 문학동네, 2005
김다노, 『비밀소원』, 사계절, 2020
김옥, 『불을 가진 아이』, 사계절, 2008
김유, 『안 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문학동네, 2017
송마리, 『올가의 편지』, 창비, 2011
신현이,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문학동네, 2018
이경혜, 『형이 아니라 누나라니까요!』, 비룡소, 2003
이금이, 『망나니 공주처럼』, 사계절, 2019
이현, 『연동동의 비밀』, 창비, 2020
전수경, 『우주로 가는 계단』, 창비, 2019
정재은, 『내 여자 친구의 다리』, 창비, 2018
천효정, 『첫사랑 쟁탈기』, 문학동네, 2015
한윤섭, 『짜장면 로켓 발사』, 문학동네, 2013
황지영, 『도개울이 어때서』, 사계절, 2020

2. 참고문헌

김경중,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 『한국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2
김유진, '한국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김유진, '동시와 청소년시의 여성 화자',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김자연, '동화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 『아동문학평론』, 104, 2002. 5
김지은, '말해도 괜찮니?:유럽 청소년문학이 고민하는 성과 사랑의 문제', 『어린이책이야기』, 통권 22호, 2013년 봄호
김지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창비어린이』, 통권 49호, 2015년 여름호
김지은, '아동문학과 여성주의적 흐름', 『창비어린이』, 통권 57호, 2017년 여름호
김현욱, 안세근, '동화를 활용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동화와번역』, 동화와번역연구소,
선안나, '몽실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 『아동문학평론』, 102, 2002. 3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 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2015. 9
우신영, '동화 독서와 젠더 이데올로기: 아동 권장도서목록 속 전래동화 여성인물 표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 36호, 2016
이현,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여성주의', 『창비어린이』, 통권 57호, 2017년 여름호
정선혜, '한국 동화 속에서 잃어버린 모성 찾기', 『한국문예비평연구』, 1999, Vol. 5.
정선혜, '한국 동화에 나타난 여자 어린이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2006. 5

최명표, ‘한국 동시문학을 위한 여성주의 비평’, 『한국아동문학연구』(2), 한국아동문학학회, 1992. 8
구세나, 박효진, 이소현,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열두 달 학교 생활』, 북멘토, 2019
김경희,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평민사, 1985
김홍숙,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심혜련, 『약이 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 이프, 2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바꿈F-페미니즘 교육』, 2018
젠더교육 아웃박스,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서해문집, 2018
최윤정, 『책 속의 어른, 책 밖의 아이』, 문학과지성사, 1997
페기 오렌슈타인, 『신데렐라가 내 딸을 잡아먹었다』, 에쎄, 2013
채라다, ‘드레스를 벗어던진 동화 속의 여성들’, 이대학보, 2005년 5월 9일자

「성평등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의 현황 및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상희(조선대)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아동문학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산해 내는 편견과 차별, 불평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동문학 연구에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역사를 시대순으로 짚어 주신 부분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언급해 주셨듯이 부단한 노력을 거쳐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은 결국 '다른 존재의 삶에 대한 존중과 연대'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들을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현시대의 아동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성평등 관점을 여섯 가지 핵심 쟁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주셨습니다. 구구절절 공감하며 읽다 보니 작품에 등장하는 문제적 인물이 어른인 경우(다, 라, 마)와 어린이인 경우(가, 나, 바)에 각각 주목해야 할 지점이 상이하며, 어느 정도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양육자 또는 비중 있는 조력자로 등장하는 어른 인물은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고정된 성역할, 통념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존재로 묘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 어린이 인물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체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고 있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고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외모 평가와 강요된 자기 검열을 당당하고 거부하는지, 나아가 토론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어린이 인물의 경우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까지도 제대로 된 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 그 밖의 사례'로 구분하신 두 작품이 좀 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른/어린이 인물의 구별이 아동문학 작품의 창작자 입장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최근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를 둘러싼 논란을 접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편협한 아동관이 팽배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담론의 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사회단체와 행정기관에서 성평등 교육과 아동문학 교육 사이의 관계 형성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일 것입니다.
더 이상 퇴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문학 현장, 학교 현장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말해도 괜찮니? - 유럽 청소년

문학이 고민하는 성과 사랑의 문제」 라는 글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해외의 성평등 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차별을 감각하고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과 동일한 체온을 가진 인간으로서 연대하도록 돕는 것은 한 편의 동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마지막 문장에서 아동문학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발표문의 논지를 오독하였다면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문한 제게 과분한 기회를 주신 학회와 발표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소설

발표: 오세란(공주교대)
토론: 강수환(인하대)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소설

오세란(공주교대)

목 차

1. 문제제기
2. 남성-되기의 서사와 여성 인물 대상화
3.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4. 성범죄가 드러나는 방식
5. 결론

1. 문제제기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Your body is a battleground). 미국의 페미니즘 미술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가 1987년 자신의 작품에 사용한 타이포그라피 문장이다. 여성의 몸은 각종 담론의 격전지이다. 바바라 크루거가 당시 저 문구를 사용한 까닭은 여성의 임신 중단과 관련된 사안 때문이었지만 현재는 여성과 관련된 각종 담론에도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우고 대우하고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심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그 자체가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형태화된 몸이다. 따라서 여성의 몸의 역사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몸이란 결코 자연적이지 않으며 권력과 정체성의 지형도 또는 권력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지형도이다.[22] 이른바 한국사회에서 미투 운동이나 탈코르셋 문제, 임신중단과 같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사회를 반영하는 문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문학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청소년소설에서 여성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성인지감수성과 젠더론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첫째 남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어떤 양상으로 등장하는지 정리하려 한다. 남성 청소년 성장서사는 청소년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사회화되는 과정을 그린다. 근대 남성 성장서사에는 근대의식으로 바탕으로 ‘남성-되기’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입한다. 즉 성장의 목표를 청소년에서 남성으로 삼을 때 남성이 되기 위해 대타적

22) 심영의, 「전쟁문학이 여성의 몸을 사유하는 방식」, 『민주주의와 인권』(180) 전남대학교 5.19연구소, 2018, 3, 70면.

존재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는 여성 청소년들을 오랜 동안 '소녀'로 호명해왔다. 소녀는 단지 성별과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소녀 표상은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본고는 청소년소설에서 여성 청소년이 겪는 성과 연관된 주제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한국사회는 성범죄의 기준과 범주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소설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문학일지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독자에게 올바로 인식시켜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23]

본 논문의 선행논문으로는 선주원[24]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여성 청소년의 몸에 대한 인식이 남성적 시선에 가두어져 있음을 밝히는 한편 성폭력으로 희생된 여성 인물이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여자 청소년의 몸과 성에 관한 주제라는 점에서 본고와 공통점을 갖는다. 본고는 선행논문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남성과 사회의 시선을 포함하고자 한다. 즉 남성인물이 여성의 몸을 규정하는 시선 그리고 사회와의 역학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폭력의 치유양상을 연구한 음영철, 진은경의 논문[25]이 있다. 이 논문은 3편의 청소년소설을 통해 성추행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초점을 맞춰 자기 치유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해와 사랑으로 비로소 극복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선행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청소년소설에서 그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문학 논문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입장에서 학교현장에서 남성, 여성 청소년들에게 페미니즘을 교육한 실천 사례에 관한 김수자의 석사논문[26]도 살펴보았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의 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생각과 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모은 논문을 통해 본고의 주제인 청소년소설의 인물과 서사를 유의미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

2. 남성-되기의 서사와 여성 인물 대상화

2010년을 전후로 남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청소년소설은 명랑소설의 형식으로 가볍게 주제를 드러내면서 여러 갈등을 겪고 사회화의 목표에 도달하는 구성을 취한다. 주인공은 최종적으로 남성-되기의 과업을 달성한다. 이때 여성 청소년인물과 만들어내는 다양한 에피소드 역시 주제를 위해 활용된다.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역시 남성 청소년의 성장을 무겁지 않게 그려낸 명랑소설이다. 소재는 다양하지만 해결 방식은 본격 리얼리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형식의 작품들은 책과 가깝지 않은 청소년 대중을 독서로 끌어들인다는 효용성을 측면이 강조되어 왔

23) 김수자, 「학교 현장에서의 페미니즘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43호), 2019. 5, 9, 98면.
24) 선주원,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여자 청소년의 몸과 남성적 시선, 그리고 몸의 주체성」, 『청람어문교육』(71호), 2019, 9, 30, 7-31면
25) 음영철, 진은경,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폭력의 치유양상 연구」, 『동화와번역』(24집), 2012, 307- 330면.
26)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석사, 2018)

다.[27] 이 시리즈는 2009년 3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가 출간된 이래 2020년 5월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 까지 총 7권이 출간되었다.[28] 이중 본고는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고민, 외모 때문에 차별 당하는 세상에 날리는 네 번째 하이킥'이라는 광고 문구로 소개된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고정욱, 애플북스, 2015) 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 주로 여성의 외모와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성 인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이지만 주로 재석이의 입장에서 초점화되는데 이때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① 재석이는 곰곰이 생각했다. 수경이는 왜 그렇게 채린이를 미워했을까. 여자의 미움과 질투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더라도 그런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독자들도 수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재석은 그런 심오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재간이 없었다. 그저 여자이기 때문에 질투한다고밖에 쓸 수가 없었다.(97면)

② "야,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을 먹는대."
"글쎄 말이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지? 달기만 한데."
"당분이 몸에 들어가면 뇌에서 화학성분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봐."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먹다가 살쪄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여자들 아니냐?"
"맞아, 맞아. 킥킥!" (119면)

③ "나는 혼자 공부하고도 대학에 갔거든. 의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자애다 보니까 나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 꾸미고 만지고 하느라 시간 뺏기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고, 몇 번 야단도 쳤는데 사춘기라 그런지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아."(133면)

위의 예문에는 "여자들은 어떠하다"라는 명제 형식이 반복된다. 이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고 서로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성 주체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한다. '여성은 질투한다',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을 먹는다', '여자는 외모를 꾸미면 성적이 떨어진다'와 같은 문장에는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들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는 기존 통념에 기대어 서술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문장들을 통해 남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구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남성 -되기의 방식은 여성은 어떠하다는 명제를 모아 그것을 소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배제된 것들은 주로 인간적 단점으로, 최종적으로 여성적 특징으로 모아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열등한 여성', '여성에 대한 무시', '여성 위의 군림'을 통해서 가능하다[29]는 사회학의 결과와 일치하는 서사 전개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는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임에도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은 도

27) 오세란, 「닫힌 담론에서 광장의 이야기로」, 『문학사상』(573호), 2020, 7, 46면.
28)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2009),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2012),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2014)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2015), 『까칠한 재석이가 폭발했다』,(2017), 『까칠한 재석이가 결심했다』(2019),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2020)가 있다.
29) 김수자, 앞의 논문, 50-51면.

리어 여성인물의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① “이쪽에 예쁜 여학생들은 누군가? 여자친구?”
“예. 제 여자친구입니다.”
(중략)
“요즘 고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예쁘니?”
“보담이가 우리 학교 얼짱이에요.”
“음 얼짱 될 만하다. 굉장히 예쁜데?”
눈을 찡긋했다. 그런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했다. (54면)
카메라는 꺼내 박태원은 아이들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특히 보담이 사진은 수십 장을 찍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넌 참 예쁘다. 어느 각도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는구나.”
보담이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재석의 가슴 속에서 약간의 질투심이 끓어올랐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담은 박태원이 하자는 대로 표정과 포즈를 지어 주었다. 향금은 발랄한 표정을 많이 지었다.
“음, 향금이 너는 발랄한 매력이 있구나.”(55면)

② “그런데는 무슨 그런데야. 그런 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그걸 잘 가꾸고 키워야 할 때라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외모만이 아름다움이라고 강요해도 꿋꿋이 주관을 가져야 해. 많은 사람이 똑같은 미의 기준을 갖고 아름다워지려 하고,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은 외면한 채 외모만 가꾸려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136면)

①번 예문은 남성 인물들이 여성 인물의 외모를 평가하는 장면이고 ②번 예문은 남성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장면은 남성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며 인물은 자신들의 분열적 언술에 무감하다. 이는 언뜻 이중적 태도로 보이지만 남성인물들은 여성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외모지상주의를 ‘맨스 플레인’의 방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는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수렴된다.

남성 청소년이 주인공인 또 다른 청소년소설 『식스 팩』 (이재문, 자음과모음, 2020)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강대한의 성장기다. 이 작품은 남성성의 상징인 철인 경기와 식스팩 복근, 초등학생이나 부는 악기로 여겨지는 리코더, 남학생의 취미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꽃꽂이 등을 다루며 편견을 없애자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구도가 도리어 식스팩 대 리코더, 식스팩 대 꽃꽂이 등 또 다른 이분법을 가져 온다. 리코더를 불던 강대한이 철인 경기를 완주하는 결말은 전형적인 ‘남성- 되기’의 서사이다.[30] 또한 강대한의 성장을 위해 그가 주변인물을 보호하는 의리와 강한 카리스마도 첨가되는데 대표적으로 후배 제혁과 여학생 장윤서를 괴롭히는 무리를 무찌르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강대한이 호감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여성 청소년 장윤서가 등장한다. 강대한의 성장에는 약자인 장윤서를 괴롭히는 패거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

30) 오세란, 「‘청소년소설다움’을 넘어서」, 『창비어린이』, 2020(여름호), 157-158면.

한다.

“넌 또 뭔데 참견이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러지 말고”
“다문화 맞네.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있잖아. 거지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일걸?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 있잖아.”
“으 냄새 날 것 같아, 넌 저런 애랑 사귀라면 사귈 수 있냐?”
“장난해? 드럽게 누가 다문화랑 키스를 한다고, 토할 것 같아.”(197면)

이 장면은 서사의 전체적 구성 차원에서 주인공 강대한이 장윤서가 겪는 사건에 뛰어들어 여성인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려졌다. 그러나 주인공의 선행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폄하가 여과 없이 노출되며 다문화 여성 청소년의 폄하에는 특히 성적인 언어 추행까지 동반된다.[31] 장윤서를 주체로 볼 때 다문화 여성 청소년에 대한 혐오 문제가 강대한의 개입으로 해결되거나 극복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강대한을 위해 여성인물은 대상화된다.[32]

레비나스는 주체의 주체성, 즉 주체가 주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고 말한다. 즉 주체가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짐을 지고 섬기는 가운에 주체의 주체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33]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성찰없이 타자를 대상화하면서 형성되는 주체성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허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강대한과 장윤서 그리고 또다른 남학생인 인물인 정빈과의 삼각관계로 전개되는데, 장윤서와 정빈이 사귀면서 강대한은 실연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뭔데?”
막상 입을 열자니 긴장이 됐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물어볼 기회는 없다. 오늘 꼭 물어봐야 한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장면, 그것을 꼭 물어봐야 한다.
“윤서랑..... 키스해 봤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빈은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다.
“진짜?”
아니라고 해 줘, 제발! 그러나 녀석은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마무리했다. (중략)
“그래 키스나 해라. 더러운 놈.”
“뭐? 더, 더러운 놈?”
“이 치사하고 더러운 놈아.”(214-215면)

위의 예문과 비슷한 장면은 기존 청소년소설에서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남학생들 간에

31) 참고로 문학에서 타자에 관한 불가피한 혐오 표현들은 단순한 재현의 방식이 아닌, 뚜렷한 계산 아래 대항 표현이나 인물의 반성적 인식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다움’을 재현하는 상징이 실재 현실에 개입해 다양한 차이를 차별적 질서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폭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관계에 기초한 현실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무관하게 비윤리적이다.”(송수연, 「다문화시대, 아동문학과 재현의 윤리」, 『창비어린이』, 2014(겨울호), 195면)
32) 오세란, 앞의 글, 157-158면.
33)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75면 참조.

나누는 흔한 대화에 속한다. 그러나 면밀히 분석해보면 여학생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성들끼리 여학생의 사적인 행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 또한 강대한은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키스를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더럽다'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강대한은 '더럽다'라고 2회 발화하는데, 두 번째의 '더럽다'는 '치사하다'와 연결되지만 첫 번째 나온 '더럽다'는 키스 행위와 더러움을 연결한다. 강대한 자신이 꿈꾸던 장면을 친구가 먼저 시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온 이 표현은 누가 이 키스 행위를 선점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남성인물의 성장을 위해 여성인물이 도구화되고 있다.

『변신 인 서울』(한정영, 사계절, 2020)은 카프카의 「변신」에서 모티프를 가져 온 작품이다. 카프카의 작품에서 '변신'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더니즘적 장치라면 이 작품에서 '변신'은 주인공이 자신의 악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만들어낸 판타지이다. 남성 주인공 반희는 어느 날 아침 토끼로 변신하여 눈을 뜬다. 작품에서 반희는 토끼가 됨과 동시에 과거의 특정한 기억도 소거된 상태다. 서사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그것은 자신이 성적 때문에 수지라는 여학생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이다.

수지는 스커트가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허옇게 보였고, 속옷이 보일 듯 말 듯했다. 어깨 한쪽은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자주색 가방이 지퍼가 열린 채 구석에 패대기쳐져 있었다.
뭐야, 이건?
갑자기 입속에 침이 말랐다.
"안 돼! 이러지 마. 뭐 하는 거야?"
"안 되긴, 무슨. 사진만 찍자는데, 왜 이래? 야야, 됐어, 됐어."
아까 소파 밑에서 들렸던 목소리였다. 아니,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새꺄, 속살을 찍으라고. 가슴 쪽 말이야. 좀 더 가까이서."
그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수지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수지는 넘어진 채 뒷걸음질했고, 한 손을 내저었다.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이미 뺨에는 눈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했다. 그에 상관없이 카메라는 수지의 한쪽 어깨 가까이 다다랐고, 그 탓에 젖가슴 언저리가 드러나 보였다.
"그만해!"
수지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웃음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104-105면)

또한 반희가 범죄를 사주한 이유는 부모가 주인공에게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반희의 부모는 반희가 잘못된 생각과 행위의 원인제공자였으며 그러한 범죄를 알고 난 뒤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범죄를 덮으려는 데에 열중한다. 결국 반희가 토끼가 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의 도피 혹은 징벌의 은유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토끼가 된 후로도 자신이 벌인 사건에 대한 반성적 자의식은 찾기 힘들다.

그냥 공부 못 하게만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그런데 너 이렇게 해서라도 1등해야 하는 거냐? 가만 보면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야비할 때가 있어. 그치? 캭캭!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민규였다. 놈은 반희가 건네준 돈을 세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는 놈의 주둥이를 당장에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반희는 참았다.

그나저나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너네 꼰대는 알고 있냐? 네 아빠 말이야. 반희는 받아쳤다. 시끄럽고! 너 같은 놈들은 몰라. 1등을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와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알아? 1등 해 본 적 없지? 이런 부탁했다고 친구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마.(137면)

위의 예문은 반희의 사주를 받고 수지의 영상을 찍는 민규의 생각과 반희의 대응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희의 1등에 집착하는 삐뚤어진 생각이 그의 인성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물의 '도덕성'이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낮은 도덕성, 즉 '타락한 인물'을 통해 독자가 거리를 두고 인물을 비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남성 인물의 타락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작품은 변신 판타지라는 설정으로 인하여 여성을 대상화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나 해결을 보여주지 못한다. 주인공 반희는 토끼가 되면서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언어를 갖는다는 것, '나'를 발화함으로써 하나의 언어 체계를 자기 담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발화자를 주체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다. '나'를 발화하는 주체는 언어의 주인으로서, 자기 이외의 '대상'들을 자기 언어로 포착하여 묘사하기[34] 때문이다. 반희의 내면만 서술될 뿐 언어를 자기 담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반희의 상황 때문에 반희는 진정한 반성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작품에서 누나인 반지에 의한 강요로 발생하는 반성의 의미 또한 모호하다. 여성인물에 대한 범죄를 다룬 작품이지만 여성인물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한 서사적 역할은 부족하다.

요약하자면 남성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청소년소설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위치 지워 가르치려고 하거나 여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상화하거나 남성인물의 내면을 그리는데 치중하면서 여성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반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인물을 타자화하고 있다. 여성인물을 타자화하여 형성되는 남성-되기는 건강한 주체성라고 하기 어렵다. 남성/여성의 관계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한국문학이 '소녀'의 일상을 포착하여 감성과 규범, 사랑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성, 사랑, 결혼의 통합'으로 정의되는 낭만적 사랑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전후의 또 하나의 화두로서 새 사회 건설의 주요 기제여서 소녀의 탄생과 함께 고찰해야 할 대상이다. 전후 예비여성시민으로서의 소녀는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구상 및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모-처 이전의 연령대를 설정하여 현모양처라는 젠더규범을 분리, 세대별로 구분지어 현모양처 규범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현모양처 규범 '이전'의 규범을 세대별로 새롭게 정형화하여 온전한 현모양처에 도달케 하는, 여성에 대한 일종의 통치 수사학이었다. 시민사회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소녀(상)의 탄생, 소녀 규범의 탄생, 현모양처 규범의 재편과 더불어 형성되었다. 예비 여성시민으로서의 소녀는 근대 국가 형성과 관련된 순결 규범, 애정 규범, 미적 규범의 대상 및 주체가 된다.[35]

34)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78면 참조.

이중 순결규범은 소녀의 신체를 결혼까지 순결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기능하는 규범을 뜻한다. 소녀는 '사용이 금지된 몸의 주인'으로서, 우량한 국민을 재생산하고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즉 이상적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소녀의 신체를 결혼까지 성적으로 순결하게 유지하는 규범이다.[36] 사회 통념 상 순결 규범이 작동하면서 순결한 육체를 강조하게 되면 스스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비롯하여 성폭행을 당한 피해까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가시화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육체를 훼손' 당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된다.[37]

「나의 첫 여자친구」(『버진 신드롬』, 박경희, 2019, 블랙홀)는 탈북민 여성 청소년인 설화가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이야기이다.

"(생략) 청소년 여러분의 몸은 백합처럼 깨끗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할 성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편의 영상을 본 뒤, 심층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사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아이들은 더욱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무어라 투덜대는 말이 나오기도 전 불이 꺼지고 바로 영상이 나왔다. (209-210면)

예문에서 성교육 동영상과 강사의 발언은 매우 문제적이다. '백합처럼 깨끗해야 한다'는 발언은 195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지속된 소녀의 순결을 강조하던 성 관념과 일치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관습과 규범,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을 '윤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윤리적 폭력'은 도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폭력이며, 최악의 폭력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권리는 물론이고 인격까지 몰수당하기 때문이다.[38] 작품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어처구니없다"(210면)는 반응을 보이지만 동영상까지 시청한 후에는 순결을 잃게 된 여학생의 울고 있는 장면에 충격을 받는다.

온 화면이 하얀 칼라 꽃으로 가득했다. 신부의 드레스보타 더 하얀 꽃더미 위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서로의 몸을 탐하는 듯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잠시 후 순백의 칼라 꽃이 붉게 물들어가는 장면이 느리게 클로즈업되었다. 곱고 우아하던 꽃더미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일그러진 꽃을 든 여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다.
어둡던 강당에 불이 켜진 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다. 학생들 모두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중략)
"여러분의 몸은 칼라 꽃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불장난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210면)

35)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 연구』(14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10, 208-211면 참조.
36) 김복순, 앞의 논문, 212면.
37) 한편 '소녀'표상은 일종의 남성주체가 만들어 낸 판타지의 산물이다. 소녀의 몸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세된 몸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적인 판타지로 가득한 몸이다. "홍조띤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순진하면서도 고결한 몸이며, 감상적인 소녀 표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낭만적 사랑의 연기자이기도 하다. 즉 소녀가 육체적인 특성으로 표상되지만, 그 육체성이 근대 윤리나 사랑의 이름으로 봉합되면서, 소녀 표상에 내재한 강력한 판타지가 역으로 소녀를 기호화한다. 근대 주체는 배제나 포섭과 같은 방식으로 타자들을 구성했지만 소녀의 경우 허구성을 생산하면서 이루어졌다. 즉 주체의 판타지를 타자의 몸에 허구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오히려 타자성의 흔적조차 지우며 타자를 구성해 내는 것이다.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근대 소녀의 타자성 형성을 중심으로」, 『어문학』(제97호), 2007, 286-287면.
38)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11면 참조.

성교육 동영상의 내용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두 여성 인물 몽희와 설화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성교육 동영상의 교육 목적 중 하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성폭행 후속 조치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동영상 메시지는 성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비극적 결과를 강조하면서 왜곡된 성관념을 답습한다. 작품 속 성교육 동영상이 작가의 취재에 의한,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동영상이든,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 장면이든 동영상은 순결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에서 오래 이어져 내려 온 순결규범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동영상이 비판 없이 작품 내에서 묘사된다. 성문제 중 성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며 이들 몸에 흔적을 남긴 성폭력의 은폐된 기억은 후유증을 남긴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치유가 있어야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치유는 가능해진다.[39]

이 작품은 성폭행 희생자인 두 여성인물의 치유도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탈북자인 설화가 한국 도착 전 겪었던 성폭력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공해야 하지만 올바로 제시되지 않으며 현재진행형으로 사건을 겪고 있는 몽희의 경우에도 이것을 해결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엄마와 재혼한 남자가 엄마만 없으면 날 만졌어. 만져선 안될 곳까지 전부 다 만졌어. 만지고 더듬더니 어느 날부턴, 더러운 몸으로 내 위에 올라왔어. 반항하면 엄마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난 참았어. 엄마가 죽는 게 싫어서, 엄마 때문에 참았어. 그런데....."(중략)
말을 하다 말고 몽희는 꺼억꺼억, 소리 내어 울었다. 몽희가 울자 설화도 그제야 숨통이 트인 듯 울음이 쏟아졌다. 예쁜 입으로 험한 말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아 더 슬펐다. (214면)

작품은 성폭행의 경험을 공유한 두 여성 청소년이 친구가 되어 손을 잡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러한 결말은 두 인물이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제한적인 의미만 있을 뿐 청소년독자에게 성폭행에 따른 트라우마의 극복이나 성폭행 범죄의 대처 등 정서적 측면이나 정보 차원의 해결을 주지 못한다.

「언니가 죽었다」(『빡빡머리 앤』, 특별한서재, 2020, 김선영)는 오래 전 언니가 당한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어머니와 언니의 고통을 지켜 본 어른(엄마)의 1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다. 오래 전 언니가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딸에게 안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엄마와 현대 사회의 젊은이를 대표하는 딸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내 말이 끝나자 주연이 따지듯 물었다.
"이모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사고 같은 거 아니야? 교통사고 같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렇게 부끄러운 사회였다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더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62면)

작품 속 서술은 대부분 기성세대인 엄마의 입장에서 발화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

39) 음영철, 진은경, 앞의 논문, 326 면.

간 동안 젊은 여성이 성범죄 피해에 이어 겪은 이중, 삼중의 문제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 작품이 현대 청소년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청소년독자에게 성폭행의 결과를 끔찍한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만들다. 성폭행은 피해자은 잘못이 아니고 은폐할 이유가 없으며 범죄의 처벌이 중요하다는 현재의 보편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시선, 타자화된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기성세대의 시선만이 강조된다. 서사에서 시선은 가치를 유발, 창출하기도 하며, 가치를 위협, 살해하기도 한다.[40] 지난 시절 내려오던 성폭행에 대한 시선, 즉 피해자를 타자화하는 시선을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성범죄에 대한 방향을 가로막는 일이며, 새로운 가치의 의미를 무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2018년을 기점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래 '스쿨 미투'를 포함하여 미성년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폭력 사례가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소설은 새로운 담론을 창출해야 한다. 여성 성폭력의 문제는 피해자를 타자화하는 담론의 전쟁터이며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 사회의 권력의 시선이 작동하는 현장이다.[41]

한편 「햄스터와 나」(『소녀를 위한 페미니즘』, 자음과모음, 2019, 이진) 는 1인칭 시점의 작품으로 주인공이 전 남자친구와의 예상치 못한 성관계 이후 생리가 늦어지자 임신이 아닐까 걱정하는 단편이다. 주인공은 만약 임신일 경우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를 예상하며 갈등하고 고민한다. 유사한 주제의 다른 작품과 이 작품의 차별점은 여러 갈등과 변수 중에 임신 중단, 즉 낙태를 고민한다는 점이다.

여자인 나도 이런 상황에 빠져들기 전에는 임신과 낙태에 관해 거의 아무 것도 몰랐다. 하물며 남자인 서민준한테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내가 걔랑 결혼 같은 걸 한 사이도 아닌데 뭘 어쩌자고? 두 배로 불어난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아프게 후려쳤다.
불공평해. 나는 이미 세상에 태어나 16년을 살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가 더 불쌍하고 더 소중하게 여려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해. 하지만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제일 친한 친구인 주영이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었다. 자기 실수로 임신했거나 했을지도 모르는 여자 고등학생에게 허용된 감정은 단 하나, 죄책감뿐이었다. (81면)

지금까지 임신을 소재로 출간된 청소년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임신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니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결말은 문학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임신을 소재로 한 청소년소설에서 출산한 미혼모 이야기는 나오는 반면 낙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여성 청소년에게 사회의 당위적 윤리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몸의 변화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여성 자신에게 있다.[42]

---

40) 김복순, 앞의 논문, 227면.

41) 김수자, 「학교 현장에서의 페미니즘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2019.5, 98면.

42) 2010년대 초에는 여러 단체들과 진보정당 등이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임신중단이 재생산의 '권리'에 포함됨을 주장하였고,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촉발된 페미니스트들의 세력화에 힘입어 2016년 이후 '검은 시위'가 시작되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질적 전환을 맞았다. 이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낙태죄의 '완화'를 넘어서,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를 실현하라는 목소리가 전면화되고 있다. 여론의 변화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김정혜,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 연구』(19),

살아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여자니까,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건 이유는 하나뿐일 테지.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으니까. (85 면)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임신 중단'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임신 중단과 출산 중에 어떤 결정이 옳다는 당위성을 떠나 다양한 해결방식을 보여 주는 용기 있고 솔직한 문제작이 필요하다.[43] 이 작품은 기존 청소년소설에서 임신 후 여성 인물의 갈등과 미혼모 문제 등 '출산'을 전제로 한 작품과 비교할 때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 사례라고 하겠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오랜 성규범으로 인하여 여성청소년은 자신의 몸을 타자화해 왔으며 현재 출간되는 청소년소설에도 그것이 여전히 재현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의식 속에서도 오랫동안 여성 성규범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청소년소설이 성인작가의 청소년독자를 향한 발화라는 점에서 작가의 성인지감수성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4. 성범죄가 드러나는 방식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변화했다. 그럼에도 성범죄가 드러나는 방식이나 성범죄가 노출된 뒤에 벌어지는 다양한 2차 피해와 가해의 양상은 성범죄의 범위나 기준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아직까지 제각각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소설은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4장에서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넘어서는 명백한 성범죄를 개별 작품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넌 괜찮니」(『빡빡머리 앤』, 특별한서재, 2020, 이상권)는 대학교수인 아빠가 제자인 대학원생을 성폭행했다는 사건을 전해 듣게 된 딸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주인공은 친구들과의 여행 중 오빠에게 갑자기 걸려 온 전화로 이 사건을 전해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빠 혹은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가해자인 아빠에 관한 내용이 서술된다.

① 어느새 오빠는 자기 특유의 냉정함을 되찾았고, 또박또박 아빠가 당신 제자인 대학원생을 성폭행했다는 상황을 나한테 전달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만취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183면)

② "(생략) 황 교수님은 최근 미투 사건이 연달아 터졌을 때도 언론에다 미투를 지지하는 글도 많이 기고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하고 몇 번이나 검색해보고 또 해보고…."(186면)

③ 아빠는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도 젊어 보였고, 생각하는 것도 젊은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꼰대 교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아빠가 그렇게 늙어가기를 바랐다. 가끔은 그런

2019, 4, 4면.
43) 오세란, 「타자의 이야기를 듣다」, 『창비어린이』, 2017. 12, 167면.

아빠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187-188면)

이 작품은 아버지의 성범죄로 괴로움에 처하게 된 어느 가정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지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아빠에 대해 평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범죄를 축소 전달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진 채로 성폭행 사건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 작품에서 예문의 진술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제목 '넌 괜찮니'는 가해자의 딸인 주인공에게 묻는 질문이다. 즉 가해자에게도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음이 이 작품의 주제로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소재로 다룬 청소년소설이라면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볼 때 '넌 괜찮니'라는 질문은 작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먼저 건네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이며 동시에 개인을 넘어선 권력의 문제다. 학교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권력 위계가 작용한다.[44] 따라서 대학교수인 가해자와 그에게 피해를 당한 대학원생 피해자간 권력 위계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청소년독자가 성폭력이 단순한 개인적 폭력이 아닌 권력에 의한 구도임을 작품을 통해 성찰해 나갈 수 있다.

「다섯 명은 이미」(『알바 염탐러』, 마음이음, 2019, 문부일)는 여주인공이 멀티 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불법 동영상이 있다며 익명의 존재로부터 협박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그 사이에 숨어 있던 경찰들이 나타나서 녀석을 체포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언니가 꼭 껴안았다.
"난 잘못 없어. 다 오현아가 시킨 거야!"
녀석이 소리치며 경찰차에 올랐다. (중략)
"몰카 동영상은 없고, 시험을 망치게 하려고 현아가 그놈한테 오만 원을 주고 거짓 협박을 시킨 거래."(152면)

정민주는 사귀던 오빠와 멀티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후 멀티 방에서 찍힌 불법 촬영 영상이 있다는 익명의 협박을 받게 된다. 협박을 받고 괴로워하던 정민주를 돕는 주변인물이 나타나고 정민주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협박자에게 사실 불법 촬영물은 없었으며 그 협박은 바로 같은 반 오현아가 시험 성적을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진술을 듣게 된다. 그러나 작품은 주인공이 동영상이 없다는 점에 안심하려던 다시 반전을 일으키며 마무리된다.

"시내에 있는 핑크 멀티방? 9월 말?"
경찰이 주변 눈치를 보며 가까이 다가 왔다.
"최근 신문 기사 못 봤어? 며칠 전, 핑크 멀티방 알바가 구속됐잖아."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알바생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한 동영상을 외국 사이트에 팔았고 이번에 꼬리가 붙잡혔다는 수사 보고서였다. 수십 건의 동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돌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차례였다고

44) 김수자, 앞의 논문, 98면 참조.

한다. (중략)
멀티방에서 음료 쿠폰을 받으려고 나도 이벤트에 응모했다. 문득 SNS 쪽지가 떠올라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음담패설로 가득한 쪽지가 또 와 있었다. 발신자를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벌써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나를 흘낏거리던 남자 후배들, 그리고 동영상 삭제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154-155면)

작품은 불법 촬영 동영상은 없었지만 같은 반 여학생의 오현아의 사주로 협박이 벌어졌다는 반전과 실제 동영상은 존재하며 이미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주인공이 알게 되는 두 번의 반전이 반복된다. 단편소설에서 반전은 독자를 집중시키는 중요한 전략이지만 이 작품에서 두 번의 반전은 모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장면은 성적을 위해서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같은 반 여학생이라는 점이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의 주모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통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반전인물이 누구냐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불법 영상 촬영과 유통이라는 범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희석된다. 두 번째 반전인 불법 동영상은 존재하지만 주인공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이야기가 끝나는 결말은 이 사건의 향방을 독자에게 들려 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불법 동영상을 외국 사이트에 판 범인은 구속되었지만 이미 영상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열린 결말로 제시해 놓는 것은 청소년 독자에게 이 일의 본질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여러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범죄 역시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유통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동영상의 촬영과 온라인 상의 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나타나야 한다.

역시 성범죄를 소재로 한 「아는 사람」(『샹들리에』, 창비, 2016, 김려령)은 피해청소년화자의 1인칭으로 서술된다. 과외를 받는 주인공 '나'가 같은 그룹의 남학생에게 과외 교습소인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한다. 남자 과외 선생도 범죄에 동참한다. '나'는 과외를 그만 둔 여학생들도 같은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현장 사진이 고스란히 남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사진들을 빌미로 그들은 입막음의 협박을 시도한다.

"엄마....."
"어디야?"
"맥도날드 옆.....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 힘이 없어."
"맥도날드로 들어가. 엄마 지금 간다."
나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왜 엄마 목소리가 목이 맨 것처럼 들릴까. 저 짧은 대화에서 엄마는 뭘 알아냈을까. 엄마가 오고 있다. 엄마가 오면 나는, 엄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기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떡할까. 엄마가 오면 엄마 손잡고 도망칠까. 그래도 살아 나왔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오늘이 망각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위로를 품고 모르는 척 숨죽여 살아야 할까. 엄마는, 아빠는, 오빠는 내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아프다. 전화기의 잠긴 화면을 풀고 천천히 다이얼을 눌렀다. 112. 나도 내가 별것 아닌 것 안다. 그러나 내 몸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안다. 별것인 극소수인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권리가 아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생생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인간을 함부로 짓밟은 저 악마들을 봉인해야 한다.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어도 어떤 일에서 먼저 나가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다행히 경찰도 내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했다. 그리고 놈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000 오피스텔 0000 호, 고등학생 남자 하나, 서른 초반 남자 하나 있습니다. 휴대전화부터 압수해 주세요. 네, 지금 가야 합니다. 빨리....."
너는 끝났지? 나는 시작이다. (97-98면)

성폭행 피해자의 1인칭 시점으로 재현된 이 작품은 청소년주인공이 자신의 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는 서술을 통해 인물의 각성과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 주체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장면, 신고 후 경찰의 대응 등을 통해 성범죄를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시해준다.

요약하자면 성범죄를 소재로 한 청소년소설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소홀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일지라도 청소년독자가 읽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서사나 진술이 필요하다.

5. 결론

최근 여성혐오, 젠더폭력, 성차별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젠더감수성교육, 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평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 현장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45] 미디어나 웹툰과 같은 대중 매체의 성인지 감수성 또한 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청소년소설은 어떠한가?

본고는 첫째 남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에서 여성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며 근대 남성 성장서사에서 근대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남성-되기'는 남성성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방식이나 보호자의 위치로 여성인물을 대상화하거나 자신이 행한 잘못에 정당한 반성과 대가를 치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는 여성 청소년들을 오랜 동안 '소녀'로 호명하면서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청소년소설에서 성관계나 성범죄를 다룬 여러 작품 중에는 아직까지 여성의 몸을 순결과 훼손이라는 타자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한국사회는 성범죄의 기준과 범주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청소년소설에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작품에 따라 성범죄의 문제가 집중되지 못한 채 소재에 머물러 미흡하게 정리 되었으며, 문학일지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독자에게 올바로 인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젠더적인 측면에서 여성 청소년인물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쉽지 않았다. 현실을 그리되 현실을 넘어서는 모색을 하는 것이 소설의 본령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45)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석사, 2018), 113면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길러내야 하며 고통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분리하고, 그 사건과 공존하는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46]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집단이나 개인이 저마다 자신을 약자나 저항의 주체로 프레임화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마다 약자가 된다. 바야흐로 약자의 시대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의 위치는 자의적 주장이 아니라 맥락을 따라 살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강자와 약자는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성평등의 문제 역시 남성 대 여성이라는 단순한 일반론이 아니라 각각의 관계 및 맥락을 살펴 타자화되어 있던 소수자를 주체화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뿐 아니라 '맨박스'의 틀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주체의식을 억압당하며 왜곡된 남성성을 강요받는 남성 청소년의 정체성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젠더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소설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6) 심영의, 앞의 논문, 95 면 참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고정욱,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 애플북스, 2015
김려령, 「아는 사람」, 『샹들리에』, 창비, 2016
김선영, 「언니가 죽었다」, 『빡빡머리 앤』, 특별한서재, 2020
문부일, 「다섯 명은 이미」, 『알바 염탐러』, 마음이음, 2019
박경희, 「나의 첫 여자친구」, 『버진 신드롬』, 블랙홀, 2019
이상권, 「넌 괜찮니」, 『빡빡머리 앤』, 특별한서재, 2020
이재문, 『식스 팩』, 자음과모음, 2020
이진, 「햄스터와 나」, 『소녀를 위한 페미니즘』, 자음과모음, 2019
한정영, 『변신 인 서울』, 사계절, 2020

2. 참고문헌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석사, 2018)
김수자, 「학교 현장에서의 페미니즘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2019.5, 94-125.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 연구』(14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10, 203-234.
김정혜,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 연구』(19), 2019, 4, 3-49.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근대 소녀의 타자성 형성을 중심으로」, 『어문학』(제97호), 2007, 267-290.
심영의, 「전쟁문학이 여성의 몸을 사유하는 방식」, 『민주주의와 인권』(18) 전남대학교 5.19연구소, 2018, 3, 69- 103.
음영철, 진은경,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폭력의 치유양상 연구」, 『동화와번역』(24집), 2012, 307-330.
송수연, 「다문화시대, 아동문학과 재현의 윤리」, 『창비어린이』, 2014(겨울호), 192-209.
오세란, 「타자의 이야기를 듣다」, 『창비어린이』, 2017(겨울호), 164-177.
오세란, 「'청소년소설다움'을 넘어서」, 『창비어린이』, 2020(여름호), 142-162.
오세란, 「닫힌 담론에서 광장의 이야기로」, 『문학사상』(573호), 2020, 7, 42-55.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김애령, 『듣기의 윤리』, 봄날의 박씨, 2020.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2009.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토론문: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소설」을 읽고

강수환(인하대학교)

선생님의 발표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무심히 넘겨왔던 청소년소설 속의 재현들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논지에 공감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공진하 선생님은 「혐오 표현은 대항 표현과 함께: 아동문학 속 혐오 표현 톺아보기」(『창비어린이』 2019년 봄호)라는 글을 통해 특히 동화 속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의 재현이 어떤 문제들을 노정해왔는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란 선생님의 이번 글은 그러한 렌즈를 청소년소설 위에 비추어 본 시도처럼 읽혔습니다. 두 글 모두 사회적 규범 차원의 논의를 동시대의 문학 작품 속 표현/재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공명하는 점이 있는 듯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든 몇 가지 소고를 적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대신하려 합니다.

1. 앞서 언급했듯, 선생님의 글과 공진하 선생님의 글은 모두 사회적 규범을 렌즈 삼아 문학의 표현/재현들을 점검하는 시도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저는 이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다분히 사회적입니다. 작가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고자 한들, 모든 작품은 인공물이므로 작가의 의식을 거쳐 철저히 의도적으로 선택(또는 배제)된 언어들의 구성 집합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언어의 한계란 곧 작가가 발 딛고 선 세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사회는 단일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다양한 힘들의 연결과 길항 위에서 구축됩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규범은, 어떠한 '지향'을 내재한 채, 수시로 내용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물음이 듭니다. 규범은 늘 현재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새롭게 내용을 소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인지 감수성과 내일의 그것은 상이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작품은 발표되는 순간 그 내용이 고정됩니다. 작품의 언어는 당대의 사회적 산물로서, 언어의 한계 속에서 주조된 구성물로서 바뀌지 않은 채 시공간을 넘어 읽히게 됩니다. 이 경우, 규범적 개념으로 문학을 분석하는 시도는, 이 작품이 특정 시기의 사회 규범에 비추어봤을 때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흔히 문학은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동시대의 감각으로는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도래할 것/지나친 것을 지금의 언어로 재현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해당 문학이 (지금의 규범과 조화하는) '제시간'에 온 것인지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규범이 합의를 목표로 한다면, (근대) 소설은 그러한 합의의 실패 속에 놓인 개인의 이야기일 텐데요. 문학 분석의 틀로 어떤 사회적 규범의 렌즈를 동원했을 때, 그것을 문학적 성취와 관계 지어 분석/비평할 수 있는 독법은 가능한 걸까요.[47]

47) 이런 방식의 분석에는 흔히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사회적 규범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품의 특정 대목이 비판될 수 있을 뿐이지, 공진하 선생님의 표현처럼, "작품 자체의 성취나 완성도와는 별개의 이야기"(위의 글, 59~60쪽)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사회, 문화적 분석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작품 분석에서 "작

다소 넓고 추상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 역시도, 작품의 재현이 동시에 어떤 목소리를 배제/은폐하는가를 밝히는 데에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2장에서 특히 '남성-되기'의 서사를 위해 각각의 작품이 '여성(적인 것)'의 기호를 어떻게 대상화하고 가치 절하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청소년소설 속 남성-청소년의 주체화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새로운 주체(화)의 서사들을 창안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되기'의 맞짝으로는 아마도 '여성-되기'라는 어떤 주체화의 방식을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되기'란 사실상 '소녀-되기'의 방식, 즉 '남성-되기'가 열등한 것으로 대상화된 여성의 기호와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지듯, "순결과 훼손"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비-소녀의 기호를 자신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성되어왔다고 주장하신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을 통해 주조된 주체화의 방식일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앞으로 청소년소설이 지향해야 할 젠더 차원의 주체화 방식은 어떤 형상이어야 할까, 하는 물음입니다. '00-되기'란 말씀해주셨듯 보통 '00이 아닌 것'을 자신으로부터 소거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되어왔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항에 놓인 각 존재를 비록 평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들, 내 안으로부터 00이 아닌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00 또는 비-00의 내용을 미리 규정하고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구분의 경계를 흐리고 확대한들 근원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성별 모델로서의 젠더 구분(비남성적인 것/비여성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체화에 있어서 이러한 젠더-사회적 구분 자체를 폐지하고,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만을 남기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하면 이 역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 마지막은 선생님의 글을 읽고 든 생각을 적어본 것인데요. 4장에 소개된 「다섯 명은 이미」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적인 대목은 이미 선생님께서 쓰셨다시피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을 열린 결말로 둠으로써 "청소년 독자에게 이 일의 본질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영상의 촬영과 온라인 상의 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었다면, 이 문제가 보완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압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작가의 태도였습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위협이 되고, 인터넷에서 성폭력이 버젓이 이루어지며, 주변인들의 시선이 암묵적으로

품 자체의 성취나 완성도"에 대한 미학적 판단은 직간접적으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원되는 규범적 논의의 틀과 문학의 미학적 성취/가치를 이원화하는 것이 아닌, 양자를 관계 짓는 비평/분석의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폭력에 가담하는 상황, 이것들은 모두 자연 현상이 아닌 철저히 여성혐오적 문화에 기초하여 인공적으로 발현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남성(중심문화)들의 이 촘촘한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마치 자연적이거나 문법화된 공포 소재인 양 간단히 동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 작품이 제안해주신 내용을 보완하더라도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 혹은 오히려 더욱 주인공이 느끼는 공포와 불행한 상황만을 외설적으로 집중하는 식으로 악화되지는 않을까 저어됩니다. 문학을 읽고, 청소년 주체가 성폭력을 둘러싼 현실에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폭력에 대해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정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폭력의 구조 속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비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비출 때에야, 우리는 심지어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이 표하는 괴로움'이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향한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대응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잡지 『동시마중』을 통해 소통되는 창작의 경향성 분석

발표: 염창권(광주교대)
토론: 이향근(서울교대)

잡지 『동시마중』을 통해 소통되는 창작의 경향성 분석

염창권(광주교대)

목 차

1. 들어가며
2. 편집 체제와 편집위원의 구성
3. 수록작가와 작품의 경향성
4. 작품 미학적 평가 기준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한국의 현대문학에서 근대적 기점 논의는 여전히 출판 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대적 출판문화의 도입과 함께 매체 언어로서 '읽기 텍스트'의 출현은 이전의 향유 방식과 큰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로써 문화적 소통과 향유 양식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수반되었고, 잡지의 태동과 활자본 책의 보급과 더불어 문학 양식이 사회의 주요한 문화적 단위로 확산되었다. 출판과 문학 양식의 활성화의 불가분성은 우리나라 근대적 잡지의 효시이자 출발기의 형태인 『소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최남선이 발간한 잡지의 발행 시기를 살펴보면『소년』이 1908년 11월부터 1911년 5월까지, 『붉은 져고리』가 1913년 1월부터 6월까지,『아이들보이』가 1913년 9월부터 1914년 8월까지, 『새별』이 1913년 9월부터 1915년 1월까지, 그리고 『청춘』이 1914년 10월부터 1918년 9월까지 발간되었다. 이 중에서 『소년』과 『청춘』은 가장 대표적인 잡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발간된 3개의 잡지도 『소년』에서 『청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근대를 향한 일관된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 다시 말해 최남선이 잡지나 신문 등의 매체에 수록한 문학작품들을 고찰해보면, 당대에 필요한 근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48]

위의 인용을 토대로 했을 때, 출발기의 어린이문학 잡지는 교양과 문식성 교육, 그리고 이야기류의 흥미를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고전을 소개하거나 초보적인 형태의 창작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의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내포독자를 미성숙한 어린이독자로 설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잡지는 대개 다양한 형태의 글을 묶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계몽적이고 형태적으로는 종합지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비해 성인문학은 그 등장이 늦었으나 전문적인 작가의 동참으로 인해 문학에 대한 특수한 장르의식을 담보할 수 있었고, 문학사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시 잡지의 성격이 강했고, 대표적인 경우가 『시문학』이다. 종합

48) 전용숙, 「1910년대 최남선 잡지 서사의 근대적 가치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2015, 3면.

문예지의 형태로는 『문장』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잡지는 장르별 수용의 방식에 따라 종합문예지와 갈래별 전문잡지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문단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전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소설 전문잡지, 극 전문잡지, 영화 전문잡지 등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소설, 극, 영화 등은 종합문예지에 시와 더불어 통합적으로 소통되어 왔다.

시대를 훌쩍 건너뛰어, 21세기 현재 발간되는 시전문지는 『현대시』, 『현대시학』, 『시와시학』, 『시인동네』 등을 비롯하여 수십 종에 이르고, 정형시인 시조 전문지도 『시조시학』, 『정형시학』, 『좋은 시조』, 『시조21』 등을 비롯하여 10여 종에 이른다. 물론 시전문지에는 자유시와 정형시(시조), 동시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편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혹은 대부분을 자유시 위주의 편집 양식으로 고착된 경우가 다수이다.

성인문학의 잡지 발간에 비해 아동문학에서의 잡지 발간은 영성한 편이다. 이는 '아동독자'와 '성인작가'라는 이중적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잡지 편집에서도 이러한 이중말하기의 층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아동독자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어린이잡지와 아동문단의 성인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전문잡지로 구분되어 발행되어 왔고, 독자의 수준에 따라 양자가 교차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문학에서 성인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문예지 성격의 창작전문잡지로는 『창비어린이』, 『아동문예』, 『아동문학평론』 등이 있다. 이들 잡지는 계간으로 발행되어 성인 혹은 아동문학작가를 대상으로 교양, 어린이 문학론, 작품 발표 지면 등을 제공한다. 물론 이중말하기가 가능한 아동문학의 특성상 일부 글들은 어린이독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독자층은 아동문학 작가나 교육자들이다.

한편으로, 어린이문학에서 동시 전문잡지로 발간되는 것으로,『동시마중』과 『동시 먹는 달팽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시마중』은 격월간으로 발행되면서, 우리문단의 역량 있는 동시 작가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발표되는 작품들은 동시 창작의 한 경향성을 형성하며 동시문단에 파급력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잡지를 통해 소통되는 문학적 형식, 어린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교육적 추구 등은 현 문단의 창작활동, 갈래의 유지와 발전, 교육 분야에 대한 파급력 등의 측면에서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동시전문 잡지들 중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동시마중』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우리 동시단의 현재를 점검하고 잠복된 이데올로기를 찾아내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아동문학과 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 중에서, 문학의 현재와 지향점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잡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발행된 잡지 연구에 국한되어 왔다. 이는 아동(어린이)문학 발생기적 형태를 재구성하고, 문학사적 업적과 공과를 점검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아동문학사 기술에 기여하는 바 크다. 이

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재철(1982), 박지영(2005), 박현수(2005), 박진영(2010), 권혁준(2012), 전용숙(2015), 김영순(2017) 등이 있으며, 1970년대의 경우 아동독자를 대상으로 한 순수 어린이 잡지에 대한 연구로 최성일(2010), 강경수(2017) 등이 있다. 반면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잡지에 대한 비평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문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평적 관점이나 노력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문단의 비평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동작가들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창작이나 소통의 일면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상의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동시마중』의 편집 형태와 발표 작품의 분석, 비평적 논의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갖는 창작의 경향성과 작품 평가에 작용하는 비평적 심의경향 등을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편집 체제와 편집위원의 구성[49]

1) 『동시마중』 편집 체제

최근 동시 전문 잡지들이 속속 창간되고 있는 것은, 우리 현대문학사를 통틀어 특기할만한 일이며, 동시 갈래 및 작품에 대한 독자군, 작가군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이들 잡지 가운데, 2010년 5월에 창간되어 2020년 7·8월호 현재 통권 62호를 내보낸 『동시마중』이 가장 앞선다. 이밖에도 2018년 봄에 창간된 『동시 먹는 달팽이』[50]와 2019년 봄에 창간된 『동시 발전소』[51] 등의 계간지는 앞의 잡지를 뒤따른다. 이들과는 일정 부분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2016년 7월에 발간된 『한국동시조』[52]와 2017년 10월에 발행된 격월간 웹진 『동시 빵가게』[53]와 2018년 봄에 창간된 계간 『동시YO』[54]가 있다.

---

49)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본 텍스트는 2018~2019년에 발행된 잡지 12권이다.
『동시마중』, 도서출판 동시마중, 2018년 47~52호(격월간 6권)
『동시마중』, 도서출판 동시마중, 2019년 53~58호(격월간 6권)
기타: 2017년 11·12월호(46호)까지 발행된 것과 2020년 현재까지 발행된 4권은 특별히 언급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만 참조한다.

50) 게시판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계간 『동시 먹는 달팽이』는 좋은 동시를 발굴하고 다양한 동시 담론을 생산함으로써,/한국동시문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8년 봄에 창간 예정인 동시전문지입니다." 신작동시 발표란에는 『동시마중』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작가의 순서는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이다. 비평적 필진은 두 잡지가 구분된다.

51) 게시판의 소개글은 접속할 수 없으나, 『동시 발전소』에 글을 쓴 비평적 필진 몇 사람은 『동시마중』의 주요 활동 멤버라는 점에서 두 잡지간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시조 전문지로, "아이들이 동시조를 보다 쉽고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아동문학가가 쓴 동시조, 어린이/청소년이 쓴 동시조 작품을 함께 수록"한다.

53) 격월간 동시 웹진 『동시 빵가게』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동시 빵가게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동시웹진입니다. 누구나 빵을 먹듯이 동시를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54) 게시판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시인들이 쓴 동시와 어린이가 쓴 시/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쓴 시까지/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가 노래로 담기는 잡지입니다." 예를 들어, "김미혜의 같이 살자……눈같이 맹감같이·손동연 시|박우진 곡 10면(2018 여름호)"과 같이 동시의 동요 즉, 요(謠)화 운동이며, 총 페이지도 36면 분량이다. 이 잡지는 "혜암아

이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동시마중』과 출판의 형태가 유사한 잡지는『동시 먹는 달팽이』, 『동시 발전소』 등이다. 즉, 신작 발표, 관련 행사, 작가 소개, 비평적 글 등이 상호 교차되는 구성을 보인다. 앞의 신작 동시 발표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텍스트의 경우에는 독자 참여, 편집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비평적 활동으로 채워지는바, 이 부분에서 잡지 간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달라진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동시마중』의 편집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과 같이 두 달 단위로 연속되는 격월간 형태이다. 이 가운데 연말에 발행되는 11·12월호는 그해 발표된 대표작 선집이므로, 특별한 편집의 방향성이 개입되지 않는다. 나머지 5개호의 목차에 나타난 편집 내용은 매호 시리즈 형태로 반복된다. 그 가운데 내용이 비교적 풍성한 5·6월호를 3개년 연속 횡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작 발표>

① 잡지의 표제와 같은 '동시마중'은 신작 동시 발표 묶음이다. 이곳에서 20여명의 40편 내외의 작품 발표가 이루어진다.

② 멀티텍스트 형태로 발표된 작품에는 홍성지의 '쭈쭈 이야기', 길상호의 '길·냥이의 그림그리기', 이지유의 '왼손 그림', 백창우의 '동시와 놀다' 등이 있다.

<비평 및 작가 참여>

③ 2019년 제3회 '동시마중 작품상' 관련 내용 특집이 수록되어 있고(2020년 제4회), 이와 관련된 심사평, 수상소감, 발표작, 신작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와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1·2월호에 수록된 제1회 '권태응문학상' 특집이다. 2019년 1·2월호에는 격년제로 열리는 '전국 동시인대회'의 특집도 포함되어 있다.)

④ 비평적 형태의 글은 발표작, 출판물, 관련 행사 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머리말, 동시와 나, 내 작품을 말한다, 발언대 발언, 맘대로 고른 윤○○ 동시, 텍스트에서 찾은 동시, 격월평, 편지: 시인에게, 릴레이 동시 이야기: 동시 톡톡, 김제곤의 자료로 읽는 동시사' 등을 통해, 이 잡지가 갖는 비평적 태도와 평가 기준을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자료로 읽는 동시사'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공간에서 제출된 논평적 글을 자료로 제시하고 가치 평가를 덧붙인 메타비평이다.

<독자 참여>

⑤ 독자 참여 공간은 '동시랑 놀자, 지난호 동시 퍼즐, 편지: 시인에게' 등이다.(다른 호에 게재된 '유강희의 손바닥 동시 한 편, 어린이 시, 교사 독자의 감상 평' 등은 독자의 참여공간에 담당 시인의 지도적, 평가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①~②의 항목은 순전히 신작 동시나 멀티텍스트 형태의 작품 발표의 공간이다. ③~④의 항목은, 비평적 혹은 소통적 글쓰기 형태를 보여주며, 글의 형태도 특정 갈래의 양식에 구속됨이 없이 복합 글쓰기 형태로 나타난다. ⑤의 항목은, 독자와의 교류나 참여의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①을 제외하고는 갈래를 넘나드는 글쓰기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 잡지의 성격이 작가의 발표 및 소통 공간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독자를 향해 열린 체제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표현 형식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동문학회"에서 주관하는 작곡 중심의 동인지적 성격이 강하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들의 등단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의 편집위원은 “② 시와 동시” 두 부문에 당선되거나 “③ 동시집” 간행 등으로 동시단에 발을 들여놓은 모습으로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동시 등단’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 문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① 동시” 부문 당선의 경우이나, 『동시마중』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의 편집위원이 본지 출신이라는 점에서 출발기 이후에 합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분 (등단 형식/기준호)	① 동시	② 시 + 동시	③ 시 + 동시집	계
2017. 7·8월호	3	1	3	8(명)
2020. 7·8월호	3	2	4	9(명)

<표 1> 『동시마중』 편집진의 등단 형식(편집인 1 포함[55])

따라서, 『동시마중』 초기의 편집 방향은 다수인 ②, ③의 배경지식을 가진 편집진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시와 동시 간의 경계 지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동시 갈래가 지닌 특수성에 관한 전환기적 재개념화의 노력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본다.

> 김이구의 선구적 평론 <해묵은 동시를 던져 버리자>가 그렇다. 발표된 지 7년이 흐른 지금, 그가 제기한 ‘동시단의 4무(無) 현상’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본다. 돌이켜 보건데 동시단의 지난 7년은 그의 비평이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귀결되는 과정이었다.(…) 김이구의 비평을 읽지 않고서 2010년대 동시단의 변화발전 양상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56]

위의 인용은『동시마중』의 편집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안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방향성은 본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타자와의 소통”의 측면을 제기했을 때, 성인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미학적 성취를 담보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시와 변별되는 동시문학의 특수성을 확보해 내는 등의 이중의 추구 목표가 제기된다. 특히 “김이구의 비평을 읽지 않고서 2010년대 동시단의 변화발전 양상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강한 동조를 보이는 만큼, 그가 말하는 4무(無) 현상[57]의 해소에 편집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창비 어린이』, 『문학동네』 등의 메이저급 출판사의 기획에

55) 이외에도 편집인과 동일하게 고정 꼭지를 운영하는, “쭈쭈 이야기”(미술) 1, “동시와 놀다”(작곡) 1의 다매체적 글쓰기, 그리고 평론 1 등의 3인을 포함하면 12인이 고정 편집진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56) 이안, 「다음호에 계속 -첫 번째」, 『동시마중』 2019년 5·6월호, 139면.

57) 여기서 4무(無)는 동시문단에서 부족한 것으로 선언한 김이구의 평론에서 비롯되는데, “시적 모험”, “자기 작품을 보는 눈”, “비평다운 비평”, “타자와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김이구, 『해묵은 동시를 던져 버리자』, 창비, 2016, 228-231면.

의해 구체화, 촉발된 면이 없지 않다. 즉 작가의 발굴과 출판 기획은 기존 동시단의 암묵적인 관습을 넘어선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동시단의 타자였던 시인 혹은 출판 기획자들에 의해 주도된 동시집 시리즈 발간은 기존 동시 작가들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신춘문예나 문예지 등단의 코스 외에도, 출판사에 의한 적극적인 작가 발굴, 출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문예지 출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 배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 2007년 안도현 시인이 첫 동시집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실천문학사)을 출간한 후 아예 문학동네 동시집 시리즈 기획위원으로 나서, 이안 시인의 『고양이와 통한 날』(2008), 박성우 시인의 『불량꽃게』(2008) 등 동시집 시리즈를 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문단 안팎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습게도 당시엔 어처구니없게도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하될 만큼 공과(功過)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적 완숙도가 높은 기성시인들의 동시집 간행은 침체된 한국 동시의 발전에 자극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기성시인의 이름에 기댄 상업적 기획의 남발로 상투적인 동심주의, 계몽주의적인 동시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다.[58]

이러한 시기에 시적 감수성과 함께 동시갈래에 눈을 뜬 시인들에게도 발표지가 필요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수의 시전문지를 거쳐 온 시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과 몇 편의 동시가 수록되는 아동종합문예지의 현실은 참여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다. 폭발적인 시전문지 시대를 통과하면서 충족된 작품 발표의 욕구가 동시전문지의 필요성으로 이전되는 것과 함께, 21세기형 동시전문지인 『동시마중』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 『동시마중』의 편집진은 동시 작가이자 비평가 및 편집자라는 복합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59] 이러한 공동체적 편집 참여 방식은 작품 생산과 비평적 활동을 일원화함으로써 잡지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일종의 에콜(école) 혹은 비평적 방향을 명백히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산자 집단이 동시에 비평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동류의 목소리에 갇히거나 지배당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 호에는 모든 편집위원들이 꼭지 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새로 생긴 꼭지가 무려 세 개나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선 송찬호 시인이 '육필 신작 동시와 산문'으로 반가운 인사를 해주시고요, 송진권 시인의 '어떤 것'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신민규 시인이 자신의 특기이자 장기를 발휘하여 마련한 EDM 꼭지도 독자 여러분의 눈길을 확 사로잡을 것입니다.[60]

위의 '머리말'은 편집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당호의 잡지의 구성 내용과 편집 의

58) 김륭, 「발언 대 발언: 동시는 연애다, 라고 말할 때의 풍경들 – '동심의 연애사' …나 그리고 당신 몸이 기록한 마음의 '유적지'」 부분, 『동시마중』 2018년 3·4월호, 152면.

59) "편집위원: 김륭, 김준현, 송진권, 송찬호, 신민규, 이안, 장철문, 정유경, 미술: 홍성지, 편집부: 김경진, 윤정미, 디자인: 송승훈, 글씨·북디자인: 김환영, 교정: 김경진, 김준현, 송진권, 신민규, 윤정미, 이안, 정유경, 발송: 김경진, 송선미, 이안, 편집인: 송선미"(2020년 7·8월호) 등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편집진은 이 잡지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다. 광고를 싣지 않고, 정기 구독과 편집진의 참여에 의존하는 등의 자족적인 형태를 통해 경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잡지를 지속 가능케 한다.

60) 정유경, 「머리말: 행복한 까치들이 되어」 부분, 『동시마중』 2019년 7·8월호, 10면.

도를 소개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눈길을 확 사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에서 보듯, 꼭지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안내하고 있다. “꼭지 글”은 논평이나 독자와의 소통, 서평 등에 해당하는 파라 텍스트이다. 그만큼 다품종의 파라 텍스트가 뒤섞여 있는 것이 이 잡지의 특색이다. 이는 편집위원들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살려 용이하게 잡지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동시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야기의 초점을 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록된 글의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동시 전문잡지와 어린이잡지가 가진 편집 형태의 중간 지점에 있다. 전적으로 작가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지도 않고, 어린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도 아니다. 아동문학이 이중독자(dual readers)를 수용해야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어중간한 지점이 『동시마중』의 현실이다.

3. 수록작가와 작품의 경향성

1) 수록 시인들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하위양식으로 시(자유시), 시조(정형시), 동시 등을 언급할 때,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모두 시인이라는 명칭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적 풍토에서는 시인, 시조시인, 아동문학가와 같이 명명한다. 이러한 분류 개념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특성 있게 설명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하위 갈래의 형식이 작가의 행위를 구속하게 되어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직업공동체의 생산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은 『동시마중』의 대표적인 필진 중의 한 사람인 김륭의 발언이다.

> “시와 동시를 함께 쓰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동시단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고여 있는 물처럼 평화롭길(?) 원했던 일부 동시인들의 반응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인시를 쓰는 시인들은 왜였을까. 우습게도 그 이유는 ‘유치하다’는 것이었다.”[61]

논지는 두 가지 형태의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데, 하나는 동시인들이 보이는 기존의 틀 고수이고, 다른 하나는 시인들이 갖는 동시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의 태도이다. 논지는 동시에 있어서 작품 미학적 기준이나 소통 방식의 변화가 당연히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가 내포할 수 있는 심오성, 심미성 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소 고양된 어조를 보인 것은, 논자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피력으로 보인다.

이번 가을에는 윤제림(≪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문학동네), 김륭(≪첫사랑은 선생님도 1학년

61) 김륭, 앞의 글(『동시마중』 2018년 3·4월호), 153면,

≫ 창비), 정유경(≪파랑의 여행≫ 문학동네), 김개미(창비), 송현섭(문학동네), 함민복(문학동네) 시인의 동시집이 잇따라 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동시집으로 우리 동시는 몇 개의 풍경과 깊이, 내면을 새로이 갖게 되겠지요. 굳이 나눈다면 정유경만이 동시단 내부이고, 윤제림, 김륭, 김개미, 송현섭, 함민복은 시와 동시를 함께 쓰는 시인이지요.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 오갔던, 시인들의 동시 쓰기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는 일찌감치 불식되거나 무용해졌습니다. 내적 성장과 외적 수혈 사이의 균형과 긴장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가꾸어 갈 방향 중 하나일 겁니다.[62]

같은 편집위원인 이안의 윗글은 앞의 김륭의 글과 동일한 논조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단의 외적 수혈에 해당되는 시인들의 동시집 발행이 주요 출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작품 역시 일정한 시적 성취에 값한다는 평가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마중』에 수록된 작가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에만 전념하는 작가들과 시와 동시를 겸하는 작가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아동문예지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시(자유시)에서 지명도를 확보한 시인들이 동시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러한 차별성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등단/수록지)	① 동시 -	② 동시 + 시, 동화	③ 시, 동화 외 + 동시집(노래집)	④ 시 -	계
2018. 5·6월호	14	4	3	2	23명
2019. 5·6월호	9	6	3	2	20명

<표 2> 「동시마중(신작 발표)」 수록 작가의 등단, 발표 형식

동시에 전념하는 작가들의 비중은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다매체적인 글쓰기를 보이는 작가의 비중이 1/3 정도인데 이들도 동시로 등단하거나 동시집 출간 등과 같이 상응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④ 시'의 경우는 드물지만, 시를 쓰다가 동시를 발표하게 된 경우로 출판 기획을 담당하는 편집진의 선별적 청탁에 의하거나 투고의 경우 선고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문단의 현실은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동질 집단을 이루는 것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표 2>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시 작가'로 일원화되지 않는 모습과 다매체적 표현 방식[63], 불쑥 등장한 시인들의 작품으로 인해 이 잡지의 성격과 인상을 산견시키고, 통일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동시마중』의 주요 필진들이, 성인시와 동시를 함께 쓰는 비중이 높고 그들이 주요 논쟁적 지점의 글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의미에서 동시를 좋아하는 '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62) 이안, 「머리말: 리을 형께」, 『동시마중』 2018년 9·10월호, 11-12면.
63) 멀티텍스트(복합 문식성)는 아동문학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쇄체 글과 그림의 결합, 손 글씨 동시, 손 글씨 악보, 만화, 글이 포함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이 둘 이상의 표현형태가 결합된 경우이다. 『동시마중』에서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유희성을 강조한다.

다.

2) 수상작 선정에 나타난 비평적 심의경향[64]

최근의 아동문단에서 보이는 어린이상에는 낙천적 유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 세계와 판타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실계의 사물들을 낯설게 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장려한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탈피하여 유희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힘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자본의 교환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낙천적인 측면이며, 성장의 과정 자체를 놀이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희적이다. 이는 성인 세계와 다른 특징적인 국면이다. 그러나 이 유희성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하는 비평적 기준이 작동됨으로써 창작의 경향성을 형성한다고 보겠다.

해당 잡지가 가진 경향성이나 비평적 기준은 수록 작품을 비롯하여, 파라텍스트가 되는 심사평, 격월평, 초대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상작이나 기획 코너에 수록된 작품들의 경우엔 암묵적인 비평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료 작가들을 견인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비평적 태도가 문단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게 되면, '비평적 심의경향(critical turn of mind, critical review trends)'을 형성하여 동시단의 일반 유형으로 따르게 된다. 이는 동시단의 가치 평가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지만, 고착될 경우에는 동어반복의 틀에 갇힐 위험성도 있다.

다음의 두 작품은 편집위원들이 선정한 우수작에 속한다.

①
봄나들이 갔다가
냉이밭을 만난 엄마

호미 대신
자동차 열쇠로 냉이를 캤다

열쇠를 땅에 꽂을 때마다
지구를 시동 거는 것 같다

부릉부릉
지구를 몰고 가는 엄마

우리는 시속 1,667Km 지구 자동차를 탔다
안상학,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 전문[65]

---

64) 비평적 심의경향은 창작적 심의경향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T. S. Eliot가 사용한 것이다. "모든 국민과 모든 종족은 그 자신의 창작적 심의경향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비평적 심의경향(critical turn of mind)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창작적 재능의 단점과 한계를 한층 더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1919); 김윤식,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8, 108-109면.

②
“거북이냐, 너 지금 어디냐?…
딴 애들은 아까아까 다 왔다.”

전화하는 목소리가 하도 커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생겼어요
거북이만 아직 안 오고
딴 애들은 아까아까
다 와서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아이는 전화를 하고, 한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한 아이는 신발 끈을 고치고,
한 아이는 커피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거북이 얘는 언제나
지각이라니까!”

동트는 새벽, 국립공원 매표소 앞
등산복 차림의 할아버지 넷이
거북이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윤제림,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전문[66]

①, ②글 모두 행위자는, 어린이의 눈에 비쳐진 성인이다. 즉 행위의 주체는 성인이고 이를 논평하는 관점은 어린이 화자의 몫이다. 어린이화자의 논평적 시점에서 성인들의 유희적 행동을 해석한 글이다. 이들 작품에 대한 논평은 심사평을 비롯하여 『동시마중』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는 매끄럽다.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간 점이 돋보였다.(김준현, 송진권, 송찬호, 신민규). 엄마와 봄과 지구의 삼각형이 신선하게 다가온다(정유경)는 평가를 받았다. 완결성이 높으나 모범답안 같다(김륭, 송선미, 이안)는 의견도 있었다.…… 수상작은 행과 행, 연과 연의 전환이 매우 시원시원하고 해석의 겹 또한 풍부하다. 호미 대신 자동차 열쇠, 냉기 캐기 대신 지구 시동 걸기, 자동차 모는 속도보다 더 빠르고 즐거운 냉이 캐기의 쾌감으로 시상을 잘 몰아갔다. 아귀가 꼭 들어맞는데도 답답하지 않은 활기가 느껴지는 건 이런 전환의 기운이 생동하기 때문이다.[67]

②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윤제림 시

65) 첫 발표 때는 “1,777㎞”로 표기되었으나 수상작에서 “1,667㎞”로 표기된 것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상학,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 『동시마중』 2018년 3·4월호, 51면. ; 제2회 동시마중 작품상(2018) 수상작: 안상학,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 『동시마중』 2018년 5·6월호, 14면.

66) 윤제림,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동시마중』 2018년 1·2월호, 56-57면; 제2회 권태응 문학상(2020) 수상시집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의 표제작.

67) 제2회 동시마중 작품상 심사위원(편집위원 8인), 「심사평」, 『동시마중』 2018년 5·6월호, 16-18면.

인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그려냈다. 요즘 아이들 삶과의 교차점이 덜한 듯하다는 아쉬움(정유경)이 표명되기도 했다.[68]

윤제림 시인의 동시는 말하자면 어린이 독자에게 머무르려는 관성과 어른 독자로만 달려가려는 편향을 동시에 극복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독자를 시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69]

위의 두 편 모두 『둥시마중』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아 발표 지면을 얻은 문학상의 수상작이다. 두 사람 모두 시단에서 지명도가 있는 시인이다. 동시를 쓸 때 어린이상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이중독자를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쓸 것인가는 작가의 선택에 따를 것이다. ①의 경우에는 '어린이상'이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어 행위 주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로 읽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②의 경우에는 인간이 가진 '어린이적 속성'을 들여다보는 다소 유머러스한 성인시로 읽어도 틀리지 않는다. ②를 동시로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거북이"와 같은 어린이다운 모습을 전경화시켜야 하고, 성인 내부에 깃든 유희적 친구관계를 어린 시절로 되살려내어 의미화하는 다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린이 독자가 이 시를 읽는다면, 할아버지들의 행동에 내재된 아이들 모습을 확인하고, 친근감이나 동질성과 함께 성인세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성인시이자 동시이며, 이중독자 모두에서 소통 가능한 형태의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①은 어째서 처음부터 동시라고 판정할 수 있는가. 작품의 주요 모티프는 "자동차 열쇠"로 지구를 시동 거는 것이다. 지구를 시동 걸어 "시속 1,667Km"로 날아간다는 상상은 판타지이며, 이 판타지 세계에 몰입하여 충족되는 대상은 어린이들이다. 행위 주체는 "엄마"이지만, 이러한 판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유희적 상상력에 의해서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타지적 상상력에 고무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편집위원들의 비평적 기준을 추론해 보면, 첫째가 발상의 참신성이다. 둘째는 비유적 탁월성이다. 셋째는 의미전개의 논리성이다. ①은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통해, "자동차"와 "지구" 간의 유비 추론에 의한 비유적 대응관계를 이룬다. ②는 "할아버지 넷"의 어린이다운 행동 묘사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적 특질을 발견해낸 것으로, 발상의 새로움이 주목할 만하다.

4. 작품 미학적 평가 기준

다른 문예지와 마찬가지로『둥시마중』에서도, 우수작에 대한 평가적 반응은 표지4의 손 글씨 동시, 격월평, 서평, 작가 혹은 작품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된다. 이와 같은 선별적인 우수작 소개는 본지가 지지하는 창작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68) 제2회 동시마중 작품상 심사위원(편집위원 8인), 「심사평」, 『동시마중』 2018년 5·6월호, 17면.
69) 김제곤·남호섭·신새별, 「제2회 권태응문학상 심사평: 동시부문」, 『동시마중』 2020년 1·2월호, 81면.

징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발상의 참신성, 비유의 탁월성, 의미전개의 논리성” 등이 작품의 내용(story)에 관련된다면, 이를 형상화하는 문체상의 효과, 어휘, 구문 선택 등은 시적 표현 기교인 담론(discourse)에 해당된다. 즉 내용과 표현 간의 일치에 관한 비평적 기준이 또한 필요할 터인데, 이는 평가자가 취하는 암묵지(暗默知) 형태로 나타나기에 쉽사리 이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서는 『둥시마중』에서 주요 발표작으로 거론된, 동시와 아동시 몇 편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작품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찾아 구조화해 보기로 한다.

1) 놀이의 해석

놀이는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인 동력이다. 놀이는 흥미와 등가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이나 학습 역시 흥미를 바탕으로 삼는다. 성장기의 궁금증은 자연발생적으로 흥미를 가져오는 요소이다. 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탐색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궁금하기 때문이며 궁금증 해소는 놀이의 일환이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돌아와 시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시 속의 놀이는 허구화된 놀이이자 해석된 놀이이다.

놀이를 진술하는 과정이 담론(discourse)에 해당된다면, 해석된 내용은 스토리(story)가 된다. 놀이의 해석에 있어서도, “발상의 참신성, 비유의 탁월성, 의미전개의 논리성” 등의 비평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①
우리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쎄게 문으로 장난을
쳐서 문은 울었다. 근데 며칠 후 그 아이는
문이 아팠겠다.라고
생각해서 문도 기분이 좋아졌대.
윤승아(제주 영평초 2년), 「문도 사람이다」 전문[70]

②
셋이 앉아서/ 돌아가며
웃긴 얘기를/ 하나씩 하기로 했다

나는 친구와 한 자전거로/ 내리막길 달리다가
자갈밭에 굴러/ 피투성이가 되었던 일을 말했다

유진이는/ 계단에서 아래로 날아 떨어져
턱이 퍼렇게 멍들어/ 수염 난 어른처럼
얼굴이 변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70) 윤승아(제주 영평초 2년), 「문도 사람이다」, 『동시마중』 2018년 5·6월호, 236면.

재민이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그때 다친 발가락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간지럽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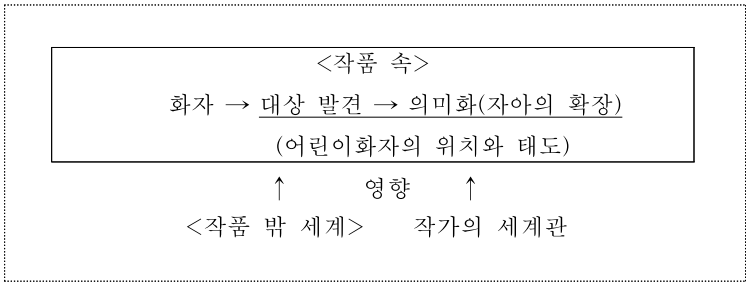
우리는/ 웃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팠던 얘기를 하며 웃었다
문현식, 「그때는 아팠지」 전문[71]

①은 “쎄게 문으로 장난을” 치면서 생기는 일이 글감이다. 문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은 일종의 놀이이다. 어린이화자는 이 놀이를 통해, “우리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와 같은 전제 사항과 함께 놀이의 대상을 의인화 한다. 즉 놀이와 놀이 대상에 대한 해석이다. 곧 “쎄게” 장난을 쳤기에 “문은 울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이 인격화되면서 “아팠겠다”고 생각해주고 나니, “문도 기분이 좋아졌”고 해석한다. 제목 “문도 사람이다”부터 놀이의 대상이 인격화되고, 주체는 놀이를 통해서 대상 세계에 정서적으로 이입된다.

②의 놀이는 웃겼던 이야기가 실은 크게 다쳤던 일에서 나왔다는 반전을 가진 내용이다. 세 명의 어린이가 크게 다쳤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사건의 시간이 객관화되면서 어이없는 실수로 빚어진 웃긴 이야기로 상기되는 것이다. 끝 연에서 웃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즉 “아팠던 얘기를 하며 웃었”지만, “그때는 아팠지”와 같은 깨달음에 닿아 있고, 성장의 일면을 함축한다. 이 시는 “아팠던 일”과 “웃긴 일” 간의 대비를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중첩시킨다.

2) 발견의 은유

작품 속 어린이화자는 성장기 과업을 이행하면서 세계를 향해 자신을 개방해 간다. 대상에 잠재되어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세계에 포섭되면서 자연스레 자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어린이의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는 어린이의 입을 빌려, 어린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세계관을 노정한다.



<그림 1> 작가의 세계관과 동심 세계 구성[72]

71) 문현식, 「그때는 아팠지」 『동시마중』 2020년 3·4월호, 42-42면.
72) 염창권, 「동심론에서 ‘발견/자아확장’의 구조-이준관의 평론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호, 한국국어교육학

대상 세계의 발견은 다시 의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의미의 확장을 위해 비유적 장치가 동원된다. 직유, 은유, 환유, 상징 등의 비유적 수사는 문체 형성의 요소임과 동시에 의미 확장을 위한 기법으로 동원되면서, 작가적 역량을 판별하는 근거가 된다.

①

무궁화 꽃잎은 안쪽이 가장 찐하다//
무궁화 꽃잎을 먹어보니 안쪽이 가장 달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안쪽이 가장 따뜻하다
여하진(서울 미래초 6년), 「안쪽」 전문[73]

②

출생 기념으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서
뱃속 깊은 데다 채워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풀어볼 수 없어요.
이정록, 「배꼽시계」 전문[74]

①은 대상인 “무궁화 꽃잎”을 관찰하는데, 이 “안쪽”의 색이 “가장 찐하”고 “가장 달다”는 것을 발견한다. “안쪽”으로 갈수록 더욱 생생해지는 것을 “내 마음”으로 은유함으로써,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 마음의 안쪽이 “가장 따뜻하다”는 것을 초점화시킨다.

②의 경우는 보다 능숙한 비유의 예를 보여주는데, 흔히 말하는 “배꼽시계”는 배가 고픈 상태로 미루어 식사시간을 맞히는 것을 말한다. 인접성에 의한 비유를 환유라고 하는데, 배꼽은 배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인접성에 의해 하느님이 “뱃속 깊은 데다 채워”주신 “선물”로 의미화된다.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배꼽인 것처럼, 그 시계도 “풀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 세계에 대한 발견은 그대로 발설되지 않고, 비유적 장치를 통과하면서 의미의 겹을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의미의 심화,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상황의 알레고리

시적 상황이 우의적 비유, 알레고리, 혹은 상징으로 읽힐 때, 의미의 확장력이 커진다. 이때 시의 스토리를 형성하는 상황은 하나의 허구적인 사건이다. 즉 단일한 의미단위로 묶인 통일성 있는 허구적 구성물인 것이다.

회, 2013, 401면 참조.
73) 여하진(서울 미래초 6년), 「안쪽」, 『동시마중』 2018년 9·10월호, 158면.
74) 이정록, 「배꼽시계」, 『동시마중』 2018년 1·2월호, 60면.

①
어제 우리 반 화단에 거미가 찾아왔다
어제는 통통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을 낳았다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10Kg 정도 빠지는데
거미 세계에서도 10Kg 정도 빠져서
배가 홀쭉해졌다
장서은(군산 푸른솔초 4년), 「거미」 전문[75]
②
우리 동네 교차로에서
꽝
차가 부딪쳤다
오던 차는 눈알맹이가 빠져서 덜렁덜렁
가던 차는 귀때기가 너널너덜
가던 차 운전수하고
오던 차 운전수하고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가던 차들도 멈추고
오던 사람들도 멈추고
아주 장터같이 구경이 났다

고장 난 차들은 그새 잠이 들었다
김창완, 「차 사고」 전문[76]

①은 화단의 "거미"를 관찰하는데, 통통했던 거미가 알을 낳으면서 "배가 홀쭉해졌다"가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10Kg 정도 빠지는데/ 거미 세계에서도 10Kg 정도 빠"진 것으로 비유된다. 즉 곤충의 세계가 우의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입된 것이다. 상황의 알레고리는 어린이화자에 의해 해석된 의미로 전달되고 있으나, "배가 홀쭉해"진 거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의미화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②는 사고가 나서 부서진 차의 상태와 두 운전수 간의 다툼을 이항대립적으로 보여준다. 사고가 난 차량들은 "눈알맹이가 빠"지거나 "귀때기가 너널너덜"하게 다친 상태이다. 이에 비해 멀쩡한 두 운전사는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아주 장터같이 구경이 났다". 이와는 다르게 "고장 난 차들은 그새 잠이 들었다"와 같이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고 고분고분한 것이 졸음에 겨운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다. 이 시는 고장 난 차와 멀쩡한 운전수를 대립적으로 묘사할 뿐, 해석적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다. "고장 난 차들은 그새 잠이 들었다"고 했을 때, 피곤한 상황에서 잠들거나 쉬고 싶어 하는 얼굴들을 떠올릴 수

75) 송숙 엮음, 『시똥 누기』 ; 송숙, 「동시랑 놀자: 얘들아, 시똥 누자!」, 『동시마중』 2018년 1·2월호, 146-159면.
76) 김창완, 「차 사고」, 『동시마중』 2019년 1·2월호, 35면.

있다면, 이 시의 알레고리가 성립된다. 여기서 빈칸을 채우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능숙한 작가 못지않게 어린이 글의 수준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동시마중』의 편집위원들이 비평적 기준이나 식견을 작동한다면, 동시작가들에게 위에서 인용한 어린이 글쓰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5. 나오며

지금까지를 요약하여 말한다면, 『동시마중』의 추구 방향은 동시의 시적 성취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와 동시를 겸하는 편집진에 의해 주도되는 편향성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일 뿐, 아동문학가도 예술가의 일원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작품 미학적 추구는 불가피한 것이다. 동시 부문에서 심미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 실천적인 예시를 『동시마중』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잡지 『동시 마중』을 통해 소통되는 창작의 경향성 분석’ 에 대한 토론문

이향근(서울교대)

한국의 아동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잡지’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아동문학이라는 특수한 장르의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즐기는 독차층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문학의 소통 주체가 주요 ‘잡지’에서 ‘제도’로 넘어오면서, 21세기 들어 잡지의 영향력은 매우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동문학 중에서도 ‘동시’ 장르는 어린이 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그 입지가 더욱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5월에 창간된 『동시 마중』은 동시단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동시 마중』의 의미를 탐색하여 동시문학의 창작 경향성을 논구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시 마중』을 구독하고 있는 독자로서, 교수님의 발표를 읽고 함께 논의하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시 마중』 발간을 이끈 에너지에 대하여

잡지는 시대의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시 마중』을 창간되도록 이끈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구한말에 잡지는 계몽의 창구였고, 일제강점기엔 ‘모던’이나 ‘이즘’과 같이 당대를 이끌어가는 대중 인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잡지는 신문이나 책과 달리 몇 명의 동인들이 발간할 수 있고 독자의 피드백이 있으면 최소한의 소득으로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동시 마중』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2장에서 편집체제와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언급하시면, 『동시 마중』 발간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추론한다면, 한국 동시단에 대한 비평적 자각이 『동시 마중』을 창간하게 된 주된 동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동시도 시가 되어야 한다’는 1960년대 ‘본격동시 운동’의 인식적 전환과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 마중』이 끌어안고 혁신하고자 했던 당시 동시단의 문학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 『동시 마중』 의 독자층에 대하여

이오덕의 동시론 이후, 동시는 주독자인 어린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선은 이미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무조건 귀엽고 착한 존재로 재현하는 동시는 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말놀이 동시류 역시 어린이가 즐기는 말의 재미에 집중하면서 동심천사주의표 동시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 동시 문학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동시단에 불었던 ‘본격동시’ 운동이 동심천사주의 차원의 동요적 발상과 기교주의에 집중하면서 ‘동시도 시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동시 마중』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아동문학에서 어린이 독자층을 위해 선택하는 언어와 문체의 조절 문제를 미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동시 마중』은 1960년대 '본격동시' 운동과 달리, 어린이 독자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 마중』의 독자 참여 코너인 '동시마중을 읽고'에는 어린이들의 감상평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 감상평을 보내는 아이들은 동시를 매우 진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를 평가하는 눈도 매섭습니다. 이들의 글을 보면, 어른들이 바라보는 관념적인 아동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동 독자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기획도 『동시 마중』 발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지점이 『동시 마중』의 편집이나 창작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960년대 동시단에 불었던 '본격동시'의 변증법적 발전이 『동시 마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난 10년 동안 『동시마중』은 동시단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동시마중』을 통해 능력있는 신진 동시인들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시인은 가수 김창완씨인 것 같습니다. 김창완 시인은 2013년에 『동시마중』으로 등단하고, 작년에는 제3회 동시마중 작품상도 받았지요. 그의 첫 동시집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 (문학동네, 2019)도 매우 흥미롭게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 발행된 동지 전문 잡지들 - 『동시 먹는 달팽이』, 『동시마중』, 『동시 발전소』, 『한국동시조』, 『동시 빵가게』, 『동시YO』 - 등도 『동시마중』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잡지는 그 속성상 부침이 강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이 유연해서 상대적으로 등장과 퇴장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도 있기 때문입니다. 염창권교수님의 발표가 『동시마중』을 비롯한 동시단의 갱신을 위한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 연구

발표: 이근영(전주기린초등학교)
토론: 김정은(서울송전초등학교)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 연구
-『변두리』, 『드림 하우스』, 『나의 독산동』을 중심으로-

이근영(전주기린초등학교)

목 차

1. 서론
2. 도시 공간과 집의 표상
3. 주체의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
4. 공간 이동과 주체의 성장
5. 결론

1. 서론

유은실의 텍스트는 아동문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유은실 텍스트는 동화보다 소설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내면을 밀착하여 보여주는 서술 방식이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열린 결말이나 아이러니 등과 같은 기법들을 텍스트를 읽는 어린 독자들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유은실의 텍스트는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내포독자와 실제독자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어린 독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평가는 『일수의 탄생』을 두고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수의 탄생』은 일수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일수가 삼십 대가 되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다. 이는 일수의 출생부터 자신의 쓸모를 찾아 다시 태어나는 과정까지 일수의 진정한 '성장'을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텍스트의 심오한 의미를 어린 독자들이 과연 작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77]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은실의 텍스트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는 그의 텍스트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린 독자가 텍스트 내의 서술전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텍스트의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텍스트를 읽으며 즐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에 주목하여 텍스트가 가진 매력이 무

77) 『일수의 탄생』은 유은실의 여러 텍스트 중에서 가장 상반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유영진(2014)과 우지현(2014)은 『일수의 탄생』이 작가의 깊이 있는 삶의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한 반면, 여을환(2014)과 조태환(2014)은 독자인 어린이들이 과연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문학성에만 치우쳐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작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엇인지, 텍스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공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적절한 매개체이다. 자본, 곧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간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공간을 지배한다. 또한, 그들은 공간을 분할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간을 빼앗기며 공간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게 된다. 유은실 텍스트에도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권력이 가진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청소년 소설인 『변두리』와 『드림하우스』, 그림책 『나의 독산동』으로, 이들은 텍스트의 장르와 관계없이 텍스트에 형상화된 공간적 표상을 통해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2장에서는 텍스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도시 공간과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공간 표상으로 강조되는 ‘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주체의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 4장에서는 공간 이동과 주체의 성장을 살펴볼 것이다.

2. 도시 공간과 ‘집’의 표상

아동문학 텍스트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집-집 밖-집’의 서사 구조는 주인공이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 갈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두리』, 『드림 하우스』, 『나의 독산동』에 표상되는 ‘집’은 아동문학에서 주인공의 심리적 안정감을 상징했던 ‘집’이 갖는 익숙한 의미와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텍스트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는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이 ‘집’의 표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서 ‘서울’은 산업화와 자본화에 따라 사회적 계층의 위계가 형성되고 도시 공간의 분할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는 주거공간으로 대표되는 ‘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 역시 주인공의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공간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가) 화면 속 여리는 장난감 방에서 논다. 여리에게는 장난감이 가득한 방이 있다. 넓고 환하다. 여리 장난감 방이 우리 집보다 크다. 나는 <슈퍼곰과 함께>가 싫다. 그걸 보면 우리 집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우리 집은 좁고 어둡다. 원래는 방이 두 개인데, 작년에 작은 방 천장 한쪽이 기울어졌다. 언제 천장이 무너질지 몰라서 작은방에선 잘 수가 없다. 작은 방이 멀쩡하던 때가 그립다. 작은방은, 내 방이었는데.

안방엔 조그만 북서향 창문이 있다. 해 질 녘 두어 시간쯤 햇살이 들어온다. 요즘은 그 햇살도 흐릿해졌다. 깨진 유리를 바꿀 돈이 없어 비닐로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벽지에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었다. 보일러는 고장 난 지 오래다. 요즘 같은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우리 여리 땀 흘려서 털이 축축해졌네. 목욕하자."

아빠 곰이 여리를 데리고 욕실로 갔다. 여리네 욕실은 넓고 깨끗하다. 우리 집엔 욕실이 없다. 부엌 한구석에 놓인 목욕통이 욕실이다. 보일러가 고장 난 다음부터 겨울이 되면 씻는 게 많이 불편해졌다. 영하 20도쯤 되는 날에는 아예 수도가 얼어 버린다.

(밑줄은 연구자, 『드림 하우스』, pp. 8~10)

(나)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엄마의 고함, 아빠의 술주정, 낡은 부엌살림, 선짓국 끓이는 냄새, 화장실에 가는 것……. 담 없는 이 집에선 숨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다.

우리 식구가 세 들어 사는 이곳은 원래 차고였다. 차고에 들인 방이라 담이 없고 천장도 낮았다. 나는 아무리 셋집이라도 정호네처럼 담이 부엌문을 가려 주고, 골목을 통해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 데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제대로 된 빵을 타오면 꼬박꼬박 주인집에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오래 머물려고 했다. 딴 데 가면 방 두 개짜리 셋집을 단칸방 전세금에 얻을 수가 없다면서.

(변두리』, pp. 56~57)

(가)는 좁고 어둡고, 천장 한 쪽이 기울어진 작은 방을 가진 주인공의 집과 넓고 환한, 우리 집보다 큰 장난감 방을 가진 여리네 집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계층의 위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밑줄 친 문장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아직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하지 않은 어린 주인공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의 집 역시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주인집의 차고를 개조한 공간에 살아가는데, 차고에 들인 방은 '담'이 없어 '숨길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은 '엄마의 고함', '아빠의 술주정', '낡은 부엌살림', '선짓국 끓이는 냄새', '화장실에 가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사적 생활이다. 이는 '집'이 주인공에게 어떠한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공간임을 알 수 없다. 특히 "제대로 된 빵을 타오면 꼬박꼬박 주인집에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오래 머물려고 했다."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공간을 가진 자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셋집에 사는 가족들의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와 (나)는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도시 하층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 우리 동네엔 아파트가 없었다. 반포아파트로 이사 간 진미혜 생각이 났다. 새로 지은 뉴서울아파트에 상희 언니가 살 수 있다면 그건 그냥 길 건너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었다. 상숙이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일인 것만 같았다. 참나무 군락에 고요히 앉아 있을 때처럼 상희 언니도 거기선 행복할지도 몰랐다.

㉠“무너져야 돼! 무너질 것 같은 집보다 무너진 집이 좋아! 꼭 무너지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더듬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빠르게 또박또박, 횡단보도에서 쏟아 내던 욕처럼.

㉡‘우리 집도 상숙이네 옆에 있으면, 같이 무너지면 좋겠다.’

나는 우리 집이 숲 아랫길에 있는 장면을 떠올렸다. 남루한 모든 것들이 폭삭 무너져 영영 사라져 버리는 상상은 두렵고 짜릿했다. 그리고 이상했다. ㉢둘로 갈라진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 가는 아카시아 가지처럼 각자의 길로 점점 커져 갔다. 도살장이 멀리 가 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만큼, 영원히 아주 멀리 가 버리면 좋겠다는 마음도 커져 버렸다. 아카시아 숲이랑 짬뽕 숲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 만큼, 다 사라져 버리길 바라는 꿈도 꾸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죽을까 봐 불안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밑줄은 연구자, 『변두리』, pp. 160~161)

(가)와 (나)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도시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등장시킴으로써 도시에서 자본에 따라 사회적 계층의 위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서울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공간이 확장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국가는 서울에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거대한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여의도와 잠실에 고급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아파트’는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상승을 보여주는 주거공간 그 이상을 상징하게 되었다.[78]

(다)에 등장하는 ‘반포아파트’와 ‘뉴서울아파트’ 역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주인공은 아파트를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는 세계’이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황룡동 주택에서 뉴서울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것은 ‘그냥 길 건너로 이사 가는 게 아니다’. 도시 주변부에서 도심 내부로 편입하는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아파트’에 대한 동경과 욕망은 밑줄 친 ㉠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갖는 기능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집’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심리적 공간을 상징하였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사회적 위계를 확인하는 과시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과 같이 자신의 집도 무너져서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모두가 욕망하는 새로운 공간에 편입하는 상상이 주인공의 존재적 불안을 유발한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밑줄 친 ㉢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주인공은 ‘서울특별시’ 답지 않은 남루한 모든 것들이 폭삭 무너져 영영 사라져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집’이 사라지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엄마 아

78)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곧 “도시로의 통합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2007: 205)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빠도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집'의 상실은 존재의 불안을 유발한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집'은 인간이 이 세계에서 태어나 알게 된 처음 장소이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곳,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향수에 차서 말하게 되는 곳(G. 바슐라르, 2003; 148)으로, '집'과 '아카시아 숲이랑 짬뽕 숲이 없어진다'와 같은 상상은 주인공에게 자신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장소상실로 경험하게 되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두려움은 작가의 다른 텍스트인 『드림하우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 '우리 집이 <드림 하우스>에 선정됐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눈물을 흘리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공부할 만큼, 간절하게 고급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나흘 만에 우리 집을 정리할 수 있지?'

나는 방을 빙 둘러보았다. 낡고 곰팡이 핀 방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었다. 나는 우리 집 부엌 타일이 어떻게 깨지고, 얼마나 그을었는지 눈감고도 떠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익숙했던 공간에서 나흘밖에 더 살 수 없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드림 하우스』, p. 93)

『드림 하우스』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주는 '드림 하우스' 프로그램에 보름달 가슴곰 가족이 선정되어 새집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는 기적과 같이 <드림 하우스>에 선정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단 4일 만에 자신이 살았던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이때 주인공의 심리는 '어떻게 나흘 만에 우리 집을 정리할 수 있지?'라는 내적 독백에 자세하게 드러난다. 마치 낡고 초라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갖게 되는 것은 주인공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를 빼앗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얼른 버려야 할 낡은 집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자, '익숙했던 공간'으로 실존과 정체성의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79]

(다), (라)는 '집'이라는 장소가 인간의 실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준다. '도살장'과 '아카시아 숲', '짬뽕 숲'이 사라지고, 낡고 곰팡이 핀 방이 무너져버리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난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간직해 온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소 상실이 산업화와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은 사회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즉, 장소 상실이 주인공의 장소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79) E. Relph에 의하면, '집'은 존재의 실존과 정체성의 중심을 상징한다. (E. Relph, 김덕현 외 옮김, 2005: 184)

3. 주체의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

2장에서 도시와 집이 자본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3장에서는 주체의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 정체성은 주체의 자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장소감은 주체가 현실 인식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개인의 존재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E. Relph, 2005: 145) 인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공간은 인간 존재의 무의식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80]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모든 기억은 "장소-지향적이며 적어도 장소-기반적인 성향이 있다"(전종한, 2009: 780)고 할 수 있다. 장소와 기억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기억이 장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은실 텍스트 중에서도 소설 『변두리』는 제목에서부터 공간이 가진 장소성이 가장 잘 드러난 텍스트이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자, 주인공 '수원'이 사는 곳은 도살장과 부산물시장, 황룡공단이 있는 서울특별시 황룡동이다. 주인공의 엄마는 황룡동을 '가난한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로, '방값이 싸고, 물가가 낮고, 부산물이나 시래기도 얻을 수 있는 곳, 배운 것 없고 연줄 없는 사람들도 일할 곳이 넘쳐나는 곳'으로 설명한다.[81] 이는 주인공의 엄마가 황룡동에 사는 것은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 편입하여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주인공의 눈에 비친 황룡동은 10층 이상의 건물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자, '붉은 형광등', '소똥 냄새', '비릿한 냄새' 등이 존재하는 '서울특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곳일 뿐이다.

이처럼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서울특별시 황룡동'은 장소 그 자체가 가진 물질성이 두드러진 곳이다. 이때의 물질성이란 그 장소가 가진 지질학적 의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을 전제하는 물질적 환경을 의미한다.(전종한, 2009: 788) 장소의 물질성이 중요한 까닭은 인간이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형성하고, 이를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82]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이란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의미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E. Relph, 김덕현 외 역, 2001: 110-112)으로, 인간은 장소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장소 내부를 더 깊게 체험하고 그 장소에 동일시될수록 장소 정체성이 곧 주체의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표상된 공간을

80) 이와 같은 주장은 바슐라르에 의한 것으로, 바슐라르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안정되게 찾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G.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p. 82-83.)

81) 유은실, 『변두리』, p. 34.

82) 장소감은 특정 장소에 대한 주체의 고유하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장소 자체의 특성보다 주체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 정체성과 구분된다.(이석환·황기원, 1997: 180-181)

주인공이 장소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주인공이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곧 주인공의 현실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두리』에서 주인공은 '부산물 얻기'와 '첫꽃 먹는 날'을 계기로 황룡동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 먼저 '부산물 얻기'는 주인공이 직접 도살장에 가서 선지를 사고 내장을 얻어오는 행위로, 이는 가족들의 끼니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부산물 가게 아줌마는 가족을 위해 부산물을 얻으러 오는 주인공에게 가끔 '덤'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자본이 권력이 되는 시대에 황룡동이 비록 가난하지만 살 만한 동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황룡동 외부의 사람들에게 황룡동은 도축장이 있는 '후진 동네'일 뿐이며, 그곳에서 부산물을 얻어먹으며 사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한' 사람들로 본다. (『변두리』, 49) 그리고 이와 같은 외부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은 황룡동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이는 주인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수원아, 그 통에 든 게 뭐야?"

영미가 플라스틱 모자를 눌러쓰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영미는 교통 담당을 하면서도 하얀 프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

"무거워 보이는데?"

"음, 그러니까…… 약수, 약수야."

"음, 그러니까…… 약수터가 황룡본동에도 있나?"

영미는 내 말투를 흉내 내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수원아, 약수 좀 줄래? 목이 말라서."

영미 눈빛은 햇빛에 칼날을 비춰 보던 최 씨처럼 번뜩거렸다.

"저기…… 그러니까, 컵이 없는데."

나는 영미 눈길을 피하려고 건너편 신호등에 시선을 박았다. 입이 바짝 탔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시간이 엄마가 가르던 곱창처럼 길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뭉게뭉게 횡단보도 앞으로 몰려들어 다닥다닥 붙어 섰다. 옆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자 들통이 출렁했다. 불현듯 도살장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졌다. 선지 들통을 든 것쯤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붉은 세상이 간절하게 그리워졌다.

(『변두리』, 48)

위 인용문은 주인공 수원이 선지 들통을 들고 가는 길에 같은 반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다. 같은 반 친구인 영미 역시 도살장의 칼갈이인 최씨 아저씨의 딸이지만, 반 친구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인공밖에 없다. 교통 담당을 하면서도 하얀 프릴 원피스를 입는 영미는 마치 자신은 황룡동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주인공에게 일부러 '그 통에 든

게 뭐야?'라고 묻는다. 이에 주인공은 '약수'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약수터가 황룡본동에도 있나?'라고 되묻는 영미의 번뜩거리는 눈빛에 들통에 담긴 것이 선지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횡단보도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 틈 사이에서 '불현 듯 도살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어졌다'는 주인공의 내적 독백은 부끄러움, 창피함 등으로 얽힌 주인공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용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은 '부산물 얻기'를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황룡동 외부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부산물 얻기'가 황룡동에 대한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을 의미한다면, '첫꽃 먹는 날'은 이와 반대로 황룡동 사람들의 유대와 결속을 의미한다. '첫꽃 먹는 날'은 황룡동 어른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의식 행위로, 황룡동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첫꽃'을 먹는 행위를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맞설 힘을 갖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첫꽃 안에 아이들을 아카시아처럼 강인하게 만드는 기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두리』, 96)

그러나 황룡동 사람들이 '아카시아 숲'을 찾아 '첫꽃'을 먹는 의식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는 관련이 없다. '불과 이십여 년 전 용비봉에 아카시아 숲이 우거질 때부터 시작된 풍습'이지만, (『변두리』, 99) 황룡동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카시아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아이들 역시 아카시아의 첫꽃을 먹으면 강인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다. (『변두리』, 113) 즉, 황룡동 사람들에게 아카시아의 첫꽃을 먹는 것은 자신이 황룡동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꽃 먹는 행위는 황룡동 사람들의 치유적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황룡동은 도시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소설의 제목인 '변두리'는 황룡동의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시 내부로 편입하지 못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황룡동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꿈꾸며 '서울특별시' 다운 동네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첫꽃'을 먹는 행위를 가르치며 도시에 편입하지 못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룡동 사람들은 자본이 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들은 도심 내부의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거나 비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자본과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첫꽃 먹는 날'을 황룡동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첫꽃 먹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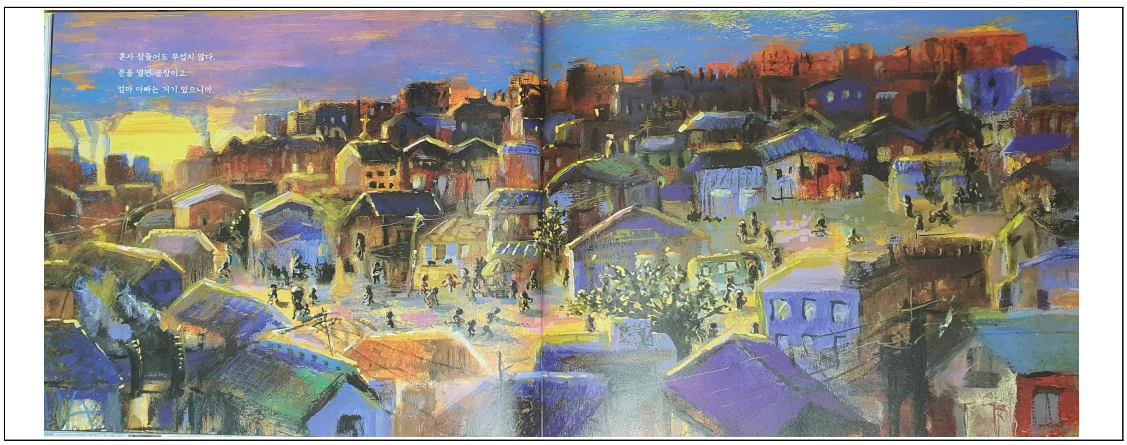
이처럼 '부산물 얻기'와 '첫꽃 먹는 날'은 주인공이 '황룡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위이다. 먼저 '부산물 얻기'를 통해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붉은 형광등, 소똥 냄새, 피비린내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은 주인공이 도심 생활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도심 안'은 아파트가 지어진 '특별시'처럼 보이는 공간이라면, 도살장이 자리한 황룡동은 '도심 밖'은 '변두리'를 의미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공간 분할은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과 도

시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잘 드러낸다. 주인공 역시 2장에서 본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황룡동을 벗어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첫꽃 먹는 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주인공은 황룡동을 심리적 피난처로 삼으며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주인공이 '도심 안'과 '도심 밖'이라는 분할된 공간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밖' 공간인 '변두리'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주변부에 대한 애착은 다른 텍스트인 『나의 독산동』에도 잘 드러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독산동』가 가진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색감이나 공간 배치, 표현 기법 등에서 작가의 공간의식이 더 세밀하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책인 『나의 독산동』은 실제 작가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앞서 살펴본 다른 텍스트에 비해 공간적 표상에서 작가의 그리움과 애틋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주인공 은이에게 '독산동'은 "이웃에 공장이 많아 참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은이가 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봤던 사회과 시험에 "이웃에 공장이 많으면 생활하기 어떨까?"라는 문제가 나왔다. 은이의 답은 "매우 편리하다"였지만, 문제의 정답은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였다. 그 순간, 은이의 장소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다. 은이가 경험했던 독산동은 언제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은이는 부모님이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셔도 저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 혼자 잠들어도 무섭지 않았다. 즉, 은이는 독산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진정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의 독산동』은 그림책 장르의 특성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독산동의 골목과 거리, 집 등을 어둡게만 표현하지 않고, 따스한 색감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주인공 은이의 장소감을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위의 장면에서 독자는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처리하면서 독산동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장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

다. 하늘을 푸른 빛과 붉은 빛을 섞어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위의 장면은 독산동의 저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는 공장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골목과 거리를 비추고 있으며, 그 불빛 아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때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는 문장에 담긴 은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공장의 노란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동네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산동을 내적으로 경험한 은이와 달리, 은이의 학교 선생님은 독산동을 그저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나쁜 동네"로 보고 있다. 이는 은이의 장소정체성에 위기가 찾아오는 계기가 되며, 은이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게 된다.

은이 아버지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낀 은이에게 '이다음에 어른 될 때까지 이 시험지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며 은이의 생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은이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어린 시절의 장소 기억을 간직한 채 성장하였으며, 장소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은이의 장소정체성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텍스트 속 은이는 작가가 되어 실제로 독산동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나의 독산동』은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그의 삶의 태도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으로 독산동이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다. 공장의 소음과 연기는 독산동을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장소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이에게 독산동은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다. 은이는 독산동을 도시 공간에서 분리하여 장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독산동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와 동일시되었음을 의미한다.[83]

83) 이는 Relph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E. Relph는 인간의 장소정체성 형성을 위해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의미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E. Relph, 김덕현 외 옮김, 2005: 116)

4. 공간 이동과 주체의 성장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은 주체가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주체의 공간 이동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결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드림 하우스』의 주인공 보람이는 공간 이동에 관하여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새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에 보람이의 집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낡고 초라한 집에서 새집으로 옮겨가는 공간 이동을 마치 보람이네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보람이네 가족이 갖게 되는 새집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람이는 '나는 그 집을 옛날 집과 연결할 수가 없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다.'(드림 하우스, 155)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 집'과 '새집'을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대조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기적처럼 갖게 된 새집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보람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람이의 거리감은 텍스트의 결말에서 새집에서 갖게 된 자신의 방에서 '발톱'을 읽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가난하더라도 품위 있게 살고 싶은 보람이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발톱'을 읽는 것으로 보람이의 모습을 결말에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보람이가 이후 '새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하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변두리』는 『드림 하우스』에 비해 공간 이동에 관한 주체의 적극적인 선택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의 저항 의지를 보여준다.

나는 더 이상 밤벌레 할머니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었다. 어쩌면 수원성도 포클레인으로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 다시는 동구 밖 과수원 길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이산가족 놀이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황룡동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 거라고, 나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중략…)

나는 엄마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1985년 8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 사라진 아카시아 숲 쪽으로, 무너지지 않은 상숙이네 집 쪽으로.

(『변두리』, 219~221)

『변두리』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의 내적 독백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주인공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황룡동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 거라고' 다짐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주인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초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행위이자, 현실에 대한 조용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84]

『변두리』에서 '수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텍스트에서 수원은 주인공이 사는 '변두리'와 달리 경기도 중심 소재지이자, 멋진 성도 있고 과수원도 많은 근사한 곳으로 표상된다. 주인공은 장래 희망을 물을 때 '수원성 동구 밖 과수원 길에 살고 싶다'고 대답하고 싶을 정도로, '수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호네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개발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과 달리, 수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용된 부분에서 보듯이, '수원'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본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지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현실 인식은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짐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드림 하우스』와 『변두리』에서 보듯이, 텍스트의 결말이 공간 이동에 관한 주체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은 유은실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발톱'을 읽으며 가난하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려는 보람이의 모습과 황룡동을 세상의 전부로 믿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수원의 모습을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 관계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으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사회적 권력 투쟁의 장으로 상징되는 공간에 지배당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주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은실의 텍스트는 공간적 표상을 매개로 자본이 곧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 아동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공간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을 점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밀어내며 점차 공간 분할을 시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텍스트에서 '도시'와 '집'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적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 텍스트에서 도시는 산업화와 자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사회적 계층의 위계가 형성된 공간으로 표현되며, 점차 도시의 '안'과 '밖', '중심'과 '외부'라는 공간 분할을 통해 도시 하층민을 도시 바깥으로 밀어낸다. 특히 작가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집'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은 주인공이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장소 정체성이란 장소 그 자체가 갖는 물질적 환경과 인간의 활동, 의미의 세 가지

84) 이를 조윤정(2014)은 소설의 제목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여, '변두리'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자 주인공의 현실 인식에 기능함으로써 청소년의 경계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주체의 장소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자기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변두리』의 '부산물 얻기'와 '첫꽃 먹는 날'은 주인공이 '황룡동'이라는 장소를 깊게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피비린내', '소똥 냄새', '붉은 형광등'으로 상징되는 황룡동의 물질적 특성은 도시 내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내적 욕망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첫꽃 먹는 날'을 통해 장소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자신의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극복하고자 한다. 『나의 독산동』 역시 '도시 주변부'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다른 텍스트들과 달리 『나의 독산동』은 그림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색감이나 공간 배치, 표현 기법 등에서 작가의 공간의식이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텍스트의 결말에서 공간 이동에 관한 주체의 선택을 보여주는 열린 결말을 선택하고 있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은 도시 하층민의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그곳을 장소로 인식하고 애착을 가지는 긍정적인 장소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주체가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드림 하우스』에서 주인공 '보람'은 비록 장소 상실을 경험하였지만, 새집에서 '발톱'을 읽으며 가난하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두리』의 '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세상의 전부라 믿으며 살겠다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결말은 미완의 형태로 남겨져 주인공의 미래를 낭만적으로만 그리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문학은 단순하고 명백한 플롯 구조, 아동독자가 흥미를 보일 만한 소재, 기억하기 쉽고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면적 인물, 아동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다루는 '착한 이야기'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은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 현실의 냉혹함은 아이들의 삶에도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유은실 텍스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독자'의 문제에서 벗어나 유은실 텍스트가 지향하는 세계이자 유은실 문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매개체로 공간적 표상에 주목하였다. 텍스트에 표상되는 공간은 주인공에게 자신의 초라한 삶을 직접 대면하고 몸으로 부딪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작가는 텍스트에서 이들의 실존적 장소 경험과 장소 정체성 형성 과정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현실 인식과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유은실, 『변두리』, 문학동네, 2014.
_____, 『드림 하우스』,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나의 독산동』, 문학과지성사, 2019,

2. 논문

권혁준, 「유은실 아동소설 연구-독자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56(4),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9, 13-31.
김민령, 「새로운 이야기 방식과 독자의 자리-유은실 동화 꼼꼼히 읽기-」, 『창비어린이』 8(3), 창비어린이, 2010, 178-194.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최일남·이동하·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호, 한국어문학회, 315-342.
김재복, 「새로움과 익숙함」, 『창비어린이』 14(4), 창비어린이, 2016, 229-231.
송수연·조태봉·여을환·김민령, 「2013년 동화를 돌아보다-층이 더 두터워진 우리 동화, 장르물의 약진」, 『어린이와 문학』, 어린이와 문학, 104권 3월호, 2014.
우지현, 「중간짜리 인간의 성장 이야기-『일수의 탄생』」, 『어린이와 문학』 104권 3월호, 2014.
유영진, 「당신의 환상은 무엇인가?-『일수의 탄생』이 던지는 불확실한 질문」, 『창비어린이』 12(2), 창비어린이, 2014, 136-145.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69-184.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45-372.
전종한,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대한지리학회지』, 44(6), 대한지리학회, 779-796.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호, 71-92.
조윤정, 「건강한 슬픔과 보통 행복-유은실, 『변두리』(문학동네, 2014」, 『문학동네』 22(1), 문학동네, 2015, 1-4.

3. 단행본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2005.
Gaston Bachelard, (La)Poetique de l'espace,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Maria Nikolajeva,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조희숙 외 옮김,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Yi-Fu Tuan, Space and Place-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Valerie Gelezeau, 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유은실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 연구 - 『변두리』, 『드림 하우스』, 『나의 독산동』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김정은(서울송전초등학교)

이 연구는 작가 유은실의 텍스트에서 도시와 집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상화된 양상을 통해 그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인간의 정신적 측면, 사고방식과의 연관 관계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많은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이렇듯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아동들의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문학작품에서 공간이 그려지는 양상과 그것이 작중인물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을 고찰한 이번 연구를 읽으며 공간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학회와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 작가의식에 대한 탐구에 대하여

이 연구는 유은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표문에 서술하셨듯 유은실의 동화는 어린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방식이나, 기법 등이 사용되어 작가와 실제 아동독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습니다. 유은실의 동화를 어린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는 독자가 아닌 다시 작가에게로 돌아가 텍스트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은실의 동화가 받고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와 관점을 탐구하고자 하신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공간적 표상에 대하여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공간적 표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도시와 집, 동네 등이 작품에서 형상화된 모습과 작중인물의 해당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적 표상이란 작품에서 형상화된 공간적 배경의 (계층적, 물리적)속성을 의미하는 것인, 작중인물들이 물리적 공간에 대해 갖는 심적 이미지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표상의 대상과 주체와 관련하여 공간적 표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3. 장소 정체성에 대하여

3장에서는 주인공의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형성과정에 주목하며, 유은실 동화 속 주인공의 주체성 형성에 공간이 기여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본문에서는 『변두리』의 주인공이 부산물 얻기와 첫꽃 먹는 날을 계기로 황룡동에 대한 장소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정체성이란 주인공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덤을 주는(행위) 부산물 가게 아줌마(인물)와 첫꽃을 먹는(행위) 동네 어른들(인물), 외부 사람들의 인식이나 도심과의 관계 등 주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우리 삶과 인물의 삶에 공간이 주는 힘, 나아가 그것이 주는 위로와 슬픔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발표문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학회와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여름 학술대회

연구 윤리 특강

연구 윤리 특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③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중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자 표기)

① 저자는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②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③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기)

①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③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의 책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책무)

①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공지사항>

▢ 회비 납부 안내

- 회 원: 2020년 연회비 30,000원
- 온라인 납부(국민은행, 919302-01-692292, 권혁준) 또는 현장 납부 가능

▢ 연락처

- 회 장 : 권혁준(공주교대) 010-6775-1363
- 총 무 : 김상한(한국교원대) 010-5752-2866
- 간 사 : 김정은(한국교원대) 010-9311-0023

어린이를 위한 연극의 모든 것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연극 단원'을 위한 완벽 길잡이 ★
★ 희곡을 읽는 즐거움과 공연의 기쁨을 알려 주는 새로운 어린이 문학 ★
★ 신나는 연극 놀이로 키우는 소통 능력과 협동심 ★

각 권 값 10,000원

재미있다! 어린이 연극

❶ 우리 같이 연극할래?—어린이를 위한 연극 길잡이 진형민 글 | 이주희 그림
❷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10분 연극 진형민 희곡집 | 허지영 그림
❸ 이상한 게임 오세혁 희곡집 | 이지연 그림
❹ 노랑이와 백곰 김중미 희곡집 | 황버리 그림

어린이들에게 연극의 재미를 발견하게 해 주는 길잡이를 통해
교실 안팎에서 신나는 연극 수업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최지영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

값 15,000원

우리 반 연극 수업 완벽 준비!

초등학교 교사, 아동문학평론가, 교육연극 활동가 등
전문가 10인의 다양한 노하우를 담은 안내서

교사를 위한 어린이 연극 수업

천효정·오은정·최지영·신지수·이충일·이나라·탁동철·김중미·이수연·박흥서 지음

Changbi Publishers 창비